

연구보고서 2020-08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와 정책 방안

세대 간 특성을 중심으로

| 신 승 배
| 손 태 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와 정책 방안

- 세대 간 특성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신승배(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손태주(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최근 농가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여성농업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농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자 주체로서 인식되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효율화와 고부가가치 농업이 추진되는 등 농업·농촌사회의 변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들은 농업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삼중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과중한 노동 부담, 복지시설 및 제도 부족, 제한적인 사회참여, 낮은 여성 농업경영주 비율과 낮은 사회적·직업적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은 상당히 진척됐다는 평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정책 체감도나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2006년부터 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 현재 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이 시행 중에 있는 가운데, 2021년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어 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향후 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사회에서 다양한 농업 주체가 확대 되면서 대상별, 연령 특성별 정책 수립의 세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제주 여성농업인이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 정책욕구 등을 세대별로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향후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의 자문을 맡아주신 제주연구원 고승한 석좌연구위원,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김자경 학술연구교수,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박정훈 전문연구원, 제주연구원 안경아 책임연구원, 제주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현민철 정책연구팀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부소장과 익명의 평가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책임을 맡은 본원의 신승배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자인 손태주 연구위원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많은 분의 노력을 담아 마련된 본 보고서가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경제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9월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 무 속

연구 요약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주지역 농업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은 열악한 실정임. 또한, 농업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보편적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연령 특성에 따른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욕구를 청년, 중년, 노년층 별로 조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농가인구 현황 및 정부와 지자체 정책 검토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세대별 분포, 실태 및 관련 정책 분석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대상 전반적 실태 및 정책욕구 조사 분석
 -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이용률, 필요도 측정 및 분석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전문가 의견 수렴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제언

나. 연구방법

- 선행연구 문헌검토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분석
- 여성농업인 실태와 욕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여성농업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세대별(청년, 중년, 노년) 여성농업인 심층면접

다. 연구절차

○ 본 연구의 연구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연구 고찰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분석
3단계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자료 분석	⇔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 및 수요조사, 심층면접 ·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자료 분석
4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5단계	분석 결과 정리	⇔	· 분석결과 정리 · 집필

제2장 여성농업인 현황 및 정책동향

1. 선행연구 검토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김영옥·김이선(2003)의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와 강혜정(2008)의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그리고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안석 외(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가 대표적임. 이 조사는 5년마다 전국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조사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함
- 여성농업인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은 편이며 일과 가사일의 이중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과중한 노동부담, 복지시설 및 제도 부족, 제한적인 사회참여, 낮은 여성경영주 비율과 낮은 직업적 지위 인식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농업인이 체감하는 정책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촌사회에서 다양한 농업 주체가 확대되면서 대상별 접근과 청년, 중년, 노년 등 세대 특성 등에 따른 정책수립의 세분화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대별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제주지역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규모 및 소득수준, 경제·사회 활동 참여, 농업관련 교육참여, 건강 및 복지 현황, 정책수요 및 향후계획,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 진단 등을 파악해보고자 함

2. 제주지역 여성 농가인구 현황

- 2019년 제주도의 농가인구는 총 83,133명이며, 이 중 여성은 41,073명으로 나타나 전체 농가인구의 4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은 23.0%, 30대 4.8%, 40대 11.2%, 50대 18.3%, 60대 18.7%, 70대 17.1%, 80대 이상 6.9%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30~40대 보다는 50~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여성 농가인구는 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규모를 의미하므로 여성농업인을 포용한 개념임. 따라서 30대 미만의 비중은 농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원일 개연성이 높음
 - 실질적인 농업활동과 참여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의 후계 여성농업인력 확보가 필요함
- 제주도는 감귤재배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과수농사의 비율이 6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채소·산나물 21.7%, 식량작물 10.5%, 축산 2.2%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농업기술의 빠른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감귤 수확 및 채소·산나물, 식량작물 등의 재배는 작물 특성상 인력 작업이 필요하며, 여성농업인의 기여가 상당함
- 제주지역 농가소득률은 변동폭이 커 안정적이지 못하며, 전국수준보다 자산대비 부채율 수준이 높음

3. 여성농업인 정책 도입 및 변화

가. 여성농업인의 정의

-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1호)을 말하며, 여성농업인의 자격은 농업을 경영하

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5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임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조건

1.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나. 여성농업인 정책 도입 및 변화

- 2001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 － 1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측면과 함께 삶의 질 제고의 복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2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 이에 따른 평가와 적절한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여성농업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4차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1~3차 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2006년부터 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3차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4. 소결 및 시사점

- 제주지역 여성 농가인구는 30~40대보다는 50~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의존이 큰 과수 및 밭작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질적인 농업활동과 참여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의 후계 여성농업인력 확보가 필요함
- 2019년 제주도의 농가소득률은 29.4%로 전국 평균 29.8%와 유사한 수준임. 하지만 제주도는 전국수준보다 높은 자산대비 부채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제주지역의 농업경

제가 미약함을 짐작케 하고 향후 지역경제 차원의 대응 방안이 요구됨

- 여성농업인이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가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여성 중 지난 1년 동안 최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논·밭 등 경지를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 경영·경작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가의 구성원을 말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2006년부터 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3차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 2020년 시행계획에서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양성을 목표로 5대 분야, 34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음

제3장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

1. 제주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가. 농업규모 및 소득수준

- 안정적인 소득유지를 위해서는 농사기술과 함께 적정규모의 경작지와 노동력이 필요함. 경작지 임치는 경작지 부족과 소득 확대의 2가지 측면에서 모두 중요함
- 여성농업인이 실제 담당하고 있는 작업비율과 소득기여율에 비해 보조적 위치에 머물고 있음. 단독경영주 인식이 낮고 생활용 금전관리 담당 비율이 높은 점, 높은 가사노동 부담비율은 여성농업인의 이러한 위치를 잘 보여줌

나. 경제·사회 활동 참여

-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 이유는 배우자와 부모의 농업종사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하의 청년 여성농업인은 농업인과 경영주로서의 주체인식이 매우 낮음
- 생활용 금전을 제외한 재무관리를 비롯하여 농업경영 전반은 여전히 남성에게 의해 주도되고 있어 여성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음
- 낮은 농업소득은 여성농업인의 소득불안을 가중시킴. 중년 여성농업인에 비해 소득불안

이 높고 농업종사기간이 짧은 청년 여성농업인은 중년 여성농업인보다 높은 성평등 인식에도 불구하고 농업 전문가가 되고 싶거나 농업 기술과 정보에 대한 관심이 낮고 직업적 자부심도 낮음

-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욕구는 중년 여성농업인이 가장 높음. 특히 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은 성차별을 크게 느끼고 조직활동의 성역할 분리도 반대하지만 가사와 자녀양육과 농사일에 대한 성역할 관념은 다소 보수적임

다. 농업관련 교육 참여

- 최근 3년 간 농업관련 교육경험이 취미·여가·교양(28.2%)과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20.3%)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장 유익했던 교육 1순위는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교육(24.9%), 2순위는 취미·여가·교양 교육(16.8%)이며, 향후 받고 싶은 교육 1순위와 2순위도 취미·여가·교양 교육임. 그러나 연령별 교육경험 분야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앞서 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은 농업인으로서의 성장에 관심이 높고, 관련 교육 참여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 그러나 교육 경험에 10%대에 머물렀고 유익했던 교육경험은 25% 전후의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교육을 제외하고 연령대별 만족도 순위가 매우 낮고, 향후 참여희망 순위 역시 낮은 점에 비추어 농업관련 활동 욕구가 반영된 교육내용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앞서 생활비 부족으로 일반 직장 취업 욕구가 높은 40대 이하 여성을 위해서는 ‘부업, 자격증 취득 교육, ‘부기·회계 등 재무관리 기법’, ‘외국어 교육’ 등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요 욕구가 높음에도 참여 경험에 10% 전후 수준으로 매우 낮고, 유익한 교육경험이나 향후 교육희망 순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교육내용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 1순위로 ‘농사일과 가사일을 대신해 줄 사람 필요’로 나타남

라. 건강과 복지현황

- 최근 3년간 아플 때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병/의원이며, 의료기관 이용시 힘든 점 1순위는 의료기관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다(26.3%), 2순위는 진료대기 시간이 길다

- (30.6%)는 점으로 나타나 근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 응답자의 60% 이상이 지난 1년간 문화행사 및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으며, 특히 60대는 80% 이상에 이름. 문화행사 및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1순위 시간부족, 2순위 정보부족으로 나타남.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점은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2순위로 지목되어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2.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및 정책 현황

가. 여성농업인 정책수요

- 정책수요는 크게 소득불안을 줄이기 위한 대체소득활동 지원, 문화생활지원 확대, 노동력부담 경감 지원, 근거리 건강관리시설 마련, 농사일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 경감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앞서 살펴본 실태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남
 -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1순위는 힘든 농사일(27.5%), 2순위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25.5%)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청년 여성농업인은 낮은 소득, 40대는 교육여건 취약, 50대 이상은 힘든 농사일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직업인으로서 농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적은 소득'과 '힘든 노동'으로 나타남. 50대 이하의 소득불만이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힘든 노동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큼
- 농촌에서 살기 가장 어려운 점은 취미활동이 어려운 환경(50대 이하)과 거리가 먼 의료시설(60대 이상), 농촌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은 가사와 농사일의 이중부담(50대 이하)과 체력부족(60대 이상)으로 나타남
 -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24.5%)과 고령 농촌 여성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22.3%)을 위한 정책수요가 높음
 - 후계 여성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처 확보를 위한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젊은 여성의 농촌유입을 위해서는 '농산업관련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지원'에 대한 선결요구가 높음

나. 여성농업인 정책 현황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 분석된 정책 수요와 욕구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필요도에 비해 전반적인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문제점이 드러나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 노력이 필요함
 - － 전반적인 정책 인지수준과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이 낮음
 - － 연령별로는 대체로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정책 인지수준과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이 높은 편이며, 30대 이하 청년 여성농업인과 60대 이상 노년 여성농업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5개 기본전략에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노력이 필요함
 -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와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분야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참여 유도 노력이 필요함
 -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공 영역은 관련 정책의 이용 및 적용확대 노력이 필요함
 - －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분야와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이용률 향상 노력이 필요함

3. 소결 및 시사점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세대별로 정책 수요 욕구가 다름
 - － 30대 이하의 청년 여성농업인은 결혼을 기점으로 한 환경적 영향으로 농업에 입문하는 시기이며, 농업노동과 함께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이 낮고, 소득불안과 함께 소득활동과 보육지원 욕구가 강함
 - － 40대 중년 여성농업인은 농업 경험이 누적되면서 농업인으로서 성장을 시작하는 시기로 농업노동과 함께 자녀 양육을 부담함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욕구가 강하고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직 안정되지 못해 소득불안을 해소할 소득활동을 원하는 한편 농업전문가로의 성장 욕구 및 농업경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 참여가 증가하고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도 증가함
 - － 50대는 농업기술과 경험의 누적으로 농업전문가로의 성장이 완숙하는 시기로 가장 많은 농업노동을 부담하며 농업전문가로의 성장 및 활동 욕구가 가장 커 관련 ‘교육

참여' 및 '정책 이용 및 참여'도 적극적임. 그러나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농업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여전히 부담함

- 60대 이상은 농업기술과 경험이 완숙되었지만 노화로 인한 신체능력의 감소로 과중한 농업노동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욕구 증가함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은 이번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 분석된 정책 수요와 욕구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반적인 정책 인지수준과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이 낮음
 - 연령별로는 대체로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정책 인지수준과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이 높은 편이며, 30대 이하 청년 여성농업인과 60대 이상 노년 여성농업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이용 및 경험률 제고를 통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함. 특히 세대별 정책 수요 욕구에 따라 정책의 직접대상자를 파악하여 타겟 홍보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제4장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심층면접 결과

1.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심층면접 분석결과

가. 농업 종사 계기

-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크게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한 경우, 결혼 후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도와 종사, 귀농, 농업이 좋아서 등으로 나타남
-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기대수요도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농업에 종사한 계기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전히 여성농업인은 농업보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체화되어 있음. 이에 대해서는 농업의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탈정체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나. 여성농업인으로서 어려운 점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적은 소득, 돌봄, 육체적 힘들,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부담, 편의(위생)시설의 부재, 농기계 사용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의 노동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농번기 경작지 중심의 안전과 건강, 위생 등 노동환경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며, 여성농업인과 노년농업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경량형 농기계 개발이 필요함

다. 생활환경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생활환경은 주거와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문화생활, 교통, 야간진료 병원, 안전의 취약성 등을 호소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생활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과중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을 들 수 있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기획하는 각종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이 고려된다면 시간 부족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의료서비스 또한 농업노동시간이 고려되어 농번기 동안만이라도 야간 진료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안전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 안전진단을 통해 취약성이 진단된 지역의 가로등과 CCTV 등 범죄예방시설 등이 증설될 필요 있음

라. 경제·사회활동 참여

- 심층면접 참여자의 단체 활동의 경우 부녀회, 농협 봉사단,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의용소방대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마을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차 산업에 대해서 60대는 다소 회의적이었지만 40대는 매우 의욕적이고 50대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 6차 산업 종사경험이 있는 50대는 정책지원에 다소 비판적이었으나 6차산업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공정을 나타냄
- 농사일 분담의 경우 여성농업인은 남성과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까지 부담하고 있음. 이는 여전히 잔존해 있는 가부장적 인식으로 인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원인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

해서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될 필요 있음

-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을 경영인력으로 육성해 6차 산업을 자생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마. 건강상태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농업노동으로 인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에 대한 통증을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음
- 대표적인 농부병으로 알려진 근골격계 질환이란 팔과 어깨, 허리, 목, 무릎 등이 쭈서거나 결리고 아픈 증상을 의미하며, 주로 근육과 인대, 관절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 장애임. 이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 및 이미 이환된 여성농업인들에게는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 있음

바.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했던 여성농업인 정책은 ‘행복바우처’ 사업이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획기적 제도개선으로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로 평가된 바 있음. 특히, 자부담폐지(전국최초), 행정절차간소화(15일→1일), 카드발급기관 확대(농협은행시지부→지역농협)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복지시책유공 행복바우처지원 우수성으로 인정되었음. 따라서 이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및 지위향상을 도모할 필요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에 대해 보다 폭넓은 홍보강화를 통해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를 높일 필요 있음

2.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세대별 정책 욕구

가. 청년(30대 이하)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

- 청년(30대 이하) 여성 농업인의 정책 욕구는 다양하지 않았지만, 행복바우처 확대와 정보공유 및 청년 여성농업인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한 욕구를 드러냈으며, 여성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주체성 확립을 요구했음

나. 중년(40대-50대)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

- 중년(40대-50대)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는 농산물에 대한 판로지원, 돌봄, 의료지원,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 농업경영체 미등록 사각지대 해소, 성평등 의식 개선, 농촌 일손돕기 인력지원, 농기계 교육 및 보수교육, 농번기철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의 다양한 욕구가 파악됨

다. 노년(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

- 노년(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는 경량 여성용 농기계 및 소포장 퇴비 공급,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정보화 교육지원, 농부병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의료지원, 농업경영체 미등록 사각지대 해소 등의 욕구가 파악됨

3. 소결 및 시사점

-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기대수요가 커지고 있으므로 보조적 역할 인식에서 벗어나 농업 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정체감 확립을 위한 ‘탈정체화’ 방안 모색 필요
-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 새로운 농외소득활동 방안, 과중한 노동부담(농업, 가사, 돌봄노동) 경감을 위한 대안 모색, 경작지 및 농번기 노동환경 개선, 여성농업인 및 노년농업인을 위한 경량화된 농기계 개발 지원
- 생활환경 측면에서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생활, 교통, 야간진료 병원, 안전취약성 개선 방안 고려, 농부병으로 알려진 근골격계 질환 관리 및 예방프로그램, 건강회복 프로그램 지원
- 마을공동체 단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증진 방안 강구
- 행복바우처 사업과 같은 만족도가 높은 지원 정책들의 확대 적용 및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의 홍보 강화를 통하여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 증진 방안 강구
- 세대별 정책욕구는 다음과 같음
 - 청년(30대 이하) : 행복바우처 확대, 정보공유 및 청년 여성농업인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연대방안 및 여성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주체성 확립

- 중년(40대-50대) : 농산물 판로 지원, 돌봄, 의료지원,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 농업경영체 미등록 사각지대 해소, 성평등 인식 개선, 농촌 일손돕기 인력지원, 농기계 교육 및 보수교육, 농번기철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 노년(60대 이상) : 경량 농기계 및 소포장 퇴비 공급,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정보화 교육지원, 농부병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의료지원, 농업경영체 미등록 사각지대 해소 등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 이 연구는 농업인구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욕구를 청년, 중년, 노년층별로 조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요약

- 농업규모와 소득수준은 다소 낮은 편임. 안정적인 소득유지를 위해서는 농사기술과 함께 적정규모의 경작지와 노동력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이 실제 담당하고 있는 작업비율과 소득기여율에 비해 보조적 위치에 머물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 이유는 배우자와 부모의 농업종사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하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인과 경영주로서의 주체인식이 매우 낮음
 -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음. 여성의 농업노동 부담률은 결코 적지 않으나 농촌 특유의 남성 중심적 특성과 낮은 성평등 인식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 낮은 농업소득은 여성농업인의 소득불안을 가중시켜 다른 소득활동 욕구를 증가시키고, 농업관련 활동 욕구를 낮추는 등 삶의 질을 악화시킴
- 청년 여성농업인은 중년 여성농업인보다 높은 성평등 인식에도 불구하고 농업전문가가 되고 싶거나 농업 기술과 정보에 대한 관심이 적고 직업적 자부심도 낮음.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욕구는 50대가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의 이탈을 막고 신규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50대 여성농업인의 활동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활동 기회 확대와 더불어 청년 여성농업인의 소득불안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함
- 농업관련 교육은 참여 기회 확대와 여성농업인의 활동 욕구에 맞춰 교육내용 개선이 필요함
 - 앞서 50대 여성은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높고, 농업전문가로의 성장을 희망하고 새로운 농업기술 및 정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이하는 생활비 부족으로 일반 직장 취업을 원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을 위한 교육내용 개선이 필요함
-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시설이 필요함. 농업과 농촌이라는 거주 환경의 특성 상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마을 내 통증의 관리 및 이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케어설비를 갖춘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 여성농업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문화활동의 다양화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의 확대가 필요함

나. 여성농업인 정책수요 조사 결과분석

1)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1순위는 힘든 농사일(27.5%), 2순위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25.5%)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청년 여성농업인은 낮은 소득, 40대는 교육여건 취약, 50대 이상은 힘든 농사일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직업인으로서 농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적은 소득'과 '힘든 노동'으로 나타남. 50대 이하는 소득불만이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힘든 노동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큼
- 농촌에서 살기 가장 어려운 점은 취미활동이 어려운 환경(50대 이하)과 거리가 먼 의료시설(60대 이상), 농촌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은 가사와 농사일의 이중부담(50대 이하)과 체력부족(60대 이상)으로 나타남

2) 여성농업인 정책 현황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은 필요도에 비해 전반적인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문제점

이 드러남에 따라 이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영역과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영역은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영역이었으나 필요성 인식이 높음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함께 참여유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영역은 5개 영역 중 인지도와 이용률이 가장 높은 영역이었으며, 필요성 인식도 가장 높은 영역이므로 관련 정책의 이용 및 적용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영역과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인지도는 중간수준이지만 필요도에 비해 이용률은 낮은 편임.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이용률 향상 노력이 필요함

다. 분석결과의 시사점

○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정책수요 욕구가 다름

청년(입문기)	중년(성장기)		노년(쇠퇴기)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출산, 보육, 가사	양육, 가사	가사	가사
농업 및 농촌생활 적응	농업 경험 축적	농업기술 및 경험 완숙	신체능력 감소(노화)
소득불안, 낮은 농업인 정체성 인식(보조적 지위)	소득불안, 농업전문가 성장 욕구 증가	농업전문가로 성장	과중한 농업노동 부담 증가
소득활동, 보육지원	교육여건 개선, 소득활동, 농업활동 욕구 증가	농업 관련 활동 및 교육, 정책 참여 증가	보건의료서비스 수 욕구 증가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은 필요도에 비해 전반적인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문제점이 드러나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세대별 정책 수요 욕구에 따라 정책의 직접대상자 파악을 통한 타겟 홍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2. 정책제언

구분	정책제언
청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공동경영인등록제도 활성화 지원
	농촌형 아이 돌봄 사업 추진
중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중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행복바우처 확대를 통한 문화·여가 지원
	농번기 마을 공동밥차 시범운영
	취미·여가·교양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지속
노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노년 여성농업인의 통증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운영 지원
세대 공통 정책 지원	농번기 친환경 간이 화장실 운영
	세대별 농외 소득원 확보 방안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경작지 임대차 공유 플랫폼 및 임차농 실경작 확인 방안 마련
	여성농업인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개선

가. 청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 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정체성 인식 강화 및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을 위한 공동경영인등록제도 활성화
 - － 제주에서는 부부공동경영협약제도를 2018년부터 2년 연속 추진했으나 사업추진이 중단된 경험이 있음. 등록된 여성경영주에게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 및 정책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
- 농번기 틈새 돌봄 공백을 고려한 농촌실정에 적합한 농촌형 아이 돌봄 서비스 필요

나. 중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 농업전문가로서의 성장욕구가 강한 중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 6차 산업에 관심이 있는 중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일감 갖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업 생산기술, 농산물 가공기술, 농산물 유통·마케팅 기술 등 실질적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문화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행복 바우처 확대
- 제주지역 농촌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취미·여가·교양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지속
- 농번기 중년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작업 현장에서 이용가능한 마을 공동밥차 시범운영

다. 노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 실질적인 노년 여성농업인의 통증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운영 지원
 - 여성농업인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라. 세대 공통 정책 지원

- 야외 작업 중 화장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농번기 친환경 간이 화장실 운영
- 세대별 농외 소득원 확보 방안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여성농업인		활동 희망 농외소득활동
청년	30대 이하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일반 직장 취업, 자영업 등
중년	40대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일반 직장 취업,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 판매 등
	50대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 판매, 농업임금노동(품삯 노동 포함) 등
노년	60대 이상	

- 농지법에 따른 임대 가능 경작지 임대차 공유 플랫폼 및 임차농 실경작 확인 방안 마련
 - 경작지 임대차 정보 공유 플랫폼을 마련하여 경작지 정보 교류와 함께 표준계약을 정착시키면 농업노동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는 임대창구 역할을 할 수 있고, 경작지가 필요한 이들은 보다 쉽게 경작지 정보 획득과 경작지 확보가 가능함.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한 거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농민수당 지급대상 선정 시 토지를 임대해서 실제 경작하고 있

는 임차 여성농업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행정, 농민단체, 농협, 마을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지 실경작 확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차농의 지위를 보호하고 경작권을 인정해 농지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개선

3. 연구의 한계점

-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 －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 수요 욕구에 관한 특정 시기의 횡단조사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계열적 변화를 담고 있지 않음
 - － 이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를 구별하고 있지 않음
 - －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 인구 현황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여성 농가인구 통계자료를 토대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에 한계가 있음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6
다. 연구절차	7
제2장 제주지역 여성 농가인구 현황 및 정책동향	9
1. 선행연구 검토	11
2. 제주지역 여성 농가인구 현황	14
3. 여성농업인 정책 도입 및 변화	17
가. 여성농업인 정의	17
나. 여성농업인 정책 도입 및 변화	18
4. 소결 및 시사점	28
제3장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	31
1. 조사개요	33
가.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33
나. 조사내용	34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5
2.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38
가. 농업규모 및 소득수준	38
나. 경제·사회 활동 참여	48
다. 농업관련 교육참여	79
라. 건강 및 복지 현황	91
3.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수요 분석결과	98
가. 정책수요 및 향후계획	98

나.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115
다. 여성농업인 정책 이용 또는 참여 경험	125
라. 여성농업인 정책 필요도	137
4. 소결 및 시사점	145
가. 여성농업인 실태	145
나.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및 정책 현황	147
다. 시사점	149
제4장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심층면접 결과	151
1. 심층면접개요 및 참여자 특성	153
가. 심층면접 개요	153
나.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153
2.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심층면접 분석결과	156
가. 농업 종사 계기	156
나.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어려움	158
다. 생활환경	160
라. 경제·사회활동 참여	163
마. 건강상태	166
바.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166
3.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세대별 정책 욕구	167
가. 청년(30대 이하)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	167
나. 중년(40대 - 50대)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	168
다. 노년(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	171
4. 소결 및 시사점	172
가.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심층면접 분석결과	172
나.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세대별 정책 욕구	17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7
1. 요약 및 시사점	179
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요약	179
나.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및 정책 현황	181
다. 분석결과와 시사점	183

2. 정책제언	184
가. 청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185
나. 중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186
다. 노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188
라. 세대 공통 정책 지원	188
3. 연구의 한계점	191
참고문헌	192
부록 : 설문지	193

표 목 차

〈표 2-1〉 농가인구 현황	14
〈표 2-2〉 연령별 여성 농가인구 수 및 구성비	15
〈표 2-3〉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19
〈표 2-4〉 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주요 내용	21
〈표 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23
〈표 2-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성과와 보완점	25
〈표 2-7〉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주요 내용	27
〈표 3-1〉 조사내용	34
〈표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7
〈표 3-3〉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농·축산물	39
〈표 3-4〉 경작지 규모	40
〈표 3-5〉 경작지 임차 이유	41
〈표 3-6〉 지난 1년간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	42
〈표 3-7〉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계지출액	43
〈표 3-8〉 자신명의 자산(다중응답)	45
〈표 3-9〉 농업소득 관리자	48
〈표 3-10〉 농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	49
〈표 3-11〉 직업인으로서의 지위 인식	51
〈표 3-12〉 농사 작업별 담당(공통) - 농사기술 및 판매 정보의 수집 및 획득	52
〈표 3-13〉 농사 작업별 담당(공통) - 농사 및 경영일지 기록	53
〈표 3-14〉 농사 작업별 담당(공통) - 농업용(영농자금) 대출 및 상환 결정	53
〈표 3-15〉 농사 작업별 담당(공통) - 농지 및 기계 구입	54
〈표 3-16〉 농사 작업별 담당(공통) - 생활용 금전 관리	54
〈표 3-17〉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논갈이, 밭갈이	56
〈표 3-18〉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파종, 육묘, 정식	56
〈표 3-19〉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농약 살포	57

〈표 3-20〉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비료주기	58
〈표 3-21〉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수확	58
〈표 3-22〉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수확 후 관리(건조, 세척)	59
〈표 3-23〉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출하준비(선별, 포장)	59
〈표 3-24〉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외부인력(고용)관리	60
〈표 3-25〉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심을 작물 결정	60
〈표 3-26〉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판매처 결정	61
〈표 3-27〉 농사 작업별 담당(축산) - 축산 먹이주기	62
〈표 3-28〉 농사 작업별 담당(축산) - 방역, 위생관리	62
〈표 3-29〉 농사 작업별 담당(축산) - 축사청소, 퇴비처리	63
〈표 3-30〉 농사 작업별 담당(축산) - 우유 짜기	63
〈표 3-31〉 농사 작업별 담당(축산) - 기타 사육관리	64
〈표 3-32〉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 농산물 가공(장류, 엑기스)	65
〈표 3-33〉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 농산물과 농산물가 공식품 판매(직거래, 온라인 포함)	66
〈표 3-34〉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 농촌관광사업(주말 농장, 민박 등)	67
〈표 3-35〉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67
〈표 3-36〉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 일반 직장 취업 ...	68
〈표 3-37〉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69
〈표 3-38〉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 농업 임금노동(품작 노동 포함)	69
〈표 3-39〉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71
〈표 3-40〉 향후에 하고 싶은 소득 활동 - 1순위	72
〈표 3-41〉 향후에 하고 싶은 소득 활동 - 2순위	72
〈표 3-42〉 현재 활동 단체(다중응답)	78

〈표 3-43〉 지역사회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79
〈표 3-44〉 가장 유익했던 교육 - 1순위	87
〈표 3-45〉 가장 유익했던 교육 - 2순위	87
〈표 3-46〉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 1순위	88
〈표 3-47〉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 2순위	89
〈표 3-48〉 교육참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 1순위	90
〈표 3-49〉 교육참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 2순위	91
〈표 3-50〉 건강상태	92
〈표 3-51〉 최근 3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93
〈표 3-52〉 의료기관 이용시 힘든 점 - 1순위	94
〈표 3-53〉 의료기관 이용시 힘든 점 - 2순위	95
〈표 3-54〉 문화행사 관람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 1순위	97
〈표 3-55〉 문화행사 관람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 2순위	97
〈표 3-56〉 향후 농업 지속 의향	99
〈표 3-57〉 농업 지속 이유	100
〈표 3-58〉 농촌에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 1순위	102
〈표 3-59〉 농촌에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 2순위	102
〈표 3-60〉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 1순위	104
〈표 3-61〉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 2순위	104
〈표 3-62〉 직업인으로서 농업을 하기 가장 어려운 점	106
〈표 3-63〉 농촌생활의 어려운 점	107
〈표 3-64〉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	109
〈표 3-65〉 여성농업인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 1순위	110
〈표 3-66〉 여성농업인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 2순위	111
〈표 3-67〉 고령의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12
〈표 3-68〉 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113
〈표 3-69〉 젊은 여성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	114
〈표 3-70〉 정책인지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116
〈표 3-71〉 정책인지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119

〈표 3-72〉 정책인지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121
〈표 3-73〉 정책인지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123
〈표 3-74〉 정책인지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125
〈표 3-75〉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127
〈표 3-76〉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129
〈표 3-77〉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133
〈표 3-78〉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134
〈표 3-79〉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137
〈표 3-80〉 정책필요도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138
〈표 3-81〉 정책필요도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140
〈표 3-82〉 정책필요도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142
〈표 3-83〉 정책필요도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143
〈표 3-84〉 정책필요도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145
〈표 4-1〉 심층면접 질문내용	153
〈표 4-2〉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155
〈표 5-1〉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 방안에 대한 제언	184
〈표 5-2〉 희망 농외 소득활동	189

그 립 목 차

〈그림 2-1〉 영농형태별 농가비중	16
〈그림 2-2〉 농가소득률 변화추이	16
〈그림 2-3〉 자산대비 부채율 변화추이	17
〈그림 2-4〉 제4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20
〈그림 2-5〉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방향	26
〈그림 3-1〉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35
〈그림 3-2〉 가장 판매금액이 많은 농·축산물	38
〈그림 3-3〉 경작지 규모	39
〈그림 3-4〉 경작지 임차 여부	40
〈그림 3-5〉 경작지 임차 이유	41
〈그림 3-6〉 지난 1년간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	42
〈그림 3-7〉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계지출액	43
〈그림 3-8〉 여성농업인 명의 자산(다중응답)	44
〈그림 3-9〉 본인의 농사담당 비율	45
〈그림 3-10〉 지난 1년간 소득의 본인 기여율	46
〈그림 3-11〉 가사노동 분담비율	47
〈그림 3-12〉 농업소득 관리자	47
〈그림 3-13〉 농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	49
〈그림 3-14〉 직업인으로서의 지위인식	50
〈그림 3-15〉 농사 작업별 담당 - 공통	51
〈그림 3-16〉 농사 작업별 담당 - 논, 밭, 과수	55
〈그림 3-17〉 농사 작업별 담당 - 축산	61
〈그림 3-18〉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65
〈그림 3-19〉 농업생산 이외에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70
〈그림 3-20〉 향후에 하고 싶은 소득활동 - 1순위, 2순위	71

〈그림 3-21〉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73
〈그림 3-22〉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내가 짓는 농사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74
〈그림 3-23〉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자부심을 느낀다	74
〈그림 3-24〉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새로운 농업 기술, 정보에 관심이 많다	75
〈그림 3-25〉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 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75
〈그림 3-26〉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여성이 농사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	76
〈그림 3-27〉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농사일에서 여성 본인의 역할이 남성과는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76
〈그림 3-28〉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나는 지역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77
〈그림 3-29〉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지역의 사회활동에서 남녀 차별을 느낀다 ...	77
〈그림 3-30〉 현재 가입·활동하고 있는 단체(다중응답)	78
〈그림 3-31〉 지역사회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79
〈그림 3-32〉 농업관련 교육 경험	80
〈그림 3-33〉 교육경험 -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 설비 운전	80
〈그림 3-34〉 교육경험 -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81
〈그림 3-35〉 교육경험 - 농산물 가공 기술	81
〈그림 3-36〉 교육경험 -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82
〈그림 3-37〉 교육경험 - 부가·회계 등 재무관리 기법	82
〈그림 3-38〉 교육경험 - 컴퓨터 교육(블로그 운영 등)	83
〈그림 3-39〉 교육경험 - 농촌관광 사업 운영	83
〈그림 3-40〉 교육경험 -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84
〈그림 3-41〉 교육경험 - 취미·여가 교양	84
〈그림 3-42〉 교육경험 - 부업, 자격증 취득	85
〈그림 3-43〉 교육경험 - 외국어교육(영어, 중국어, 일어 등)	85
〈그림 3-44〉 교육경험 - 자동차 운전	86

〈그림 3-45〉 가장 유익했던 교육 - 1순위, 2순위	86
〈그림 3-46〉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 1순위, 2순위	88
〈그림 3-47〉 교육참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 1순위, 2순위	90
〈그림 3-48〉 건강상태	91
〈그림 3-49〉 활동수행 도움정도	92
〈그림 3-50〉 최근 3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93
〈그림 3-51〉 의료기관 이용시 힘든 점 - 1순위, 2순위	94
〈그림 3-52〉 문화행사 이용빈도	95
〈그림 3-53〉 문화시설 이용빈도	96
〈그림 3-54〉 문화행사 관람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 1순위, 2순위	96
〈그림 3-55〉 향후 농업 지속 의향	98
〈그림 3-56〉 농업 지속 이유	99
〈그림 3-57〉 향후 농촌 거주 의향	101
〈그림 3-58〉 농촌에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 1순위, 2순위	101
〈그림 3-59〉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 1순위, 2순위	103
〈그림 3-60〉 직업인으로서 농업의 어려운 점	105
〈그림 3-61〉 농촌생활의 어려운 점	107
〈그림 3-62〉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	108
〈그림 3-63〉 여성농업인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 1순위, 2순위	110
〈그림 3-64〉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12
〈그림 3-65〉 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113
〈그림 3-66〉 젊은 여성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	114
〈그림 3-67〉 정책인지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115
〈그림 3-68〉 정책인지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117
〈그림 3-69〉 정책인지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120
〈그림 3-70〉 정책인지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122
〈그림 3-71〉 정책인지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124
〈그림 3-72〉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126
〈그림 3-73〉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128

〈그림 3-74〉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131
〈그림 3-75〉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134
〈그림 3-76〉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135
〈그림 3-77〉 정책필요도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137
〈그림 3-78〉 정책필요도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139
〈그림 3-79〉 정책필요도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141
〈그림 3-80〉 정책필요도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143
〈그림 3-81〉 정책필요도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144
〈그림 3-82〉 생애주기별 정책수요 욕구	150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욕구를 청년, 중년, 노년층 별로 조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제주지역 농업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은 열악한 실정임. 또한, 농업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보편적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연령 특성에 따른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 농업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1차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2차, 3차 산업으로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과거 농업의 단순 보조자로 인식되던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개방화 농정 등 농업·농촌사회의 변화로 대안적 노동력과 농업경영자로서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농업의 효율화와 고부가가치 농업이 추진되면서 ‘6차 산업’의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이 인식되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은 편임.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과중한 노동부담, 복지시설 및 제도 부족, 제한적인 사회참여, 낮은 여성경영주 비율과 낮은 직업적 지위 인식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농업인이 체감하는 정책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통계청 농림업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제주도의 농가인구는 총 83,133명이며, 이 중 여성은 41,073명으로 나타나 전체 농가인구의 49.4%를 차지하고 있음
 - － 제주도의 농가인구는 지난 2010년보다 31,406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여성은 16,482명 감소함. 제주도의 농가인구 및 여성 농가인구 규모는 지난 2010년에 비해 연평균 3.7%씩 감소한 반면 전국은 3.4%씩 감소하여 제주도의 여성농업인 규모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전국은 대체로 5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제주도는 2014년 49.3%로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8년에는 50.3%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49.4%로 전년보다 감소했고, 전국 수준보다 낮게 나타남

- 2019년 여성 농가인구 41,073명 중 30대 미만은 23.0%, 30대 4.8%, 40대 11.2%, 50대 18.3%, 60대 18.7%, 70대 17.1%, 80대 이상 6.9%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8년간 여성 농가인구의 연평균 증감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3.7%가 감소한 가운데 70대와 80대 이상에서만 연평균 증감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70대 미만에서는 30대까지 연령이 낮아질수록 감소폭이 증가하여 30대는 연평균 1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구간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커지는 감소폭은 실질적인 농업활동 및 참여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의 부족 현상을 보여줌과 더불어 후계 여성농업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약 7여 연간 제주도의 농가소득률은 전국평균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중 2010년의 농가소득률은 48.0%로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그러나 2013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농가소득률이 2015년에는 14.0%로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하여 지난 2018년에는 32.5%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다시 감소해 29.4%로 여전히 전국평균 수준보다 낮게 나타남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로, 강경희(2007)는 제주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보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중인 여성농업인 정책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실질적으로 제주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주 여성농업인 5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이 연구의 정책 제언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확립, 실질적인 여성후계자 양성 교육 마련, 교육훈련의 전문화 및 계층별 교육프로그램 마련, 정보화 구축, 여성농업인 의식증진의 방향,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등이 있음
- 또한, 최근 이연화(2016)는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노동, 양육, 건강, 안전 등의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세 이상 성인여성 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강화,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위 두 연구는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에도 포용되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 중앙 정부의 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문과 맞물려 정책에 반영되어 있음

- 현재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의거하여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시행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2차 기본계획의 수립되던 2006년 5년 늦게 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현재 3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이 시행중에 있는 가운데, 2021년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앞두고 있어 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향후 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음. 더욱이 농촌사회에서 다양한 농업 주체가 확대되면서 대상별 접근과 청년, 중년, 노년 등 세대 특성별 정책수립의 세분화가 필요한 시점임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 및 여성농업인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편적 정책 수행으로는 실효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 수요자 중심인 세대 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 체감도를 정확히 측정 한 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제주 여성농업인이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 정책욕구 등을 청년, 중년, 노년층 세대별로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구체화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향후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중앙정부는 제5차)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함
 -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대의 구분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생애주기 및 농업종사 경험 누적에 따라 농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입문기에 있는 30대 이하를 청년층, 농업기술과 경험이 성장하면서 왕성하게 농업활동을 하는 시기인 40대와 50대를 중년층, 신체능력의 감소와 농업노동 부담 증가로 인한 향후 농업 축소 시기인 60대 이상을 노년층으로 범주화해서 분석을 시도했음. 특히, 40대와 50대는 중년층이지만 40대는 30대 이하의 경계와 50대는 60대 이상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이질감과 동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연령의 해석에서 특징적인 경우에는 상호배타적으로 기술하고자 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농가인구 현황 및 정부와 지자체 정책 검토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세대별 분포, 실태 및 관련 정책 분석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대상 가구, 농업규모 및 소득수준, 경제·사회 활동 참여, 농업 관련 교육참여, 건강 및 복지 현황, 정책수요 및 향후계획 등 전반적 실태 및 정책 욕구 조사 분석
 -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핵심내용인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 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에 대한 정책 인지도 및 참여 여부를 통한 여성농업인들의 체감도 파악 및 정책 항목별 필요 정도를 측정하여 정책 개입 근거 확보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제언

나. 연구방법

- 선행연구 문헌검토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분석
- 여성농업인 실태와 욕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여성농업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세대별(청년, 중년, 노년) 심층면접

다. 연구절차

○ 본 연구의 연구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연구 고찰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분석
3단계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자료 분석	⇔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 및 수요조사, 심층면접 ·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자료 분석
4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5단계	분석 결과 정리	⇔	· 분석결과 정리 · 집필

제주지역 여성 농가인구 현황 및 정책동향

1. 선행연구 검토
2. 제주지역 여성 농가인구 현황
3. 여성농업인 정책 도입 및 변화
4. 소결 및 시사점

1. 선행연구 검토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김영옥·김이선(2003)의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와 강혜정(2008)의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그리고 정은미 외(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안석 외(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가 대표적인데, 이 실태조사는 전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5년마다 가구현황,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 현황, 의사결정 관여도, 농업에 대한 인식, 복지실태, 정책수요 등을 조사하였고, 조사 시기마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함
- 김수옥·박은희(2003)는 여성농업인 농업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농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성농업인 육성방안을 제시함.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들의 농업노동에 대한 어려움으로 육체적 노동과 농기계 사용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함
- 김정미 외(2004), 김정미 외(2005), 김정미 외(2006)는 공통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역할별로 독립경영주, 공동경영주, 준경영인, 임금근로자, 농업보조자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함. 김정미 외(2004)는 여성농업인 역할에 대한 자기인식, 필요시설, 지역사회활동 저해요인,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김정미 외(2005)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농업기술 수준, 농업전문교육과정 참여와 평가, 희망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했음. 희망하는 교육 내용 가운데 작물재배 및 기술, 농기계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한 관심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김정미 외(2006)는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우선순위, 영농활동 시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시함
- 강혜정(2008)은 여성농업인의 농업 노동 참여와 농외 소득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여 세대별 생산품목별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창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보고함
- 최근 엄진영 외(2018)의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 욕구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바, 여성농업인이 종사하고 있는 품목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농외소득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농업소득과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이었음. 또한 채소농가 여성농업인의 절대적 노동투입시간이 가장 높고, 가구당 연평균 노동투입시간으로 분석

하면 화훼, 과수, 채소, 축산 순서로 나타났음. 또한, 연령대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노동 투입시간은 다르게 나타남

○ 지역별 여성농업인 조사연구를 살펴보면,

- 조경욱(2016)은 전라북도 최초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전북여성농업인이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 정책욕구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구체화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야를 재구성하여 영농특성 및 농가소득, 농외소득 활동과 의향, 농업 및 사회활동 인식, 여성농업인의 정책욕구를 분석함
- 강종원(2017)은 강원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생산자, 경영자로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리더, 지역개발 사업의 주체, 복지서비스의 지지자, 지역특화 사업의 주도자(6차산업화)로서의 역할 등을 보완한 미래농촌사회의 주된 경영자로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함
- 태희원(2018)은 충청남도 농촌 청년여성의 생활실태와 정책욕구를 조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농촌 청년여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함

○ 제주지역의 경우 강경희(2007)와 이연화(2016)의 연구가 대표적임

- 강경희(2007)의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5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확립, 실질적인 여성후계자 양성 교육 마련, 교육훈련의 전문화 및 계층별 교육프로그램 마련, 정보화 구축, 여성농업인 의식증진의 방향,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등의 정책을 제안함
- 이연화(2016)는 제주 농촌지역 여성 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농촌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강화, 농촌지역 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 방향을 제시함

○ 이상의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책적 요구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연령대별로 필요한 정책도 달라져야함을 시사하고 있음

○ 정은미 외(2014)의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일반농가나 다문화가정에 비해 고령의 농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음. 75%의 고령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을 50%이상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다문화가정의 경우 25%미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음. 이는 정책대상자의

차이에 따른 인력정책 운용이 달라야 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고령 여성농업인의 경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농사일에 종사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의 노동공급과 강도를 완화시킬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최근 안석 외(2019)의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은 공통적으로 농사일이 어렵고, 농사와 가사를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일반적인 애로사항과 별개로, 여성농업인은 연령집단에 따라 특징적인 정책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함
 - 3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농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지소유 비율이 낮으며, 자녀 양육이나 문화생활에 관심도 많고 교육 경험도 많음. 자녀를 양육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향후 농업관련 새로운 사업을 하기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교육여건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농촌을 떠나고 싶어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40대와 50대는 왕성하게 농업활동을 하는 시기임. 이들은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여 노동 부담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문화활동과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음. 이 중 40대는 농업 교육 경험도 높고,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 애로사항으로 기획·정보부족을 꼽고 있음. 40~50대는 유통판매나 마케팅, 농업생산, 부업자격증 등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농의 경우 소유면적이 작고, 경작규모가 작으며, 농사일 담당 비중이 높고, 농산물 판매액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향후 농업을 축소하거나 그만둘 의사 또한 높았으며, 건강으로 인해 교육 장소가 가까운 곳을 선호하며, 의료기관이 멀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복지정책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로 삶의 주기에 따른 삶의 양식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 차이에 따른 맞춤형 욕구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령집단에 따른 특징적인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제주지역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규모 및 소득수준, 경제·사회 활동 참여, 농업관련 교육참여, 건강 및 복지 현황, 정책수요 및 향후 계획,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 진단 등을 파악해보고자 함

2. 제주지역 여성 농가인구 현황

- 여성농업인은 여성 농가인구, 농촌 여성과는 다른 개념임. 농가인구는 농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친인척을 의미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농업과 관련되면 가구원에 포함됨. 여성 농가인구는 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규모를 의미하므로 여성농업인을 포용한 개념임. 또한 비농가 인구를 포함하는 농촌 여성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임
- 통계청 농림업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제주도의 농가인구는 총 83,133명이며, 이 중 여성은 41,073명으로 나타나 전체 농가인구의 4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제주도의 농가인구는 지난 2010년보다 31,406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여성은 16,48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여성 농가인구 규모는 지난 2010년에 비해 제주도는 -3.7%, 전국 -3.4%로 제주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전국은 대체로 5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제주도는 2014년 49.3%로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8년에는 50.3%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49.4%로 전년보다 감소함

〈표 2-1〉 농가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농가인구			전국 농가인구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2010	114,539	57,555	50.2	3,062,956	1,561,892	51.0
2011	114,062	56,704	49.7	2,962,113	1,506,336	50.9
2012	113,298	56,554	49.9	2,911,540	1,487,855	51.1
2013	111,745	55,340	49.5	2,847,435	1,460,756	51.3
2014	109,510	53,996	49.3	2,751,792	1,412,009	51.3
2015	93,404	46,616	49.9	2,569,387	1,304,735	50.8
2016	88,385	44,322	50.1	2,496,406	1,274,581	51.1
2017	86,463	43,574	50.4	2,422,256	1,237,977	51.1
2018	82,751	41,610	50.3	2,314,982	1,184,548	51.2
2019	83,133	41,073	49.4	2,244,783	1,144,841	51.0
연평균 증감률	-3.5%	-3.7%	-	-3.4%	-3.4%	-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2019년 여성 농가인구 41,073명 중 30대 미만은 23.0%, 30대 4.8%, 40대 11.2%, 50대 18.3%, 60대 18.7%, 70대 17.1%, 80대 이상 6.9%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가 30~40대보다는 50대~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 연령별 여성 농가인구에서 30대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농가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여성 농가인구의 연평균 증감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11.8%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연령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70대와 80대 이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60대까지의 연령구간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감소하고 있는 점은 실질적인 농업활동과 참여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의 부족과 더불어 후계 여성 농업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2-2〉 연령별 여성 농가인구 수 및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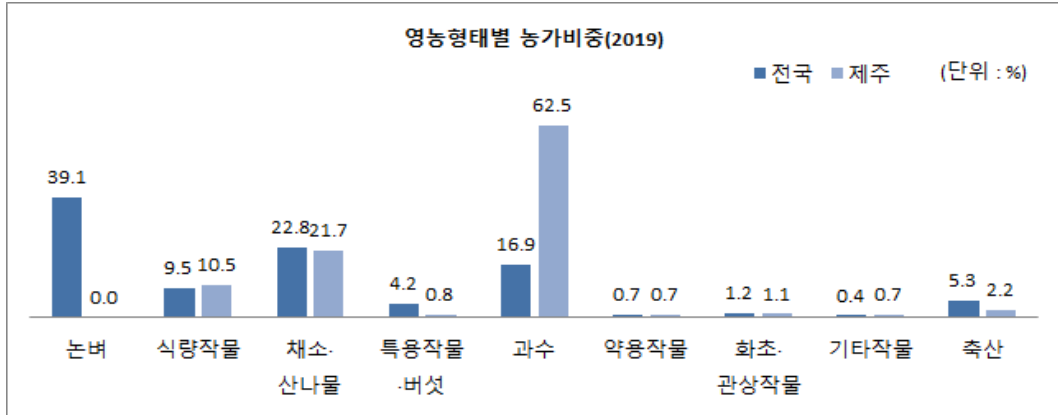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2010	16,761(29.1)	6,055(10.5)	8,221(14.3)	8,738(15.2)	9,130(15.9)	6,698(11.6)	1,952(3.4)	57,555(100.0)
2011	15,997(28.2)	5,645(10.0)	8,323(14.7)	9,310(16.4)	8,394(14.8)	7,080(12.5)	1,957(3.5)	56,706(100.0)
2012	15,764(27.9)	5,298(9.4)	7,552(13.4)	9,796(17.3)	8,669(15.3)	7,323(12.9)	2,152(3.8)	56,554(100.0)
2013	14,509(26.2)	4,464(8.1)	7,352(13.3)	10,732(19.4)	8,444(15.3)	7,423(13.4)	2,415(4.4)	55,339(100.0)
2014	13,581(25.2)	4,149(7.7)	7,252(13.4)	10,047(18.6)	8,651(16.0)	7,580(14.0)	2,737(5.1)	53,997(100.0)
2015	11,624(24.9)	3,294(7.1)	6,733(14.4)	8,397(18.0)	7,810(16.8)	6,527(14.0)	2,231(4.8)	46,616(100.0)
2016	10,111(22.8)	3,115(7.0)	5,732(12.9)	7,509(16.9)	8,551(19.3)	7,171(16.2)	2,131(4.8)	44,320(100.0)
2017	9,842(22.6)	2,844(6.5)	5,414(12.4)	7,492(17.2)	7,928(18.2)	7,512(17.2)	2,541(5.8)	43,573(100.0)
2018	9,220(22.2)	2,185(5.3)	4,999(12.0)	7,219(17.3)	7,638(18.4)	7,233(17.4)	3,118(7.5)	41,612(100.0)
2019	9,459(23.0)	1,964(4.8)	4,609(11.2)	7,497(18.3)	7,668(18.7)	7,043(17.1)	2,833(6.9)	41,073(100.0)
연평균 증감률	-6.2%	-11.8%	-6.2%	-1.7%	-1.9%	0.6%	4.2%	-3.7%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제주도는 감귤재배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과수농사의 비율이 6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채소·산나물 21.7%, 식량작물 10.5%, 축산 2.2%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최근 기계를 이용한 농업기술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귤 수확 및 채소·산나물, 식량작물 등의 재배는 작물 특성상 인력 작업이 필요하며,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기여가 상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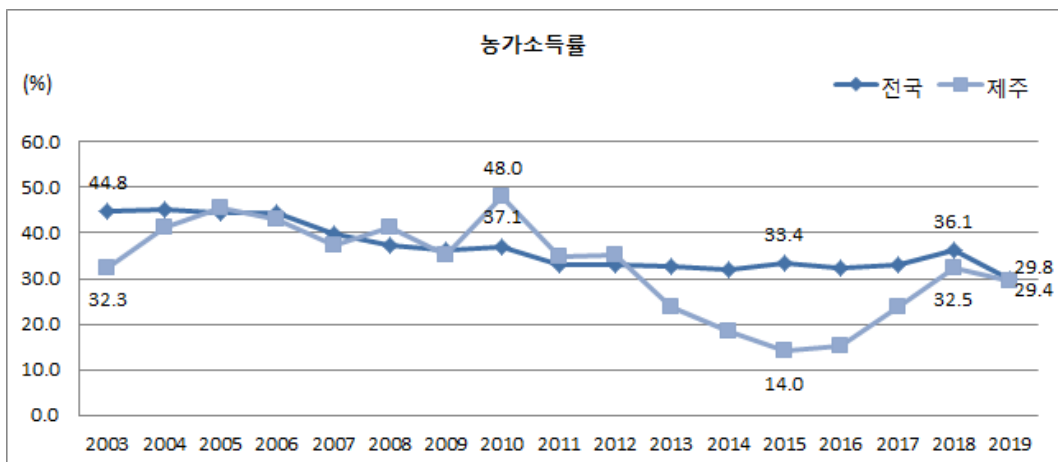
〈그림 2-1〉 영농형태별 농가비중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제주도의 농가소득률은 전국평균에 비해 다소 증감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2010년에는 48.0%로 전국수준보다 10.9%p 더 높았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5년에는 14.0%로 전국평균보다 -19.4%p 더 낮았음
- 2015년 이후 전국평균과의 격차가 좁아져 2019년에는 전국 평균 29.8%, 제주 29.4%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변동폭이 큰 제주 농가소득률과 전국 농가소득률 하락의 영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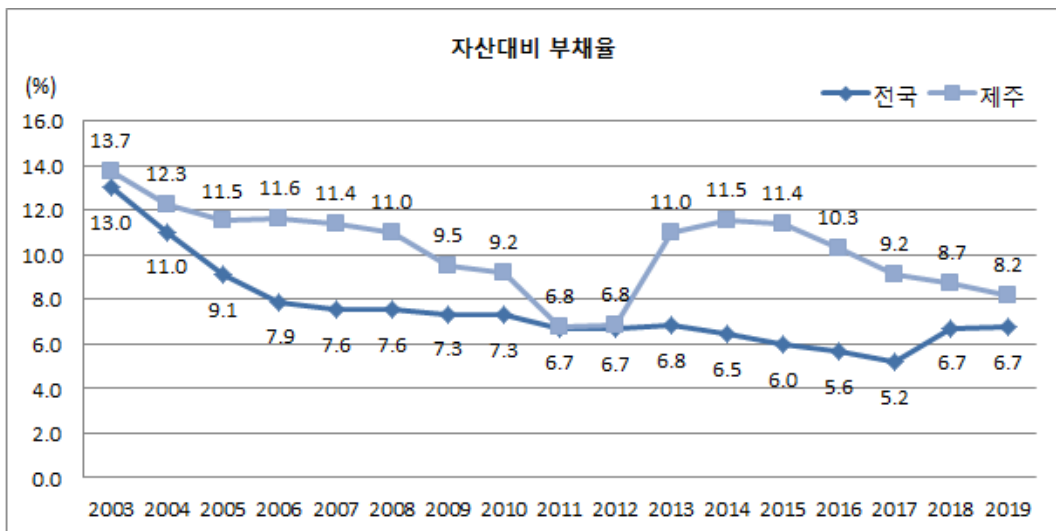
〈그림 2-2〉 농가소득률 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전반적으로 제주도는 전국수준보다 높은 자산대비 부채율을 보이고 있음
 - 2011년과 2012년에는 전국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차가 줄었으나 이후 다시 커져 2015년에는 전국평균보다 5.4%p 더 높게 나타났으나 다시 감소하여 2019년에는 제주 8.2%, 전국평균 6.7%로 1.5%p로 감소함
- 다만 2014년 이후 제주도의 자산대비 부채율이 전국수준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전국평균 자산대비 부채율이 2017년대비 증가하면서 제주도와 전국의 자산대비 부채율 격차가 감소함

〈그림 2-3〉 자산대비 부채율 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3. 여성농업인 정책 도입 및 변화

가. 여성농업인 정의

-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1호)을 말하며, 여성농업인의 자격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5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임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조건

1.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나. 여성농업인 정책 도입 및 변화

1) 중앙정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1차~4차) 변화

-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 －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 3항의 핵심 정책과제 분류에 따라 1) 농어업경영능력의 향상, 2)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3)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4)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등 네 분류로 나누어 <표 2-3>과 같이 5년 단위로 수립됨
 - － 1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측면과 함께 삶의 질 제고의 복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 2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 이에 따른 평가와 적절한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여성농업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 4차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1~3차 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한계가 있음을 성찰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차수별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 3항의 핵심 정책과제 4가지 목 가운데,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의 비전을 담고 있음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과제를 살펴볼 때, 1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에서 4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중점을 둔 과제들로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이라 할 수 있음

〈표 2-3〉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구분	비전	기본전략	한계
1차 기본계획 2001~ 2005년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 여성농업인정책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비전, 목표와 추진체계 간 논리적 체계 강화를 통하여 목표에 적합한 과제 설정 필요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공식화하고, 농업인의 내부 분화에 따른 차별적 정책 필요 · 여성농업인 정책범위 재정립, 생산자로서의 여성농업인 복지 강화 ·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역할 부여, 여성농업인 단체의 참여 확대
2차 기본계획 2006~ 2010년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미흡 ·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문화 복지 지원사업 부족 · 지자체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실적평가 미흡 ·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일부 과제의 목표 대비 성과 미흡
3차 기본계획 2011~ 2015년	창조성, 전문성,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업인 육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 전문 농업인 경영역량 강화 ·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관리의 효율화 필요 · 지역개발사업 시 여성참여가 제한적 ·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일부 협업과제 부진 · 효율적 복지 정보전달 체계 미흡 ·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등 지속적 지원이 요구
4차 기본계획 2016~ 2020년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양성 	

자료 : 농림식품축산부, 『1차, 2차, 3차, 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2)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른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는 <그림 2-4>와 같음

<그림 2-4> 제4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				
전략 과제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양성
중점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 평등 실현 · 여성농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 ·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체계 개선 ·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지역 개발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 지역 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사회 기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보호 및 복지 서비스 강화 · 고령·영세 여성 농업인 지원 강화 · 여성농업인 문화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농촌여성 융화 노력 · 귀농·귀촌 여성 농업인 정착 지원 · 결혼이민여성 농촌 인력 양성 지원

자료 : 농림식품축산부, 『1차, 2차, 3차, 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표 2-4>에 따라 살펴보면,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성인지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 경영 및 창업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를 위한 과제는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여성농업인 지역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사회기여 활성화 지원을 제시하고,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모성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의료 보건서비스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의 문화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농촌여성 주

체 양성을 위한 과제로는 다양한 농촌여성 융화 노력, 귀농 귀촌 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촌 인력 양성 지원을 제시하였음

- 특히, 그동안 여성농업인 정책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내 전담부서가 설치되면서(2019.7.) 향후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에 동력이 마련되었음

〈표 2-4〉 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주요 내용

전략과제	중점추진 과제	내용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다양한 정책개발 및 홍보,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기능 강화,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여성농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자문회의’ 위원 구성에 여성농업인 추가, 농식품부·지자체 정부위원회에 여성 비율 법정기준 40% 이상 유지를 위한 지속적 점검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위원회 내실화, 농협에 여성 조합원 및 임원비율 확대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농식품부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법령 제·개정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 확대를 통해 성 주류화 정책 실현
여성 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체계 개선	여성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 주요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확대, 교육도우미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교육권 보장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공동가공 시설구축, 소규모 창업기술 확산, 청년 여성의 영농정착과 여성농업인의 영농창업 활성화 지원, 농촌지역 여성의 창업 및 경력개발 활성화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성별 욕구를 반영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및 농작업 대행 확대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 교육 홍보 강화
여성 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여성농업인 지역 개발 참여 확대	사무장 및 신규지구 추진위원 교육 등 지역개발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농촌여성 참여비율을 '20년까지 30%로 확대
	여성농업인 지역 역량 강화	‘지역여성 성공사례’ 선정·공유 및 우수 여성농업인 포상 추진, 사회적 농업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업인 우대
	여성농업인 사회 기여 활성화	여성농업인이 쉽게 참여하여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전략과제	중점추진 과제	내용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모성권 보호 및 일 가정 양립지원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 지원 확대,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 보건서비스 강화로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예비사업 추진,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 대상 ‘영농도우미’ 지원 및 취약농가 대상 인력지원(‘행복나눔이’) 지속(’20: 29천 가구)
	여성농업인 문화 접근성 강화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 추진, 행복바우처카드 취급기관 개선으로 여성농업인 접근 편의 도모, 농촌 주민참여 맞춤형 ‘소규모 문화서비스’ 제공
다양한 농촌여성 주제양성	다양한 농촌여성 융화 노력	신규유입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단체의 역할 증진, 고령 여성농업인 소일거리 사업지원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여성농업인 현장 밀착형 상담·교육 등 코디네이터 지원
	귀농·귀촌 여성 농업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 교육 강화, 맞춤형컨설팅 지원확대를 통해 귀농·귀촌 여성의 농업·농촌 정착 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촌 인력 양성 지원	다문화여성의 농촌 적응을 위해 1:1 후견인제 확대,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족 교육으로 농촌정착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9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1차~3차) 변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2006년부터 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3차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 제1차 기본계획(’06~’10)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복지증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4개 부문 20개 과제를 추진했음. 그 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인정, 여성농업인의 기술 및 농업경영능력 강화, 영농도우미 등 인력 확충,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이 있음
- 제2차 기본계획(’11~’15)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향상, 전문 농어업경영인력 육성,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양성,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여성농어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5개 부문 17개 과제를 추진했음. 그 내용으로는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지업적 지위와 권리 인정, 여성농어업인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 여성농어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여성농어업인 모성보호 및 건강·의료지원 확대,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교육 강화 등이 있음

- <표 2-5>에서와 같이 1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 이에 따른 평가 적절한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여성농업인에 초점을 두고 있음. 3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계획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2차 기본계획의 비전이 중앙정부의 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는 달리 “희망이 있는 농어촌, 미래를 여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정책 추진”으로 수립함으로서 지역의 특수성을 적합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임

〈표 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구분	비전	기본전략	한계
1차 기본계획 2006~ 2010년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을 경영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농외소득 창출, 지역개발 리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미흡 ·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미흡
2차 기본계획 2011~ 2015년	희망이 있는 농어촌, 미래를 여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 전문 농업인 경영역량 강화 ·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확산이나 여성참여 증진 미흡 · 농업정책 성주류화 미흡 · 통합적 여성인력 육성 및 능력개발 정책 제한 · 여성귀농인에 대한 정책 대안 미흡 · 문화관련 정책 미흡
3차 기본계획 2016~ 2020년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공동협약 추진 미흡 ·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교육 확대 미흡 · 출산율 감소로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실적 감소 ·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교육 미흡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1차, 2차, 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주 : 3차 기본계획에 대한 한계는 사업추진 실적 등을 고려한 것임

-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보완점은 다음의 <표 2-6>과 같음.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와 창업기회 발굴 지원,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우미 지원 확대 및 문화여건 개선,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농어촌 정착 지원, 특히,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간 정책 연계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계기가 마련되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관련 조례 및 규칙이 제정(조례 제359호 : '08. 4. 2, 규칙 제80호 : '07. 8. 8)되었는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는 광역단위에서는 전라남도도와 전라북도도에 이어 세 번째 제정이지만, 주민발의로 제정된 곳은 제주도가 최초였고, 내용에는 성별통계 생산 및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 여성정책 자문회의 설치 등이 포함되었음
 - 2009년부터는 여성농업인도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에 배우자도 등록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
- 이와 같은 성과에도, 여성농업인을 경영능력 함양뿐만 아니라 농외소득 창출, 지역개발 리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미흡했으며,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문화·복지 지원 사업이 부족했고,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실적평가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음
-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양성으로 지역리더 및 사무장 육성, 다문화 가정 등 지원 추진,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 여성농업인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조례가 두 차례 개정(2012. 7. 18. 전부개정, 2015. 10. 6. 일부개정)됨
-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관리의 효율화가 미흡했으며,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지원 사업이 부족했고, 지역개발사업 참여시 여전히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표 2-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성과와 보완점

구분	성과평가	보완점
1차 기본계획 2006~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부터 여성농업인도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 - '농어업 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에 농어업에 종사하는 배우자도 등록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09년) ·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와 창업기회 발굴 지원 ·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우미 지원 확대 및 문화여건 개선 · 농어촌의 국제결혼 증가 추세에 대응,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농어촌 정착 지원 ·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정책 연계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조례제359호 : '08. 4. 2, 규칙제80호 : '07. 8. 8) - 조례 및 규칙에서는 성별통계 생산 및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 여성정책 자문회의 설치 등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연령·영농형태·관심 분야 등 계층별로 다양한 교육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 개발 필요 · 여성농업인을 농어촌 복지서비스 주체로 활용하는 등 생산적 복지 방안 도입 필요 · 젊은 층의 여성농업인과 결혼 이민여성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 확대 필요 ·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주기적인 성과 평가 및 환류 필요 · 기본계획 수립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 선정과 선정된 과제에 대한 내실 있는 세부 추진방안 마련 필요
2차 기본계획 2011~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경영주 이외 별도의 농업종사자로 인정, 국민연금에 별도로 가입하게 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권리 향상 - 경영컨설팅 사업 참여 및 후계농 선발 등에서 여성농업인 우선 지원 -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2012. 7. 18. 전부개정, 2015. 10. 6. 일부개정)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리더십 증진 교육 실시 - 소규모 창업지원 및 6차산업화 지원 등 -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과 노동력 해소 등을 위한 농작업 대행 및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양성으로 지역리더 및 사무장 육성, 다문화 가정 등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마을리더 및 사무장 육성을 위한 교육 추진 - 결혼이민여성 1:1 멘토제, 영농교육강화 등을 통한 후계인력 양성 추진 ·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 및 삶의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전후 및 취약계층 여성 농가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 부부농업인도 맞벌이 부부로 인정받아 자녀가 보육시설에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연령·영농형태·관심 분야 등 계층별로 다양한 교육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교육 요구가 높은 6차 산업관련 교육과정 확대 및 여성전문인력 풀(Pool) 관리 필요 · 여성농업인을 농어촌 복지서비스 주체로 활용하는 등 생산적 복지 방안 도입 필요 · 젊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 확대 필요 ·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는 사무장 등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으며 마을 개발 계획 수립 등에 실질적 참여는 저조 · 재원 및 지방 여건 등 중장기적인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의욕적인 목표 설정 등으로 일부 과정에는 목표 대비 추진 성과 미흡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1차, 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4)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은 중앙정부의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수립되었고, 5개 분야 41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계획되었음

-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강화 및 성과중심의 과제 운영, 여성농업인 고령화, 농가 양극화 심화 반영, 다양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음
-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서 과제의 내실화와 성과중심의 주요과제 선정 및 추진·관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농가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산업 측면과 복지 측면에서의 균형 있는 지원과 고령 여성농업인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농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역리더 역할 및 지역개발 역량 강화 지원,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그림 2-5〉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방향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 여성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기반마련에 의의	▶	• 가시적인 여성농업인 권익 증진 성과창출 등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 관계부처, 지자체 현황 고려 부족	▶	• 양성평등 정책을 반영한 과제선정 •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 반영
• 성과관리가 어려운 추진체계	▶	• On-Off line 연계 등 추진·관리체계 효율화로 성과관리 강화
• 산업분야 및 지역개발 역량 개념 도입	▶	• 구체적인 지원체계 정립 • 관련 지침 개정 등 성과 가시화
• 연령별, 소득별, 구조적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	▶	•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다양해진 농촌사회 여건 반영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 위의 제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7>과 같음
- 2020년 시행계획에서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양성을 목표로 5대분야, 34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전년에 추진했던 부부공동경영협약제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시범사업, 다문화여성의 농촌 적응을 위해 1:1 후견인제 등이 추진 실적 미흡, 지원 대상사업 포기, 해당 사업신청이 없음 등의 이유로 시행계획에서 제외되었음

- 2020년에는 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내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과 복지 향상 등을 전담할 여성농업인 지원 전담팀이 신설되면서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에 동력이 마련되었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표 2-7〉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주요 내용

전략과제	중점추진 과제	내용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기능 강화
	여성농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체계 개선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여성농업인 농업신문 구독 지원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확충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여성농업인 농작업대행 사업 추진,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여성농업인 지역 개발 참여 확대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농촌 현장포럼 추진
	여성농업인 지역 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등 역량강화 시책 지원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모성권 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농촌지역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경로당을 이용한 고령 여성농업인 보호,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고령농업인 농부병 진료비 지원 체계구축
	여성농업인 문화 접근성 강화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문화활동, 농촌축제로 공동체 활성화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양성	다양한 농촌여성 융화 노력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 사업
	귀농·귀촌 여성 농업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귀농귀촌 및 신규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전문교육, 귀농귀촌 정착 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촌 인력 양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지원,

4. 소결 및 시사점

- 선행연구 검토결과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과 실태에 관한 연구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었음. 주요 주제로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여성농업인 역할유형, 여성농업인 농업 및 농업 외 활동 등임
- 여성농업인은 공통적으로 농사일이 어렵고, 농사와 가사를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일반적인 애로사항과 별개로, 여성농업인은 연령집단에 따라 특징적인 정책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연령대 별로 필요한 정책도 달라져야함을 시사하고 있음
- 2019년 제주도의 농가인구는 총 83,133명이며, 이 중 여성은 41,073명으로 나타나 전체 농가인구의 49.4%를 차지하고 있음.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전국은 대체로 51%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2019년에 49.4%로 전년보다 감소함
- 2019년 여성 농가인구 41,073명 중 30대 미만은 23.0%, 30대 4.8%, 40대 11.2%, 50대 18.3%, 60대 18.7%, 70대 17.1%, 80대 이상 6.9%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가 30~40대보다는 50대~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여성 농가인구의 연평균 증감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11.8%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연령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70대와 80대 이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는 감귤재배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과수농사의 비율이 6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채소·산나물 21.7%, 식량작물 10.5%, 축산 2.2%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제주도의 농가소득률은 29.4%로 전국 평균 29.8%와 유사한 수준임. 하지만, 제주도는 전국수준보다 높은 자산대비 부채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제주지역의 농업경제가 미약함을 짐작케 하고 향후 지역경제 차원의 대응 방안이 요구됨
- 여성농업인이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가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여성 중 지난 1년 동안 최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논·밭 등 경지를 10a(300평) 이상 경영·경작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가의 구성원을 말함
- 여성농업인 정책 도입 및 변화에서는 2001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2006년부터 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 3차 기본계획의 기본전략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양성 등 5개임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3.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수요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조사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여성농업인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가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여성 중 지난 1년 동안(2019년 6월 1일~2020년 5월 31일) 최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논·밭 등 경지를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 경영·경작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한 농가에 2명 이상 여성이 농사를 짓는 경우, 더 많이 농사를 짓는 여성이 대상자임

○ 표본수

- 목표 표본수 : 400표본
- 최종 유효표본수 : 408표본

○ 조사지역 :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대면 면접 조사

○ 조사기간 : 2020년 7월 7일 ~ 7월 28일(22일간)

○ 조사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 표본추출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연령과 지역을 고려한 비례 할당표집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pm 4.9\%$

○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임. 표집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성 농가인구 수를 고려하여 표본 추출을 시도했음. 따라서 추출된 여성 농가에 본 연구에서 정의한 여성농업인이 없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동일 가구에서 여성농업인이 2명 이상일 경우, 농업 참여율이 높은 여성이 대상자였기에 청년과 노년 여성농업인이 과소표집 되었음. 따라서 본 조사결과는 모든 농가를 표집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나 ‘농림어업조사’ 등 공식 통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연령과 지역을 할당하여 표집을 시도했지만 30대 이하는 2019년 여성 농가인구의 0.4%, 40대는 2.4%, 50대는 2.2%, 60대 이상은 0.5%를 대표하고 있어 표본의 한계가 존재함

나. 조사내용

〈표 3-1〉 조사내용

구분	세부 항목	비고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역 ▫ 귀농여부 ▫ 지난 1년 중 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 ▫ 농업에 종사한 기간 ▫ 나이, 혼인상태, 최종학력, 가구형태 ▫ 자녀유무 및 자녀 수 ▫ 자녀 생활비 보조 ▫ 자녀 노동력 보조 ▫ 농업후계 여부 ▫ 농업이외 한 일의 종류 ▫ 농업이외 일의 월 평균 소득 	
농업규모 및 소득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량이 가장 많은 품목 ▫ 농사규모 ▫ 농지 임차 유무 및 농지 임차 이유 ▫ 지난 1년간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 ▫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게 지출액 ▫ 본인 명의로 된 자산 ▫ 농사일 전체 중 본인 담당 비율 ▫ 지난 1년간 전체 소득 중 본인 기여율 ▫ 가사노동의 본인 분담율 ▫ 농업소득 관리여부 	
경제·사회 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 ▫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 ▫ 농사일 분야별 담당자 ▫ 농업생산이외 소득활동 여부, 향후 활동의향, 소득활동 희망 분야 ▫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 농업과 사회활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 ▫ 현재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농민단체 및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유 	
농업관련 교육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관련 교육경험 유무, 도움이 되었던 교육,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 비교적 편하게 각종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건강 및 복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 일상생활 활동능력 ▫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 의료기관 이용 시 힘든 점 ▫ 문화행사 관람 여부 및 이용 장소 ▫ 문화시설 이용 여부 및 이용 장소 ▫ 문화행사 관람 및 문화시설 이용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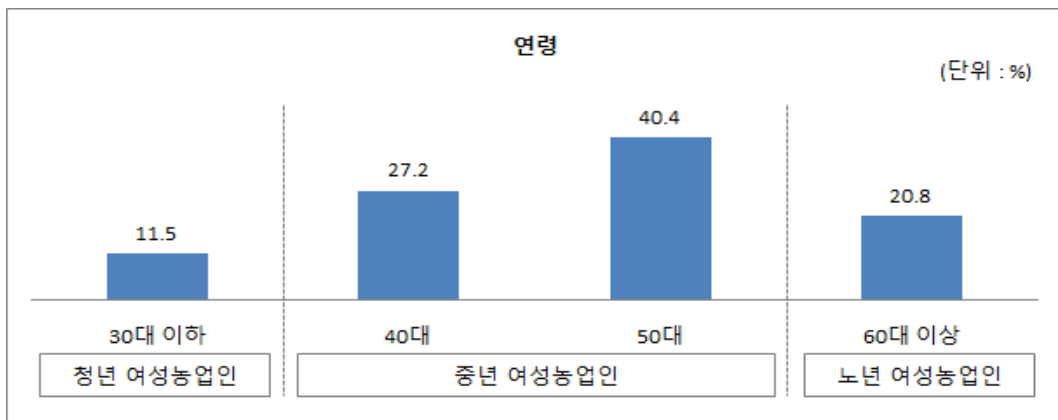
구분	세부 항목	비고
정책수요 및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농업 지속 여부 및 이유 ▫ 향후 농촌 거주 여부 및 이유 ▫ 직업인으로서 농업의 어려운 점 ▫ 농촌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 ▫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으로써 어려운 점 ▫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 고령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정책 ▫ 후계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제도 ▫ 젊은 여성 농촌유입 유도 선결과제 	
여성농업인 정책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및 참여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정책 항목별 필요정도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는 총 408명이며, 연령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연령별로는 중년 여성농업인에 해당하는 40~50대가 다수임. 그 중 50대가 165명(40.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111명(27.2%), 노년 여성농업인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이 85명(20.8%), 청년 여성농업인에 해당하는 30대 이하가 47명(11.5%) 순임

〈그림 3-1〉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 그 밖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표 3-1 참조)

- 거주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 95명(23.3%), 제주시 읍면지역 96명(23.5%), 서귀포시 95명(23.3%), 서귀포시 읍면지역 122명(29.9%)으로 서귀포시 지역이 조금 더 많음

- 조사대상자 중 113명(27.7%)은 귀농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종사 기간별로는 10-20년 미만인 100명(24.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30년 미만 91명(22.3%), 5-10년 미만 68명(16.7%), 1-5년 미만 51명(12.5%), 40년 이상 47명(11.5%), 30-40년 미만 42명(10.3%), 1년 미만 9명(2.2%) 순으로 10년이상 30년 미만 종사자가 46.8%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10년 미만 31.4%임
-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165명(40.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대(3년제 이하) 졸업 92명(22.5%), 중학교 졸업 이하 82명(20.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69명(16.9%) 순임
- 가구형태별로는 부부+자녀 형태가 219명(53.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부가구(2인) 95명(23.3%), 조부모+부부+자녀(3대) 41명(10.0%), 한부모+자녀 24명(5.9%), 독신가구 20명(4.9%), 조부모+손자녀(2대) 4명(1.0%), 조부모+부부(2대) 3명(0.7%), 기타(공동체) 2명(0.5%) 순으로 1세대 가구(부부, 부부+자녀)가 77.0%로 주를 이룸
- 배우자와 자녀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350명(85.8%), 자녀가 있는 경우 371명(90.9%)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 자녀의 수는 2명이 176명(43.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명 132명(32.4%), 자녀없음 37명(9.1%), 4명 33명(8.1%), 1명 19명(4.7%), 5명 11명(2.7%) 순임
- 자녀로부터의 생활비 보조는 받지 않는 경우가 357명(96.2%)으로 더 많고, 받는 경우는 14명(3.8%)임
- 자녀의 노동력 보조 여부는 보조없음 223명(60.1%), 10일 이하 63명(17.1%), 11-30일 41명(11.1%), 61일 이상 26명(7.0%), 31-60일 18명(4.9%) 순으로 절반 이상이 자녀의 노동력 보조를 받고 있지 않으며, 보조를 받는 경우도 30일 미만이 주를 이룸
- 농업 후계 여부는 없다 242명(65.2%), 있다 129명(34.8%)으로 없는 경우가 더 많음
- 지난 1년 간 농업 이외의 일 경험은 자영업 고용직원(유급)으로 일한 경우가 74명(31.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업 이외 일용직(아르바이트) 69명(29.1%), 자영업 고용주(유급) 45명(18.9%), 농업관련 일용직(품앗이) 36명(15.1%), 기타(해녀, 요양보호 등) 14명(5.9%) 순임
- 농업 이외 일의 월평균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68명(28.6%)으로 가장 많고, 50만원 미만 52명(12.8%), 100-150만원 46명(19.3%), 150-200만원 39명(16.4%), 50-100만원 33명(13.9%) 순임

〈표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명 (%)	구 분		명 (%)
연령	30대 이하	47(11.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50(85.8)
	40대	111(27.2)		배우자 없음	58(14.2)
	50대	165(40.4)		계	408(100.0)
	60대 이상	85(20.8)	자녀 유무	있다	371(90.9)
	계	408(100.0)		없다	37(9.1)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95(23.3)		계	408(100.0)
	제주시 읍면지역	96(23.5)	자녀 수	자녀없음	37(9.1)
	서귀포시 동지역	95(23.3)		1명	19(4.7)
	서귀포시 읍면지역	122(29.9)		2명	176(43.1)
	계	408(100.0)		3명	132(32.4)
귀농 여부	예	113(27.7)		4명	33(8.1)
	아니오	295(72.3)		5명	11(2.7)
	계	408(100.0)		계	408(100.0)
농업 종사 기간	1년 미만	9(2.2)	자녀로 부터 생활비 보조	있다	14(3.8)
	1-5년 미만	51(12.5)		없다	357(96.2)
	5-10년미만	68(16.7)		계	371(100.0)
	10-20년 미만	100(24.5)	자녀의 노동력 보조	보조 없음	223(60.1)
	20-30년 미만	91(22.3)		10일 이하	63(17.0)
	30-40년 미만	42(10.3)		11-30일	41(11.1)
	40년 이상	47(11.5)		31-60일	18(4.9)
	계	408(100.0)		61일 이상	26(7.0)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82(20.1)		계	371(100.0)
	고등학교 졸업	165(40.4)	농업 후계 여부	있다	129(34.8)
	전문대(3년제 이하) 졸업	92(22.5)		없다	242(65.2)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69(16.9)		계	371(100.0)
	계	408(100.0)	(지난 1년간) 농업 외 일 경험	자영업 고용주(유급)	45(18.9)
가구 형태	독신가구	20(4.9)		자영업 고용직원(유급)	74(31.1)
	부부가구(2인)	95(23.3)		농업 이외 일용직(아르바이트)	69(29.0)
	부부+자녀	219(53.7)		농업관련 일용직(품앗이)	36(15.1)
	한부모+자녀	24(5.9)		기타(해녀, 요양보호 등)	14(5.9)
	조부모+부부+자녀(3대)	41(10.0)		계	238(100.0)
	조부모+부부(2대)	3(0.7)	농업 외 일의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52(21.8)
	조부모+손자녀(2대)	4(1.0)		50-100만원	33(13.9)
	기타(공동체)	2(0.5)		100-150만원	46(19.3)
	계	408(100.0)		150-200만원	39(16.4)
				200만원 이상	68(28.6)
				계	23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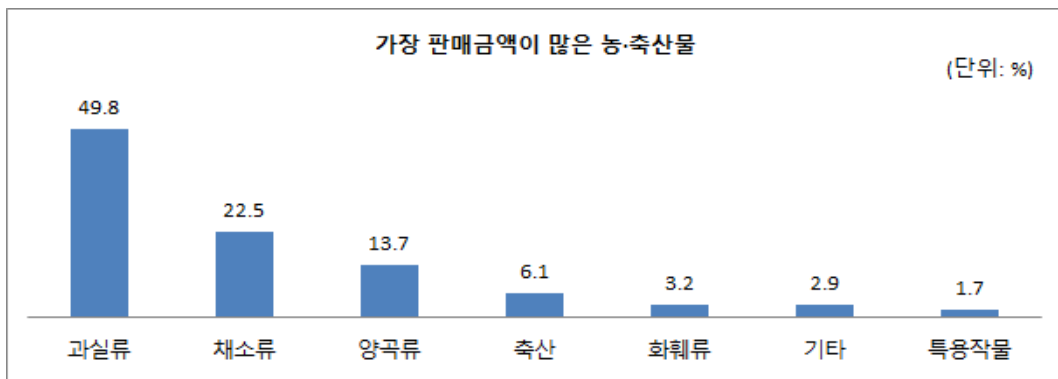
2.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가. 농업규모 및 소득수준

1)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농·축산물

- 지난 1년 간 생산한 농·축산물 중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생산물은 감귤, 감, 키위, 딸기, 블루베리 등의 과실류였으며, 다음으로 채소류로 나타남
 - － 판매금액 가장 많은 농·축산물은 과실류 49.8%, 채소류 22.5%, 양곡류 13.7%, 축산 6.1%, 화훼류 3.2%, 기타 2.9%, 특용작물 1.7%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실류와 채소류는 기계화율이 낮고 여성노동력 의존율이 높은 농작물(엄진영 외, 2018)이라는 점에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음

〈그림 3-2〉 가장 판매금액이 많은 농·축산물



- 연령별로도 모두 과일류의 판매금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채소류인 것으로 나타남
 - － 다만 60대 미만에서는 과일류, 채소류에 이어 양곡류의 판매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60대 이상에서는 과일류, 채소류에 이어 축산물(한우, 양돈, 낙농, 양계 등)의 판매금액이 높게 나타남

〈표 3-3〉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농·축산물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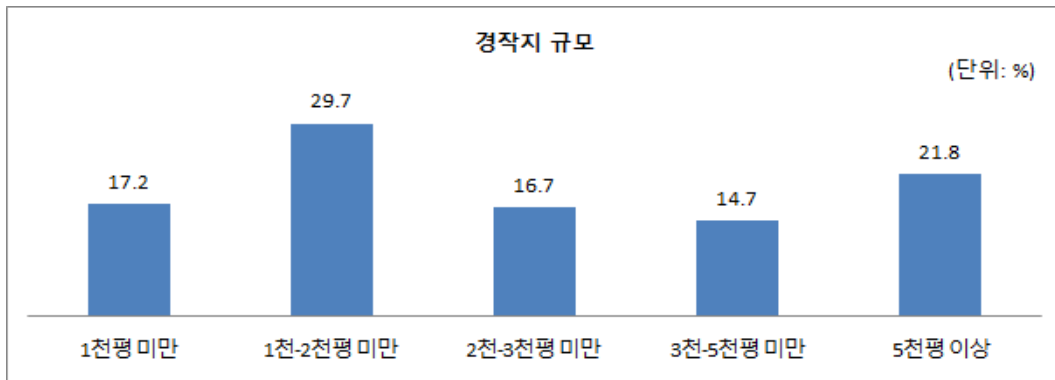
구분	지난 1년간 생산한 농·축산물 중 판매금액(판매한 총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χ^2
	양곡류 (미곡, 잡곡, 두류, 서류(감자, 고구마) 등)	과실류 (감귤, 감, 키위, 딸기, 블루베리 등)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버섯, 더덕, 인삼 등)	축산 (한우, 양돈, 낙농, 양계 등)	기타	계	
30대 이하	11(23.4)	19(40.4)	15(31.9)	0(0.0)	0(0.0)	1(2.1)	1(2.1)	47(100.0)	31.702*
40대	20(18.0)	61(55.0)	21(18.9)	4(3.6)	0(0.0)	3(2.7)	2(1.8)	111(100.0)	
50대	18(10.9)	83(50.3)	39(23.6)	6(3.6)	4(2.4)	9(5.5)	6(3.6)	165(100.0)	
60대 이상	7(8.2)	40(47.1)	17(20.0)	3(3.5)	3(3.5)	12(14.1)	3(3.5)	85(100.0)	
계	56(13.7)	203(49.8)	92(22.5)	13(3.2)	7(1.7)	25(6.1)	12(2.9)	408(100.0)	

* p<.05, ** p<.01, *** p<.001

2) 경작지 규모

- 현재 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규모는 1천-2천평 미만인 29.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천평 이상 21.8%, 1천평 미만 17.2%, 2천-3천평 미만 16.7%, 3천-5천평 미만 14.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 경작지 규모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40대, 60대는 1천-2천평 미만 규모가 가장 많았고, 50대는 5천평 이상을 경작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40대 이하에서는 1천-2천평 > 1천평 미만 > 2천-3천평 미만 순으로 주를 이루

는데 비해 50대는 5천평 이상 > 3천-5천평 미만 > 1천-2천평 미만 순, 60대 이상은 1천-2천평 미만>2천-3천평 미만 > 5천평 이상 순으로 주를 이룸

- 3천평 이상 규모에서는 6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비율로 높게 나타나 50대까지는 농사 경험의 축적과 함께 경작지 규모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4〉 경작지 규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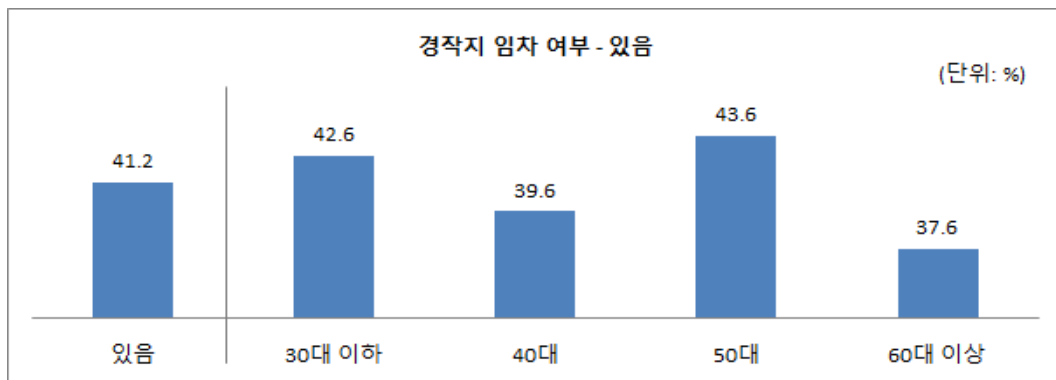
구분	현재 귀택에서 경작하는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χ^2
	1천평 미만	1천-2천평 미만	2천-3천평 미만	3천-5천평 미만	5천평 이상	계	
30대 이하	11(23.4)	18(38.3)	9(19.1)	3(6.4)	6(12.8)	47(100.0)	25.418*
40대	24(21.6)	37(33.3)	18(16.2)	14(12.6)	18(16.2)	111(100.0)	
50대	19(11.5)	41(24.8)	23(13.9)	34(20.6)	48(29.1)	165(100.0)	
60대 이상	16(18.8)	25(29.4)	18(21.2)	9(10.6)	17(20.0)	85(100.0)	
계	70(17.2)	121(29.7)	68(16.7)	60(14.7)	89(21.8)	408(100.0)	

* p<.05, ** p<.01, *** p<.001

3) 경작지 임차

- 임차한 경작지가 있는 경우는 41.2%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 43.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이하 42.6%, 40대 39.6%, 60대 이상 37.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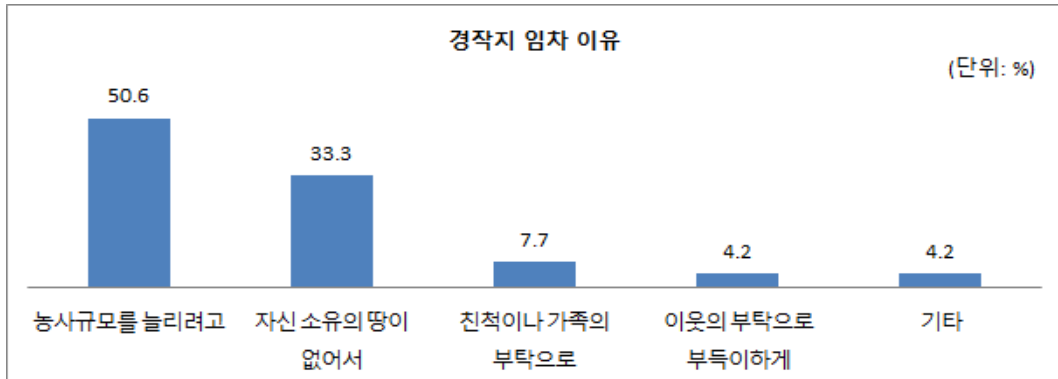
〈그림 3-4〉 경작지 임차 여부



- 경작지를 임차한 이유는 농사규모를 늘리기 위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음
 - 경작지 임차 이유는 농사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가 50.6%로 가장 많고, 다음으

로 자신의 소유 땅이 없어서 33.3%, 친척이나 가족의 부탁으로 7.7%, 이웃의 부탁으로 부득이하게 4.2%, 기타 4.2% 순으로 나타나 농사규모를 늘리기 위한 임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3-5〉 경작지 임차 이유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자신 소유의 땅이 없어 임차한 경우가 가장 많고, 40대 이상에서는 농사규모를 늘리기 위해 임차한 경우가 가장 많음
 - 30대 이하에서는 자신 소유의 땅이 없어서 50.0%, 농사규모를 늘리려고 40.0% 순인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농사규모를 늘리려고 임차한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신 소유의 땅이 없어서가 많음

〈표 3-5〉 경작지 임차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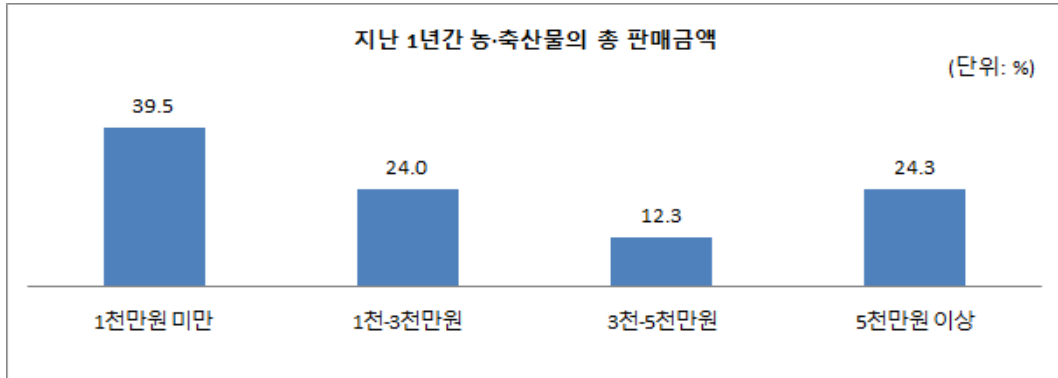
구분	땅을 빌렸다면 땅을 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χ^2
	농사규모를 늘리려고	자신 소유의 땅이 없어서	이웃의 부탁으로 부득이하게	친척이나 가족의 부탁으로	기타	계	
30대 이하	8(40.0)	10(50.0)	0(0.0)	1(5.0)	1(5.0)	20(100.0)	13.212
40대	21(47.7)	17(38.6)	3(6.8)	3(6.8)	0(0.0)	44(100.0)	
50대	41(56.9)	17(23.6)	3(4.2)	8(11.1)	3(4.2)	72(100.0)	
60대 이상	15(46.9)	12(37.5)	1(3.1)	1(3.1)	3(9.4)	32(100.0)	
계	85(50.6)	56(33.3)	7(4.2)	13(7.7)	7(4.2)	168(100.0)	

* p<.05, ** p<.01, *** p<.001

4) 농·축산물 판매 금액

- 지난 1년 간 농·축산물의 총 판매금액은 1천만원 미만이 39.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천만원 이상 24.3%, 1천-3천만원 24.0%, 3천-5천만원 12.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 지난 1년간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1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천-3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지만 앞서 경작지 규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컸던 50대는 1천만원 미만 다음으로 5천만원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앞서 5천평 이상 규모의 경작을 하는 비율도 50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농·축산물 판매금액 역시 50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 일정금액 이상과 경작지 규모와의 상관성이 높음

〈표 3-6〉 지난 1년간 농·축산물 총 판매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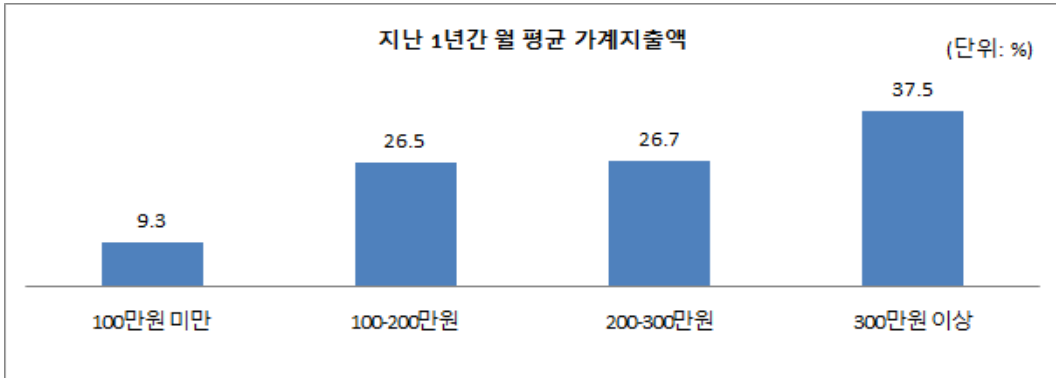
구분	귀댁의 지난 1년간 농·축산물의 총 판매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χ^2
	1천만원 미만	1천만-3천만원	3천만-5천만원	5천만원 이상	계	
30대 이하	25(53.2)	9(19.1)	5(10.6)	8(17.0)	47(100.0)	7.655
40대	46(41.4)	28(25.2)	13(11.7)	24(21.6)	111(100.0)	
50대	61(37.0)	36(21.8)	22(13.3)	46(27.9)	165(100.0)	
60대 이상	29(34.1)	25(29.4)	10(11.8)	21(24.7)	85(100.0)	
계	161(39.5)	98(24.0)	50(12.3)	99(24.3)	408(100.0)	

* p<.05, ** p<.01, *** p<.001

5) 월평균 가계지출액

- 지난 1년 간 월평균 가계지출액은 300만원 이상이 37.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0-300만원 26.7%, 100-200만원 26.5%, 100만원 미만 9.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7〉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계지출액



- 연령별로 30대 이하는 200-300백만원이 34.0%로 가장 많고, 40대와 50대는 300만원 이상이 각각 45.9%, 42.4%, 60대 이상은 100-200만원이 4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계지출액

단위 : 명(%)

구분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계지출액(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전기 및 수도비, 교통통신비, 보험, 현금 등)은 얼마나 됩니까?					χ^2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계	
30대 이하	8(17.0)	9(19.1)	16(34.0)	14(29.8)	47(100.0)	37.559***
40대	2(1.8)	26(23.4)	32(28.8)	51(45.9)	111(100.0)	
50대	15(9.1)	36(21.8)	44(26.7)	70(42.4)	165(100.0)	
60대 이상	13(15.3)	37(43.5)	17(20.0)	18(21.2)	85(100.0)	
계	38(9.3)	108(26.5)	109(26.7)	153(37.5)	408(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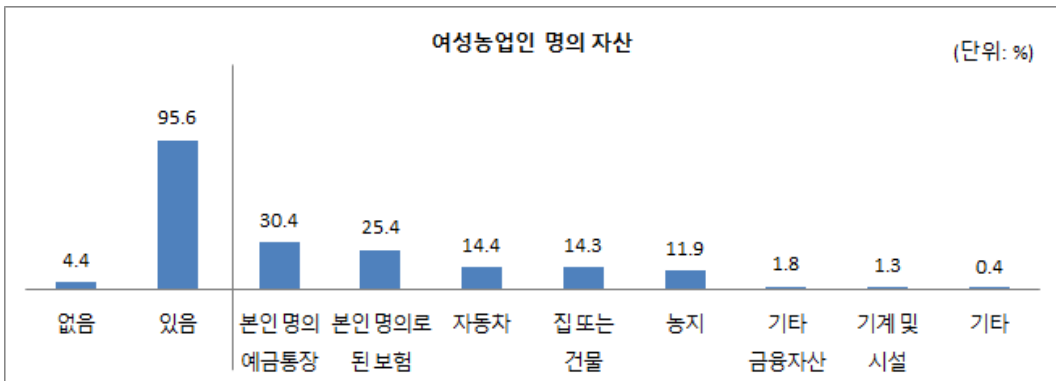
6) 여성농업인 명의 자산

- 여성농업인 명의 자산이 있는 경우가 95.6%이지만 이 중 부동산(집 또는 건물, 농지)을

보유한 경우는 26.2%에 그쳤으며, 대부분은 동산임

- 보유 자산 유형은 본인 명의 예금통장이 3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본인 명의로 된 보험 25.4%, 자동차 14.4%, 집 또는 건물 14.3%, 농지 11.9%, 기타 금융자산 1.8%, 기계 및 시설 1.3%, 기타 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8〉 여성농업인 명의 자산(다중응답)



- 여성농업인 명의 자산보유 비율은 30대 이하가 가장 낮고, 예금과 보험, 자동차와 같은 동산은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 비율이 낮은 반면 집 또는 건물, 농지와 같은 부동산은 보유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함
 - 보유자산의 유형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두 본인 명의 예금통장과 보험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이하의 자동차, 50대 이상은 집 또는 건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0대 이하의 농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농지를 비롯한 집 또는 건물과 같은 부동산 보유율은 낮지만 본인 명의 예금통장, 본인 명의로 된 보험, 자동차 보유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거나 뒤처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집 또는 건물, 농지) 보유비율은 60대 이상 30.3%, 50대 27.9%, 40대 25.6%, 30대 이하 11.4%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 비율이 높아짐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보유 비율은 증가하지만 예금통장, 보험, 자동차 보유 비율은 감소함

〈표 3-8〉 자신명의 자산(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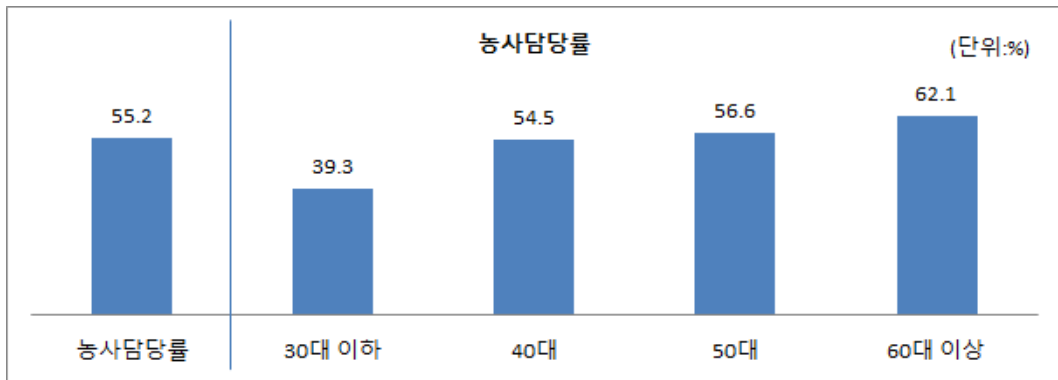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자신명의 자산(다중응답)											
	집 또는 건물	기계 및 시설 (축사 포함)	자동차	본인 명의로 된 보험	본인 명의 예금 통장	기타 금융자산 (계좌입출, 채권 등)	농지 (논밭과 수원, 임야)	기타	계	있음	없음	계
30대 이하	7(8.9)	0(0.0)	15(19.0)	21(26.6)	31(39.2)	1(1.3)	2(2.5)	2(2.5)	79(100.0)	79(89.8)	9(10.2)	88(100.0)
40대	41(14.6)	3(1.1)	50(17.8)	75(26.7)	76(27.0)	4(1.4)	31(11.0)	1(0.4)	281(100.0)	281(97.6)	7(2.4)	288(100.0)
50대	55(14.6)	7(1.9)	53(14.1)	96(25.5)	107(28.4)	8(2.1)	50(13.3)	1(0.3)	377(100.0)	377(95.4)	18(4.6)	395(100.0)
60대 이상	29(15.7)	2(1.1)	15(8.1)	42(22.7)	66(35.7)	4(2.2)	27(14.6)	0(0.0)	185(100.0)	185(95.9)	8(4.1)	193(100.0)
계	132(14.3)	12(1.3)	133(14.4)	234(25.4)	280(30.4)	17(1.8)	110(11.9)	4(0.4)	922(100.0)	922(95.6)	42(4.4)	964(100.0)

7) 본인의 농사담당 비율

- 여성농업인 본인의 농사담당 비율은 평균 55.2%이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62.1%, 50대 56.6%, 40대 54.5%, 30대 이하 39.3%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담당 비율도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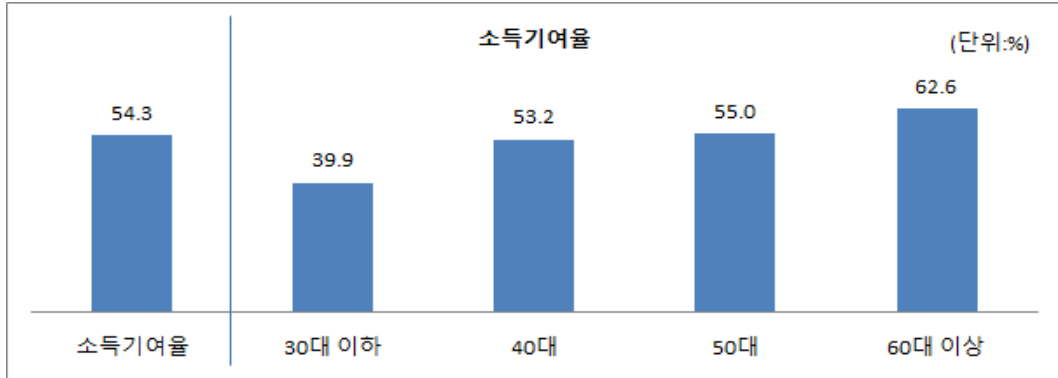
〈그림 3-9〉 본인의 농사담당 비율



8) 본인의 소득기여율

- 지난 1년 간 전체 소득에 대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기여율은 평균 54.3%이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62.6%, 50대 55.0%, 40대 53.2%, 30대 이하 39.9% 순으로 농사담당 비율과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여율도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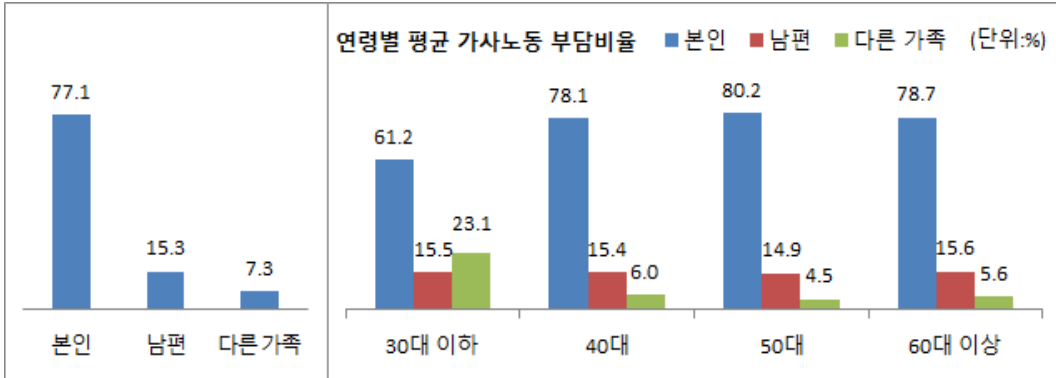
〈그림 3-10〉 지난 1년간 소득의 본인 기여율



9) 가족구성원별 가사노동 분담비율

- 평균 가사노동 분담비율은 여성농업인 본인이 77.1%로 가장 많고, 남편이 15.3%, 다른 가족이 7.3%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농업인 본인의 분담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농업인 본인의 가사노동 분담비율은 50대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분담비율도 높아졌으며, 60대 이상도 40대와 비슷한 수준을 분담하고 있음
 - 3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본인 분담비율이 낮고 다른 가족의 분담비율이 높게 나타남. 모든 연령대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비율이 15% 전후로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30대 이하에서 가사노동을 부담하고 있는 다른 가족은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음
- 앞서 40대 이상 여성농업인들은 농사담당 비율과 소득기여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여성농업인들이 농업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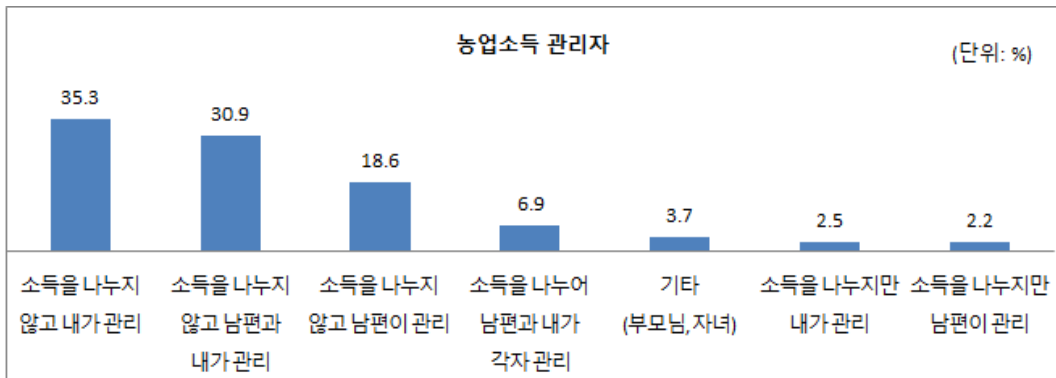
〈그림 3-11〉 가사노동 분담비율



10) 농업소득 관리자

- 농업소득의 관리는 소득을 나누지 않는 통합 관리형태가 84.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합관리 주체는 여성농업인 본인 또는 남편과 공동관리하는 경우가 주를 이룸
- 소득을 나누지 않는 통합 관리형태 84.8%, 소득을 나누는 분할 관리형태 11.5%임
 - 농업소득의 관리는 소득을 나누지 않고 여성농업인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3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소득을 나누지 않고 남편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가 30.9%, 소득을 나누지 않고 남편이 관리하는 경우 18.6%, 소득을 나누어 남편과 본인이 각자 관리 6.9%, 기타(부모님, 자녀) 3.7%, 소득을 나누지만 본인이 관리 2.5%, 소득을 나누지만 남편이 관리 2.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2〉 농업소득 관리자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을 나누지 않고 통합 관리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50대는 남편과 공동관리, 나머지 연령대는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주를 이룸
- 40대와 60대 이상은 통합 관리 형태로 여성농업인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편과 공동관리하는 경우가 많음. 50대는 통합 관리 형태로 남편과 공동관리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음
 - 30대 이하는 통합 관리 형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부모님, 자녀)의 비율이 높아 부모님이 소득관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표 3-9〉 농업소득 관리자

단위 : 명(%)

구분	농업소득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χ^2
	소득을 나누지 않고 남편이 관리	소득을 나누지 않고 남편과 내가 관리	소득을 나누지 않고 내가 관리	소득을 나누지만 남편이 관리	소득을 나누어 남편과 내가 각자 관리	소득을 나누지만 내가 관리	기타(부모님, 자녀)	계	
30대 이하	4(8.5)	7(14.9)	15(31.9)	3(6.4)	5(10.6)	1(2.1)	12(25.5)	47(100.0)	11.362***
40대	18(16.2)	29(26.1)	46(41.4)	1(0.9)	11(9.9)	6(5.4)	0(0.0)	111(100.0)	
50대	35(21.2)	69(41.8)	52(31.5)	1(0.6)	4(2.4)	3(1.8)	1(0.6)	165(100.0)	
60대 이상	19(22.4)	21(24.7)	31(36.5)	4(4.7)	8(9.4)	0(0.0)	2(2.4)	85(100.0)	
계	76(18.6)	126(30.9)	144(35.3)	9(2.2)	28(6.9)	10(2.5)	15(3.7)	40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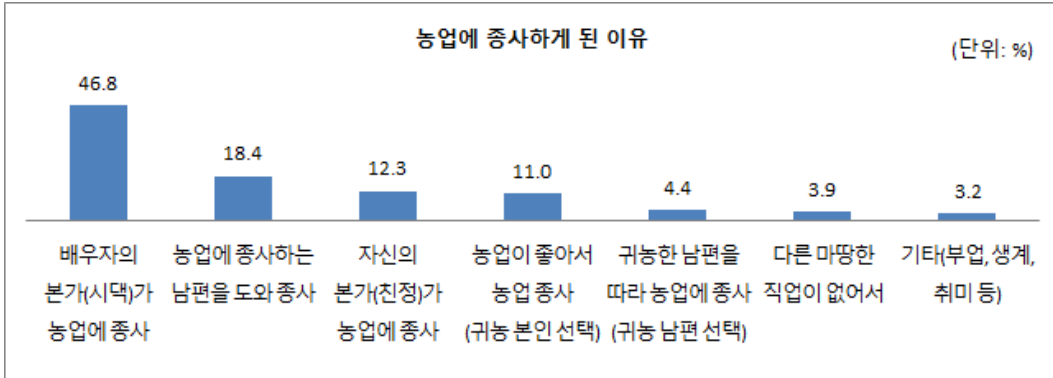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나. 경제·사회 활동 참여

1) 농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

- 농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가 주로 배우자의 본가, 남편, 자신의 본가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는 개인의 선택보다는 환경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로 배우자 본가(시댁)의 농업 종사가 4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도와서 18.4%, 자신의 본가(친정)가 농업에 종사해서 12.3%, 농업이 좋아서(귀농 본인 선택) 11.0%, 귀농한 남편을 따라서(귀농 남편 선택) 4.4%, 다른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3.9%, 기타(부업, 생계, 취미 등) 3.2% 순임

〈그림 3-13〉 농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배우자의 본가(시대)가 농업에 종사해서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음. 그 밖에 이유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40대 이상은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도와 종사하게 된 경우가 다음으로 많았고, 30대 이하의 자신의 본가(친정)가 농업에 종사해서 농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많음
 - 농업이 좋아서 종사하는 경우는 30대 이하 12.8%, 40대 12.6%, 50대 10.3%, 60대 이상 9.4%로 10% 전후로 나타남

〈표 3-10〉 농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농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χ^2
	배우자의 본가(시대)가 농업에 종사	자신의 본가(친정)가 농업에 종사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도와 종사	귀농한 남편을 따라 농업에 종사(귀농 남편 선택)	농업이 좋아서 농업 종사(귀농 본인 선택)	다른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기타(부업, 생계, 취미 등)	계	
30대 이하	21(44.7)	10(21.3)	5(10.6)	4(8.5)	6(12.8)	0(0.0)	1(2.1)	47(100.0)	30.089*
40대	46(41.4)	17(15.3)	19(17.1)	6(5.4)	14(12.6)	3(2.7)	6(5.4)	111(100.0)	
50대	82(49.7)	21(12.7)	32(19.4)	4(2.4)	17(10.3)	5(3.0)	4(2.4)	165(100.0)	
60대 이상	42(49.4)	2(2.4)	19(22.4)	4(4.7)	8(9.4)	8(9.4)	2(2.4)	85(100.0)	
계	191(46.8)	50(12.3)	75(18.4)	18(4.4)	45(11.0)	16(3.9)	13(3.2)	408(100.0)	

* p<.05, ** p<.01, *** p<.001

- 여성농업인이 농업이 좋아서 종사하는 경우는 10% 전후로 농업종사 선택이 개인의 호감이나 의지보다는 부모, 배우자 등의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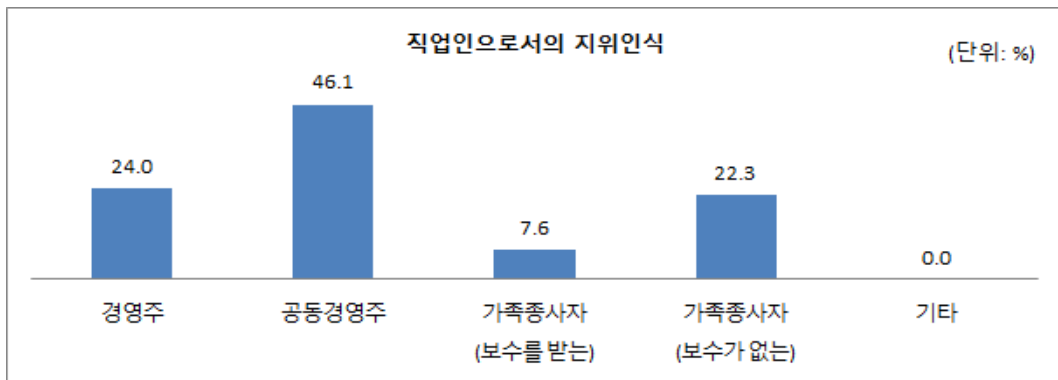
나타남. 따라서 농촌 환경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농업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다음 세대의 농촌이탈을 방지하고 농업선택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직업인으로서의 지위 인식

○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의 지위 인식은 공동경영주가 4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영주 24.0%, 가족종사자(보수가 없는) 22.3%, 가족종사자(보수를 받는) 7.6% 순으로 나타남

- 공동경영주라는 인식이 가장 높지만 경영주라는 인식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수가 없는 가족종사자라는 인식도 적지 않음

〈그림 3-14〉 직업인으로서의 지위인식



○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는 공동경영주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지만 30대 이하에서는 보수가 없는 가족종사자라는 인식이 가장 높음

- 50대 이상에서는 공동경영주라는 인식과 함께 경영주라는 인식이 높았지만 40대에서는 공동경영주라는 인식 다음으로 보수가 없는 가족종사자라는 인식이 높음
- 30대 이하에서는 보수가 없는 가족종사자라는 인식이 40.4%로 가장 높고, 공동경영주 27.7%, 보수를 받는 가족종사자 19.1% 순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수가 없는 가족종사자 인식이 강함
- 경영주라는 인식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반면 보수가 있는 또는 보수가 없는 가족종사자라는 인식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1〉 직업인으로서의 지위 인식

단위 : 명(%)

구분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지위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χ^2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보수를 받는)	가족종사자 (보수가 없는)	기타	계	
30대 이하	6(12.8)	13(27.7)	9(19.1)	19(40.4)	0(0.0)	47(100.0)	39.453 ***
40대	23(20.7)	46(41.4)	14(12.6)	28(25.2)	0(0.0)	111(100.0)	
50대	42(25.5)	87(52.7)	5(3.0)	31(18.8)	0(0.0)	165(100.0)	
60대 이상	27(31.8)	42(49.4)	3(3.5)	13(15.3)	0(0.0)	85(100.0)	
계	98(24.0)	188(46.1)	31(7.6)	91(22.3)	0(0.0)	40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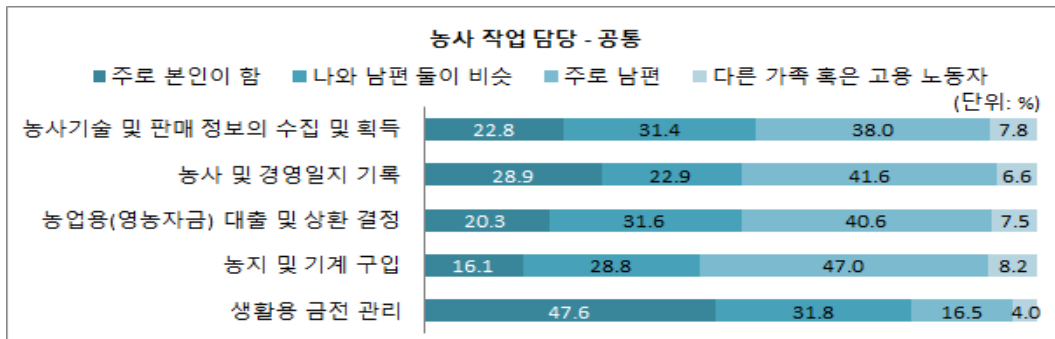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3) 농사 작업별 담당

가) 농사 작업별 담당 - 공통

- 공통분야의 작업별 담당은 주로 남편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생활용 금전관리는 주로 여성농업인 본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주로 남편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작업은 농지 및 기계 구입 47.0%, 농사 및 경영일지 기록 41.6%, 농업용(영농자금) 대출 및 상환 결정 40.6%였음
 - 농사기술 및 판매 정보의 수집 및 획득은 주로 남편 38.0%, 둘이 비슷 31.4%, 주로 본인 22.8% 순으로 다른 작업에 비해 고른 분포를 보임
 - 생활용 금전관리는 주로 본인 47.6%, 둘이 비슷 31.8%, 주로 남편 16.5% 순으로 여성농업인 본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작업이었음

〈그림 3-15〉 농사 작업별 담당 - 공통



(1) 농사기술 및 판매 정보의 수집 및 획득

- 농사기술 및 판매정보의 수집 및 획득 작업은 모든 연령대에서 주로 남편이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다만 40대 이상에서는 주로 남편 > 둘이 비슷 > 주로 본인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주로 남편 >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 둘이 비슷 등의 순으로 나타나 30대 이하에서는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2〉 농사 작업별 담당(공통) - 농사기술 및 판매 정보의 수집 및 획득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농사기술 및 판매 정보의 수집 및 획득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5(11.4)	6(13.6)	18(40.9)	15(34.1)	44(100.0)	54.208 ***
40대	28(25.9)	36(33.3)	38(35.2)	6(5.6)	108(100.0)	
50대	36(22.5)	56(35.0)	64(40.0)	4(2.5)	160(100.0)	
60대 이상	21(25.3)	26(31.3)	30(36.1)	6(7.2)	83(100.0)	
계	90(22.8)	124(31.4)	150(38.0)	31(7.8)	395(100.0)	

* p<.05, ** p<.01, *** p<.001

(2) 농사 및 경영일지 기록

- 농사 및 경영일지 기록은 모든 연령대에서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40대 이상은 주로 남편 > 주로 본인 > 둘이 비슷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30대 이하의 주로 남편 >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 > 주로 본인 등의 순임
 - 30대 이하에서는 농사기술 및 판매정보의 수집 및 획득과 마찬가지로 주로 남편이 담당하는 경우 다음으로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13〉 농사 작업별 담당(공통) - 농사 및 경영일지 기록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농사 및 경영일지 기록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8(20.0)	4(10.0)	15(37.5)	13(32.5)	40(100.0)	51.613 ***
40대	32(32.0)	24(24.0)	40(40.0)	4(4.0)	100(100.0)	
50대	44(29.9)	37(25.2)	63(42.9)	3(2.0)	147(100.0)	
60대 이상	21(27.6)	18(23.7)	33(43.4)	4(5.3)	76(100.0)	
계	105(28.9)	83(22.9)	151(41.6)	24(6.6)	363(100.0)	

* p<.05, ** p<.01, *** p<.001

(3) 농업용(영농자금) 대출 및 상환 결정

- 농업용(영농자금) 대출 및 상환 결정 역시 주로 남편이 담당하는 경우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40대 이상은 주로 남편 > 둘이 비슷 > 본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30대 이하에서는 남편 >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 > 둘이 비슷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0대 이하에서는 남편에 이어 다른 가족이 담당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남

〈표 3-14〉 농사 작업별 담당(공통) - 농업용(영농자금) 대출 및 상환 결정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농업용(영농자금) 대출 및 상환 결정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3(7.1)	9(21.4)	16(38.1)	14(33.3)	42(100.0)	54.956 ***
40대	22(21.8)	36(35.6)	40(39.6)	3(3.0)	101(100.0)	
50대	31(20.5)	52(34.4)	65(43.0)	3(2.0)	151(100.0)	
60대 이상	20(25.0)	21(26.3)	31(38.8)	8(10.0)	80(100.0)	
계	76(20.3)	118(31.6)	152(40.6)	28(7.5)	374(100.0)	

* p<.05, ** p<.01, *** p<.001

(4) 농지 및 기계 구입

- 농지 및 기계 구입은 공통영역 작업 중 주로 남편이 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작업이며, 모든 연령대에서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농지 및 기계 구입은 농업용(영농자금) 대출 및 상환 결정과 마찬가지로 40대 이상은 주로 남편 > 둘이 비슷 > 본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30대 이하에서는 주로

남편 >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 > 둘이 비슷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른 가족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15〉 농사 작업별 담당(공통) – 농지 및 기계 구입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농지 및 기계 구입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3(7.0)	7(16.3)	17(39.5)	16(37.2)	43(100.0)	62.410 ***
40대	14(13.7)	32(31.4)	52(51.0)	4(3.9)	102(100.0)	
50대	29(18.7)	50(32.3)	73(47.1)	3(1.9)	155(100.0)	
60대 이상	15(19.0)	20(25.3)	36(45.6)	8(10.1)	79(100.0)	
계	61(16.1)	109(28.8)	178(47.0)	31(8.2)	379(100.0)	

* p<.05, ** p<.01, *** p<.001

(5) 생활용 금전관리

○ 생활용 금전관리는 모든 연령대에서 주로 여성농업인 본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비율이 증가함

– 모든 연령대에서 주로 본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둘이 비슷한 경우가 많음. 다만 30대 이하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른 가족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3-16〉 농사 작업별 담당(공통) – 생활용 금전 관리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생활용 금전 관리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13(30.2%)	12(27.9%)	8(18.6%)	10(23.3%)	43(100.0)	48.800 ***
40대	53(48.2%)	36(32.7%)	19(17.3%)	2(1.8%)	110(100.0)	
50대	85(52.1%)	51(31.3%)	25(15.3%)	2(1.2%)	163(100.0)	
60대 이상	39(47.0%)	28(33.7%)	14(16.9%)	2(2.4%)	83(100.0)	
계	190(47.6%)	127(31.8%)	66(16.5%)	16(4.0%)	399(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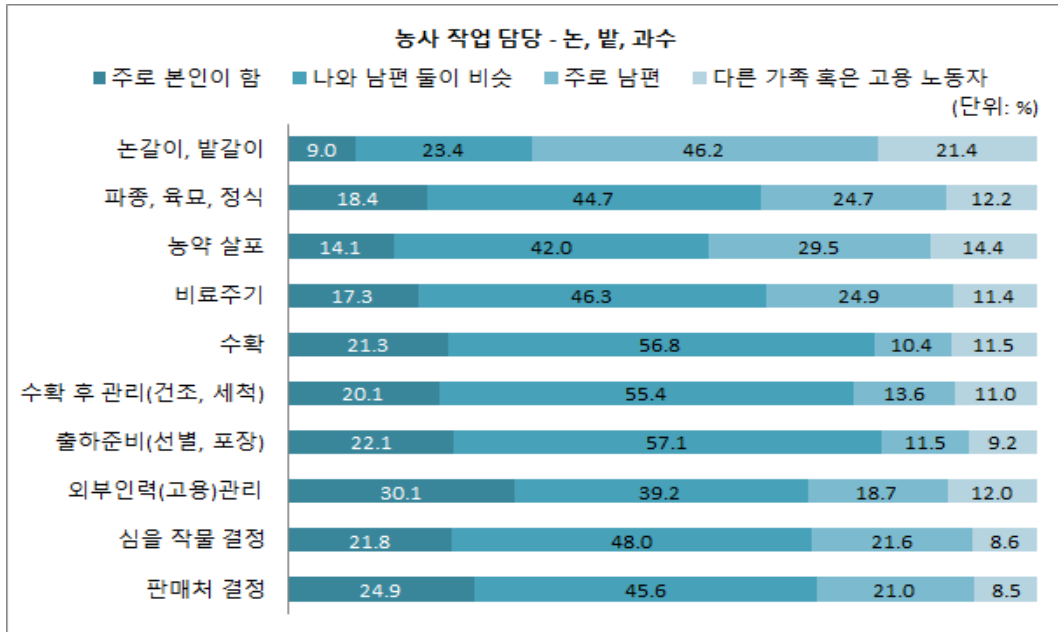
가) 농사 작업별 담당 – 논, 밭, 과수

○ 논, 밭, 과수 작업은 논갈이, 밭갈이를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여성농업인 본인과 남편

둘이 비슷하게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 논갈이·밭갈이 작업은 주로 남편 > 둘이 비슷 >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 > 주로 본인 순으로 다른 작업에 비해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주로 본인이 담당한다는 비율은 가장 적고,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가 담당한다는 비율은 더 높음
- 파종·육묘·정식, 농약살포, 비료주기 작업은 둘이 비슷 > 주로 남편 등의 순임
- 수확, 수확 후 관리(건조, 세척), 출하준비(선별, 포장), 외부인력(고용) 관리, 심을 작물 결정, 판매처 결정은 둘이 비슷 > 주로 본인 등의 순임

〈그림 3-16〉 농사 작업별 담당 - 논, 밭, 과수



(1) 논갈이, 밭갈이

- 논갈이, 밭갈이는 논, 밭, 과수 작업 중 주로 남편이 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작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도 모두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40대와 50대는 남편 다음으로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남편 다음으로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가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17〉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논갈이, 밭갈이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논갈이, 밭갈이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4(10.8)	2(5.4)	16(43.2)	15(40.5)	37(100.0)	24.689**
40대	3(3.5)	22(25.9)	43(50.6)	17(20.0)	85(100.0)	
50대	12(10.4)	30(26.1)	58(50.4)	15(13.0)	115(100.0)	
60대 이상	7(13.2)	14(26.4)	17(32.1)	15(28.3)	53(100.0)	
계	26(9.0)	68(23.4)	134(46.2)	62(21.4)	290(100.0)	

* p<.05, ** p<.01, *** p<.001

(2) 파종, 육묘, 정식

- 파종, 육묘, 정식 작업은 40대 이상에서는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 이하는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가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40대 이상에서는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 중 40대와 50대는 둘 다음으로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둘에 이어 주로 본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30대 이하는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가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둘이 비슷하거나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같은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8〉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파종, 육묘, 정식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파종, 육묘, 정식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7(17.9)	10(25.6)	10(25.6)	12(30.8)	39(100.0)	28.959**
40대	14(15.9)	36(40.9)	30(34.1)	8(9.1)	88(100.0)	
50대	18(15.1)	63(52.9)	27(22.7)	11(9.2)	119(100.0)	
60대 이상	17(29.3)	27(46.6)	8(13.8)	6(10.3)	58(100.0)	
계	56(18.4)	136(44.7)	75(24.7)	37(12.2)	304(100.0)	

* p<.05, ** p<.01, *** p<.001

(3) 농약 살포

- 농약 살포는 40대 이상은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 이하의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 40대 이상에서는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 30대 이하의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가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도 주로 남편이 담당하는 경우(22.9%)에 이어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가 담당하는 경우(21.4%)도 40대, 50대보다 높게 나타남

〈표 3-19〉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농약 살포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농약 살포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5(11.9)	10(23.8)	14(33.3)	13(31.0)	42(100.0)	26.412**
40대	14(13.3)	41(39.0)	36(34.3)	14(13.3)	105(100.0)	
50대	20(13.2)	78(51.3)	43(28.3)	11(7.2)	152(100.0)	
60대 이상	13(18.6)	26(37.1)	16(22.9)	15(21.4)	70(100.0)	
계	52(14.1)	155(42.0)	109(29.5)	53(14.4)	369(100.0)	

* p<.05, ** p<.01, *** p<.001

(4) 비료주기

- 비료주기는 40대 이상에서는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 이하에서는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 40대와 50대는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60대 이상에서는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로 본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30대 이하에서는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가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20〉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비료주기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비료주기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7(16.7)	9(21.4)	14(33.3)	12(28.6)	42(100.0)	35.676 ***
40대	14(13.2)	47(44.3)	36(34.0)	9(8.5)	106(100.0)	
50대	26(17.2)	83(55.0)	32(21.2)	10(6.6)	151(100.0)	
60대 이상	17(24.3)	32(45.7)	10(14.3)	11(15.7)	70(100.0)	
계	64(17.3)	171(46.3)	92(24.9)	42(11.4)	369(100.0)	

* p<.05, ** p<.01, *** p<.001

(5) 수확

- 수확은 모든 연령대에서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이상에서는 주로 본인이, 30대 이하에서는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가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21〉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수확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수확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9(20.0)	16(35.6)	7(15.6)	13(28.9)	45(100.0)	26.531**
40대	21(19.6)	66(61.7)	13(12.1)	7(6.5)	107(100.0)	
50대	31(20.3)	95(62.1)	15(9.8)	12(7.8)	153(100.0)	
60대 이상	19(27.1)	36(51.4)	4(5.7)	11(15.7)	70(100.0)	
계	80(21.3)	213(56.8)	39(10.4)	43(11.5)	375(100.0)	

* p<.05, ** p<.01, *** p<.001

(6) 수확 후 관리

- 수확 후 관리는 40대 이상에서는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로 본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가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22〉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수확 후 관리(건조, 세척)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수확 후 관리(건조, 세척)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7(16.3)	11(25.6)	9(20.9)	16(37.2)	43(100.0)	51.593 ***
40대	22(22.0)	53(53.0)	18(18.0)	7(7.0)	100(100.0)	
50대	22(15.4)	96(67.1)	15(10.5)	10(7.0)	143(100.0)	
60대 이상	20(29.4)	36(52.9)	6(8.8)	6(8.8)	68(100.0)	
계	71(20.1)	196(55.4)	48(13.6)	39(11.0)	354(100.0)	

* p<.05, ** p<.01, *** p<.001

(7) 출하준비

- 출하준비는 모든 연령대에서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40대 이상에서는 주로 본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가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23〉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출하준비(선별, 포장)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출하준비(선별, 포장)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7(17.1)	16(39.0)	7(17.1)	11(26.8)	41(100.0)	30.232 ***
40대	25(24.8)	52(51.5)	17(16.8)	7(6.9)	101(100.0)	
50대	30(20.5)	96(65.8)	13(8.9)	7(4.8)	146(100.0)	
60대 이상	17(24.6)	40(58.0)	4(5.8)	8(11.6)	69(100.0)	
계	79(22.1)	204(57.1)	41(11.5)	33(9.2)	357(100.0)	

* p<.05, ** p<.01, *** p<.001

(6) 외부인력(고용)관리

- 외부인력(고용)관리는 30대 이하에서는 다른 가족 혹은 고용노동자가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와 50대는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 60대 이상은 주로 본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외부인력(고용)관리는 40대 이상에서는 부부 또는 본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30대 이하에서는 다른 가족 또는 남편이 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4〉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외부인력(고용)관리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외부인력(고용)관리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5(13.5)	5(13.5)	12(32.4)	15(40.5)	37(100.0)	58.251***
40대	30(30.3)	38(38.4)	26(26.3)	5(5.1)	99(100.0)	
50대	42(30.0)	69(49.3)	18(12.9)	11(7.9)	140(100.0)	
60대 이상	26(39.4)	22(33.3)	8(12.1)	10(15.2)	66(100.0)	
계	103(30.1)	134(39.2)	64(18.7)	41(12.0)	342(100.0)	

* p<.05, ** p<.01, *** p<.001

(8) 심을 작물 결정

- 30대 이하는 다른 가족이 심을 작물을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40대 이상은 남편과 비슷하게 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30대 이하는 다른 가족이 담당하는 비율이 3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둘이 비슷하게 담당하는 비율이 33.3%로 높음
 - 40대 이상에서는 남편과 담당비율이 비슷한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로 본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표 3-25〉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심을 작물 결정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심을 작물 결정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3(7.7)	13(33.3)	9(23.1)	14(35.9)	39(100.0)	53.607***
40대	22(21.6)	44(43.1)	29(28.4)	7(6.9)	102(100.0)	
50대	29(21.0)	78(56.5)	26(18.8)	5(3.6)	138(100.0)	
60대 이상	22(31.9)	32(46.4)	11(15.9)	4(5.8)	69(100.0)	
계	76(21.8)	167(48.0)	75(21.6)	30(8.6)	348(100.0)	

* p<.05, ** p<.01, *** p<.001

(7) 판매처 결정

- 판매처 결정은 40대 이상에서는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 이하에서는 다른 가족이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판매처 결정은 40대 이상에서는 둘이 비슷 > 주로 본인 > 주로 남편 순으로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다른 가족 > 주로 남편 > 둘이 비슷하게 담당하는 순으로 나타남

〈표 3-26〉 농사 작업별 담당(논, 밭, 과수) - 판매처 결정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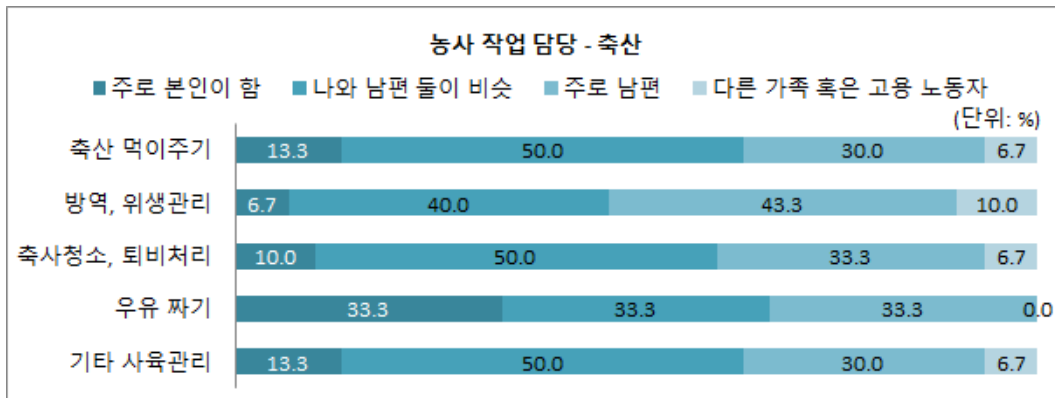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판매처 결정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4(9.8)	10(24.4)	11(26.8)	16(39.0)	41(100.0)	65.361***
40대	29(27.9)	43(41.3)	26(25.0)	6(5.8)	104(100.0)	
50대	37(24.5)	80(53.0)	29(19.2)	5(3.3)	151(100.0)	
60대 이상	21(30.0)	34(48.6)	11(15.7)	4(5.7)	70(100.0)	
계	91(24.9)	167(45.6)	77(21.0)	31(8.5)	366(100.0)	

* p<.05, ** p<.01, *** p<.001

나) 농사 작업별 담당 - 축산

- 축산 관련 작업 중 축산 먹이 주기, 축사청소·퇴비처리, 기타 사육관리는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방역·위생관리는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우유짜기는 주로 본인, 주로 남편,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응답이 각각 1명씩 나타나 고른 분포를 보임

〈그림 3-17〉 농사 작업별 담당 - 축산



(1) 축산 먹이주기

- 축산 먹이주기는 30대 이하와 50대는 둘이 비슷하게, 40대는 주로 남편이, 60대 이상은 둘이 비슷하게 또는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표 3-27〉 농사 작업별 담당(축산) - 축산 먹이주기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축산 먹이주기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0(0.0)	1(100.0)	0(0.0)	0(0.0)	1(100.0)	7.191
40대	1(25.0)	1(25.0)	2(50.0)	0(0.0)	4(100.0)	
50대	1(9.1)	8(72.7)	2(18.2)	0(0.0)	11(100.0)	
60대 이상	2(14.3)	5(35.7)	5(35.7)	2(14.3)	14(100.0)	
계	4(13.3)	15(50.0)	9(30.0)	2(6.7)	30(100.0)	

* p<.05, ** p<.01, *** p<.001

(2) 방역, 위생관리

- 방역 및 위생관리는 30대 이하와 50대는 둘이 비슷하게, 40대와 60대 이상은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28〉 농사 작업별 담당(축산) - 방역, 위생관리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방역, 위생관리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0(0.0)	1(100.0)	0(0.0)	0(0.0)	1(100.0)	13.179
40대	0(0.0)	1(25.0)	2(50.0)	1(25.0)	4(100.0)	
50대	2(18.2)	7(63.6)	2(18.2)	0(0.0)	11(100.0)	
60대 이상	0(0.0)	3(21.4)	9(64.3)	2(14.3)	14(100.0)	
계	2(6.7)	12(40.0)	13(43.3)	3(10.0)	30(100.0)	

* p<.05, ** p<.01, *** p<.001

(3) 축사청소, 퇴비처리

- 축사청소 및 퇴비처리는 50대 이하에서는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60대 이상은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표 3-29〉 농사 작업별 담당(축산) - 축사청소, 퇴비처리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축사청소, 퇴비처리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0(0.0)	1(100.0)	0(0.0)	0(0.0)	1(100.0)	8.672
40대	1(25.0)	2(50.0)	1(25.0)	0(0.0)	4(100.0)	
50대	1(9.1)	8(72.7)	2(18.2)	0(0.0)	11(100.0)	
60대 이상	1(7.1)	4(28.6)	7(50.0)	2(14.3)	14(100.0)	
계	3(10.0)	15(50.0)	10(33.3)	2(6.7)	30(100.0)	

* p<.05, ** p<.01, *** p<.001

(4) 우유짜기

- 우유짜기는 30대 이하는 응답자가 없었고 40대는 주로 본인, 50대는 둘이 비슷하게, 60대 이상은 주로 남편이 담당한다는 응답이 1건씩 고르게 나타남

〈표 3-30〉 농사 작업별 담당(축산) - 우유 짜기

단위 : 명(%)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우유 짜기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0(0.0)	0(0.0)	0(0.0)	0(0.0)	0(100.0)	6.000
40대	1(100.0)	0(0.0)	0(0.0)	0(0.0)	1(100.0)	
50대	0(0.0)	1(100.0)	0(0.0)	0(0.0)	1(100.0)	
60대 이상	0(0.0)	0(0.0)	1(100.0)	0(0.0)	1(100.0)	
계	1(33.3)	1(33.3)	1(33.3)	0(0.0)	3(100.0)	

* p<.05, ** p<.01, *** p<.001

(5) 기타 사육관리

- 기타 사육관리는 3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에서는 둘이 비슷하게 담당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는 모든 관리 주체가 나타남

〈표 3-31〉 농사 작업별 담당(축산) - 기타 사육관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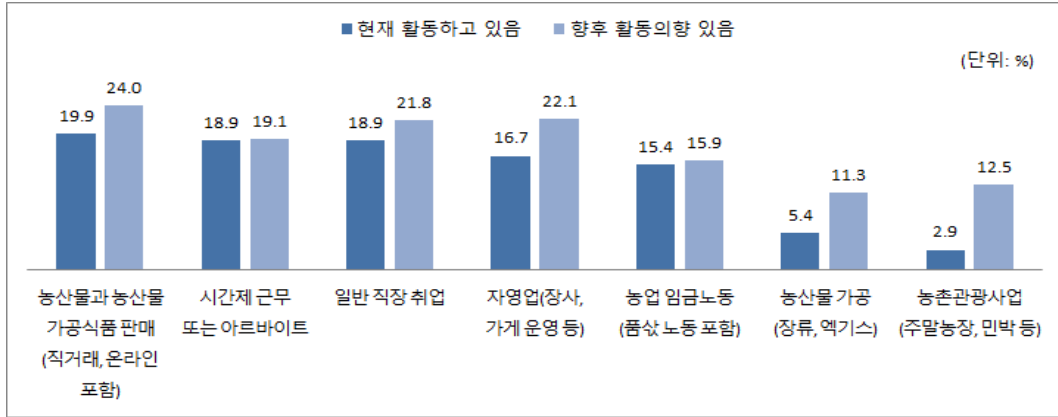
구분	농사 작업별 담당 - 기타 사육관리					χ^2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들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계	
30대 이하	0(0.0)	1(100.0)	0(0.0)	0(0.0)	1(100.0)	5.586
40대	1(25.0)	1(25.0)	1(25.0)	1(25.0)	4(100.0)	
50대	1(9.1)	7(63.6)	3(27.3)	0(0.0)	11(100.0)	
60대 이상	2(14.3)	6(42.9)	5(35.7)	1(7.1)	14(100.0)	
계	4(13.3)	15(50.0)	9(30.0)	2(6.7)	30(100.0)	

* p<.05, ** p<.01, *** p<.001

4)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활동

- 농업생산 이외의 현재 하고 있는 소득활동과 향후 하고 싶은 소득활동은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직거래, 온라인 포함) 활동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재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직거래, 온라인 포함)이 1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18.9%, 일반 직장 취업 18.9%,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16.7%, 농업 임금노동(품삿 노동 포함) 15.4%, 농산물 가공(장류, 엑기스) 5.4%,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민박 등) 2.9% 순으로 나타남
- 향후 활동할 의향이 있는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활동으로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직거래, 온라인 포함)와 함께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일반 직장 취업,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등이 나타나 소득안정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향후 활동할 의향이 있는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활동은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직거래, 온라인 포함)가 2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22.1%, 일반 직장 취업 21.8%,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19.1%, 농업 임금노동(품삿 노동 포함) 15.9%,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민박 등) 12.5%, 농산물 가공(장류, 엑기스) 11.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8〉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가) 농산물 가공(장류, 엑기스)

- 농산물 가공은 다른 소득활동에 비해 활동률과 활동의향이 모두 낮으며, 연령별로는 50대의 소득활동률이 가장 많고, 활동의향은 30대 이하가 가장 높음
- 농산물 가공 활동률은 평균 5.4%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 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이하, 40대 순으로 나타남
 - 향후 활동 의향은 평균 11.3%이며, 30대 이하가 17.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가 15.2%로 높게 나타남

〈표 3-32〉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 농산물 가공(장류, 엑기스)

단위 : 명(%)

구분	농산물 가공(장류, 엑기스)							
	현재 활동 여부				향후 활동 의향			
	예	아니오	계	χ^2	예	아니오	계	χ^2
30대 이하	2(4.3)	45(95.7)	47(100.0)	5.448	8(17.0)	39(83.0)	47(100.0)	8.810*
40대	4(3.6)	107(96.4)	111(100.0)		9(8.1)	102(91.9)	111(100.0)	
50대	14(8.5)	151(91.5)	165(100.0)		25(15.2)	140(84.8)	165(100.0)	
60대 이상	2(2.4)	83(97.6)	85(100.0)		4(4.7)	81(95.3)	85(100.0)	
계	22(5.4)	386(94.6)	408(100.0)		46(11.3)	362(88.7)	408(100.0)	

* p<.05, ** p<.01, *** p<.001

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 판매(직거래, 온라인 포함)

-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 판매는 다른 소득활동에 비해 현재 활동률과 활동의향이 가장 높고, 연령별로는 40대의 소득활동률이 가장 높고, 활동의향은 50대가 가장 높음
-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 판매 활동률은 평균 19.9%이며, 연령별로는 40대 23.4%, 50대 21.8%, 30대 이하 17.0%, 60대 이상 12.9% 순으로 나타남
 - 향후 활동 의향은 평균 24.0%이며, 50대 31.5%, 30대 이하 27.7%, 40대 23.4%, 60대 이상 8.2% 순으로 나타남

〈표 3-33〉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 판매(직거래, 온라인 포함)

단위 : 명(%)

구분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 판매(직거래, 온라인 포함)							
	현재 활동 여부				향후 활동 의향			
	예	아니오	계	χ^2	예	아니오	계	χ^2
30대 이하	8(17.0)	39(83.0)	47(100.0)	4.079	13(27.7)	34(72.3)	47(100.0)	17.046**
40대	26(23.4)	85(76.6)	111(100.0)		26(23.4)	85(76.6)	111(100.0)	
50대	36(21.8)	129(78.2)	165(100.0)		52(31.5)	113(68.5)	165(100.0)	
60대 이상	11(12.9)	74(87.1)	85(100.0)		7(8.2)	78(91.8)	85(100.0)	
계	81(19.9)	327(80.1)	408(100.0)		98(24.0)	310(76.0)	408(100.0)	

* p<.05, ** p<.01, *** p<.001

다)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민박 등)

- 농촌관광사업은 다른 소득활동에 비해 현재 활동률과 활동의향이 모두 가장 낮고,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소득활동률과 활동의향이 가장 높음
- 주말농장, 민박 등의 농촌관광사업의 활동률은 평균 2.9%로 낮은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6.4%로 가장 높음
 - 향후 활동 의향은 평균 12.5%이며, 30대 이하 21.3%, 50대가 13.9%, 40대가 13.5%, 60대 이상이 3.5% 순으로 30대 이하가 가장 높음

〈표 3-34〉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민박 등)

단위 : 명(%)

구분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민박 등)							
	현재 활동 여부				향후 활동 의향			
	예	아니오	계	χ^2	예	아니오	계	χ^2
30대 이하	3(6.4)	44(93.6)	47(100.0)	4.701	10(21.3)	37(78.7)	47(100.0)	9.981*
40대	4(3.6)	107(96.4)	111(100.0)		15(13.5)	96(86.5)	111(100.0)	
50대	5(3.0)	160(97.0)	165(100.0)		23(13.9)	142(86.1)	165(100.0)	
60대 이상	0(0.0)	85(100.0)	85(100.0)		3(3.5)	82(96.5)	85(100.0)	
계	12(2.9)	396(97.1)	408(100.0)		51(12.5)	357(87.5)	408(100.0)	

* p<.05, ** p<.01, *** p<.001

라)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 자영업의 소득활동률은 다른 소득활동률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활동의향은 높은 편이며, 소득활동률은 30대 이하가 가장 높고, 활동의향은 40대가 가장 높음
- 장사, 가게 운동 등의 자영업 소득활동률은 평균 16.7%이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21.3%, 40대 19.8%, 50대 18.2%, 60대 이상이 7.1% 수준임
 - 향후 활동 의향은 평균 22.1%로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연령별로는 40대 27.9%, 30대 이하 27.7%, 50대 24.8%, 60대 이상 5.9% 순으로 나타남

〈표 3-35〉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단위 : 명(%)

구분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현재 활동 여부				향후 활동 의향			
	예	아니오	계	χ^2	예	아니오	계	χ^2
30대 이하	10(21.3)	37(78.7)	47(100.0)	7.436	13(27.7)	34(72.3)	47(100.0)	16.765**
40대	22(19.8)	89(80.2)	111(100.0)		31(27.9)	80(72.1)	111(100.0)	
50대	30(18.2)	135(81.8)	165(100.0)		41(24.8)	124(75.2)	165(100.0)	
60대 이상	6(7.1)	79(92.9)	85(100.0)		5(5.9)	80(94.1)	85(100.0)	
계	68(16.7)	340(83.3)	408(100.0)		90(22.1)	318(77.9)	408(100.0)	

* p<.05, ** p<.01, *** p<.001

마) 일반 직장 취업

- 일반 직장 취업은 다른 소득활동에 비해 현재 활동률과 활동의향이 모두 높은 편이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소득활동률과 활동의향이 가장 높음
 - － 일반 직장 취업 활동률은 평균 18.9%이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31.9%, 40대 24.3%, 50대 17.0%, 60대 이상 8.2% 순으로 나타남
 - － 향후 활동 의향은 평균 21.8%이며, 30대 이하 42.6%, 40대 30.6%, 50대 18.8%, 60대 이상 4.7%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직장 취업 활동률과 활동의향이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일반 직장 취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6〉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 일반 직장 취업

단위 : 명(%)

구분	일반 직장 취업							
	현재 활동 여부				향후 활동 의향			
	예	아니오	계	χ^2	예	아니오	계	χ^2
30대 이하	15(31.9)	32(68.1)	47(100.0)	14.048**	20(42.6)	27(57.4)	47(100.0)	32.385***
40대	27(24.3)	84(75.7)	111(100.0)		34(30.6)	77(69.4)	111(100.0)	
50대	28(17.0)	137(83.0)	165(100.0)		31(18.8)	134(81.2)	165(100.0)	
60대 이상	7(8.2)	78(91.8)	85(100.0)		4(4.7)	81(95.3)	85(100.0)	
계	77(18.9)	331(81.1)	408(100.0)		89(21.8)	319(78.2)	408(100.0)	

* p<.05, ** p<.01, *** p<.001

바)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는 다른 소득활동에 비해 현재 활동률이 높은 편이고 활동의향은 중간 수준임.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소득활동률과 활동의향이 가장 높음
 - －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활동률은 평균 18.9%로 다른 소득활동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31.9%, 40대 24.3%, 50대 19.4%, 60대 이상 3.5% 순으로 30대 이하가 가장 높음
 - － 향후 활동 의향은 평균 19.1%로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31.9%, 40대 27.0%, 50대 18.2%, 60대 이상 3.5% 순으로 30대 이하가 가장 높음
- 일반 직장 취업과 마찬가지로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활동률과 활동의향이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7〉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단위 : 명(%)

구분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현재 활동 여부				향후 활동 의향			
	예	아니오	계	χ^2	예	아니오	계	χ^2
30대 이하	15(31.9)	32(68.1)	47(100.0)	20.475 ***	15(31.9)	32(68.1)	47(100.0)	22.920 ***
40대	27(24.3)	84(75.7)	111(100.0)		30(27.0)	81(73.0)	111(100.0)	
50대	32(19.4)	133(80.6)	165(100.0)		30(18.2)	135(81.8)	165(100.0)	
60대 이상	3(3.5)	82(96.5)	85(100.0)		3(3.5)	82(96.5)	85(100.0)	
계	77(18.9)	331(81.1)	408(100.0)		78(19.1)	330(80.9)	408(100.0)	

* p<.05, ** p<.01, *** p<.001

사) 농업 임금노동(품삿 노동 포함)

- 농업 임금노동은 다른 소득활동에 비해 현재 활동률과 활동의향이 낮은 편이며, 연령별로는 모두 가장 낮고, 연령별로는 50대가 소득활동률과 활동의향이 가장 높음
 - － 농업 임금노동의 활동률은 평균 15.4%이며, 연령별로는 50대 20.6%로 가장 높음
 - － 향후 활동 의향은 평균 15.9%이며, 50대가 21.2%로 가장 높음

〈표 3-38〉 농업 생산 이외 소득을 얻는 활동 여부 및 향후 활동 의향 - 농업 임금노동(품삿 노동 포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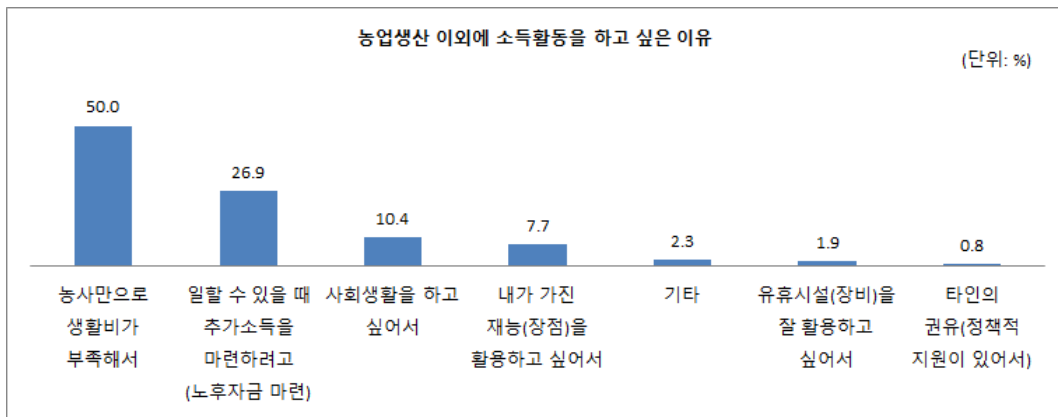
구분	농업 임금노동(품삿 노동 포함)							
	현재 활동 여부				향후 활동 의향			
	예	아니오	계	χ^2	예	아니오	계	χ^2
30대 이하	4(8.5)	43(91.5)	47(100.0)	7.468	7(14.9)	40(85.1)	47(100.0)	7.423
40대	17(15.3)	94(84.7)	111(100.0)		16(14.4)	95(85.6)	111(100.0)	
50대	34(20.6)	131(79.4)	165(100.0)		35(21.2)	130(78.8)	165(100.0)	
60대 이상	8(9.4)	77(90.6)	85(100.0)		7(8.2)	78(91.8)	85(100.0)	
계	63(15.4)	345(84.6)	408(100.0)		65(15.9)	343(84.1)	408(100.0)	

* p<.05, ** p<.01, *** p<.001

5) 농업생산 이외에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는 생활비 부족으로 나타남
-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는 농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추가소득을 마련하려고(노후자금 마련) 26.9%,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10.4%, 내가 가진 재능(장점)을 활용하고 싶어서 7.7%, 기타 2.3%, 유희시설(장비)을 잘 활용하고 싶어서 1.9%, 타인의 권유(정책적 지원이 있어서) 0.8%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9〉 농업생산 이외에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 연령별로도 모두 생활비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을 희망하는 이유로 30대는 생활비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생활 희망이 나타남
 - 40대 이상에서는 모두 생활비 부족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가소득 마련이 높게 나타남

〈표 3-39〉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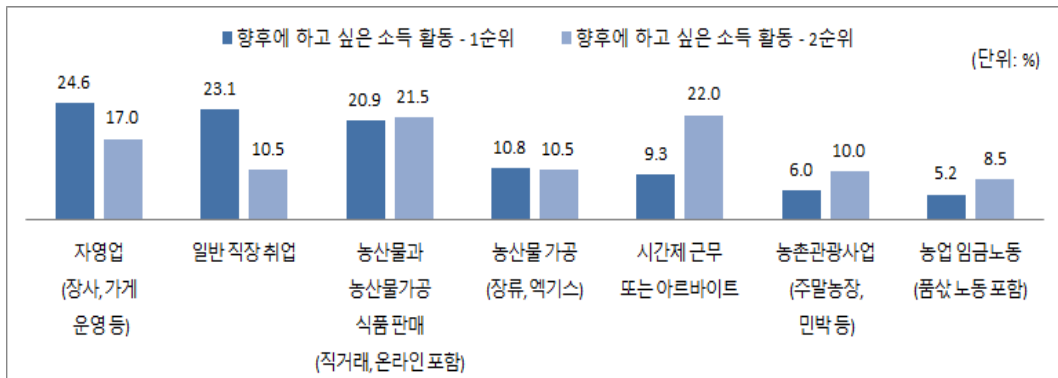
구분	농업생산 이외에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χ^2
	농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추가소득을 마련하려고 (노후자금 마련)	유휴시설 (장비)을 잘 활용 하고 싶어서	내가 가진 재능 (장점)을 활용하고 싶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타인의 권유 (정책적 지원이 있어서)	기타	계	
30대 이하	17 (50.0)	4 (11.8)	0 (0.0)	4 (11.8)	9 (26.5)	0 (0.0)	0 (0.0)	34 (100.0)	32.160 *
40대	49 (55.7)	18 (20.5)	3 (3.4)	7 (8.0)	9 (10.2)	0 (0.0)	2 (2.3)	88 (100.0)	
50대	54 (47.0)	43 (37.4)	2 (1.7)	6 (5.2)	5 (4.3)	2 (1.7)	3 (2.6)	115 (100.0)	
60대 이상	10 (43.5)	5 (21.7)	0 (0.0)	3 (13.0)	4 (17.4)	0 (0.0)	1 (4.3)	23 (100.0)	
계	130 (50.0)	70 (26.9)	5 (1.9)	20 (7.7)	27 (10.4)	2 (0.8)	6 (2.3)	260 (100.0)	

* p<.05, ** p<.01, *** p<.001

6) 향후에 하고 싶은 소득활동

- 향후에 하고 싶은 소득활동 1순위로는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이 가장 많고, 2순위로는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가 가장 많음

〈그림 3-20〉 향후에 하고 싶은 소득활동 - 1순위, 2순위



- 향후에 하고 싶은 소득활동 1순위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임

- 30대 이하와 40대는 일반 직장 취업이 가장 많고, 50대는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60대 이상은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 판매(직거래, 온라인 포함)가 가장 많음

〈표 3-40〉 향후에 하고 싶은 소득 활동 - 1순위

단위 : 명(%)

구분	향후에 하고 싶은 소득 활동_1순위								χ^2
	농산물 가공 (장류, 엑기스)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직거래, 온 라인 포함)	농촌관광 사업 (주말농장, 민박 등)	자영업 (장사, 가게 운영 등)	일반 직장 취업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농업 임금노동 (품앗이 포함)	계	
30대 이하	2(5.0)	6(15.0)	3(7.5)	9(22.5)	18(45.0)	2(5.0)	0(0.0)	40(100.0)	50.335 ***
40대	12(13.2)	14(15.4)	3(3.3)	24(26.4)	26(28.6)	9(9.9)	3(3.3)	91(100.0)	
50대	12(11.1)	27(25.0)	8(7.4)	29(26.9)	17(15.7)	11(10.2)	4(3.7)	108(100.0)	
60대 이상	3(10.3)	9(31.0)	2(6.9)	4(13.8)	1(3.4)	3(10.3)	7(24.1)	29(100.0)	
계	29(10.8)	56(20.9)	16(6.0)	66(24.6)	62(23.1)	25(9.3)	14(5.2)	268(100.0)	

* p<.05, ** p<.01, *** p<.001

○ 향후에 하고 싶은 소득활동 2순위 역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30대 이하와 60대는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가 가장 많고, 40대는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50대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 판매(직거래, 온라인 포함)가 가장 많음

〈표 3-41〉 향후에 하고 싶은 소득 활동 - 2순위

단위 : 명(%)

구분	향후에 하고 싶은 소득 활동_1순위								χ^2
	농산물 가공(장류, 엑기스)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 식품 판매 (직거래, 온 라인 포함)	농촌관광 사업 (주말농장, 민박 등)	자영업 (장사, 가게 운영 등)	일반 직장 취업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농업 임금노동 (품앗이 포함)	계	
30대 이하	3(10.3)	6(20.7)	2(6.9)	4(13.8)	3(10.3)	11(37.9)	0(0.0)	29(100.0)	40.495 **
40대	1(1.4)	17(24.3)	6(8.6)	22(31.4)	7(10.0)	14(20.0)	3(4.3)	70(100.0)	
50대	13(15.9)	17(20.7)	8(9.8)	8(9.8)	10(12.2)	14(17.1)	12(14.6)	82(100.0)	
60대 이상	4(21.1)	3(15.8)	4(21.1)	0(0.0)	1(5.3)	5(26.3)	2(10.5)	19(100.0)	
계	21(10.5)	43(21.5)	20(10.0)	34(17.0)	21(10.5)	44(22.0)	17(8.5)	20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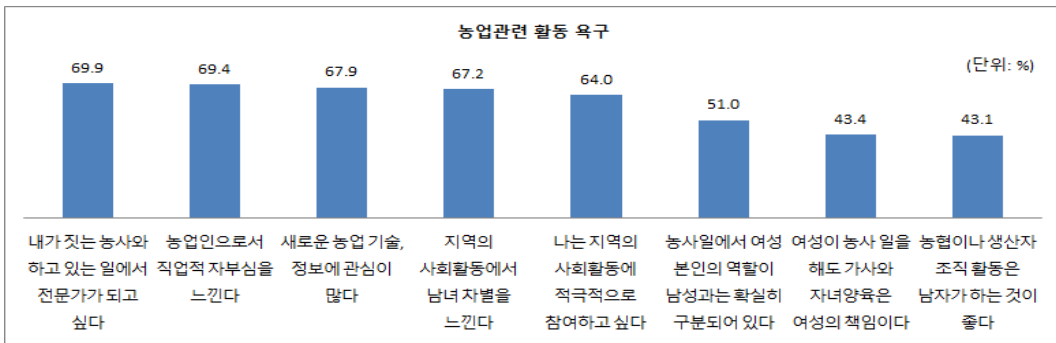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7)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와 관련하여 동의하는 비율은 농업 전문가로 성장, 직업적 자부심, 새로운 농업 기술과 정보에 대한 관심 등의 욕구에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자녀양육 책임 부담, 조직생활의 성역할 분리 등에 대해서는 비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각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내가 짓는 농사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의견이 6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자부심을 느낀다’ 69.4%, ‘새로운 농업 기술, 정보에 관심이 많다’ 67.9%, ‘지역의 사회활동에서 남녀 차별을 느낀다’ 67.2%, ‘나는 지역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64.0%, ‘농사일에서 여성 본인의 역할이 남성과는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51.0%, ‘여성이 농사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 43.4%,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 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43.1%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1〉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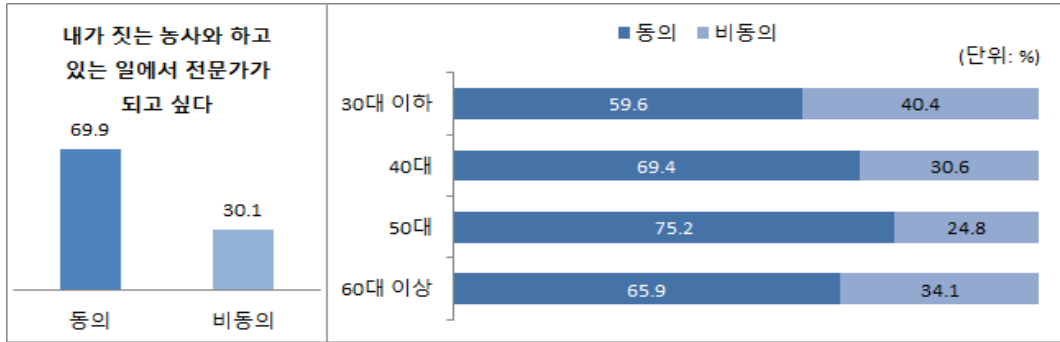
○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와 관련하여 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농사전문가 희망, 직업적 자부심, 새로운 기술정보,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고 조직활동의 성역할 분리에 반대하고 지역사회 활동의 성차별을 크게 느끼는 반면 가사와 자녀양육, 농사일에 대한 성역할 관념은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가) 내가 짓는 농사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 ‘내가 짓는 농사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69.9%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 7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69.4%, 60대 이상 65.9%, 30대 이하 59.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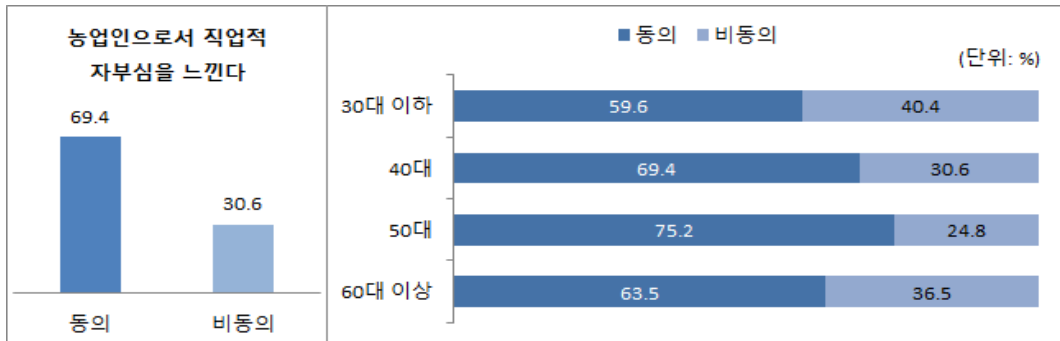
〈그림 3-22〉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내가 짓는 농사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나) 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자부심을 느낀다

○ ‘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자부심을 느낀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69.4%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 7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69.4%, 60대 이상 63.5%, 30대 이하 59.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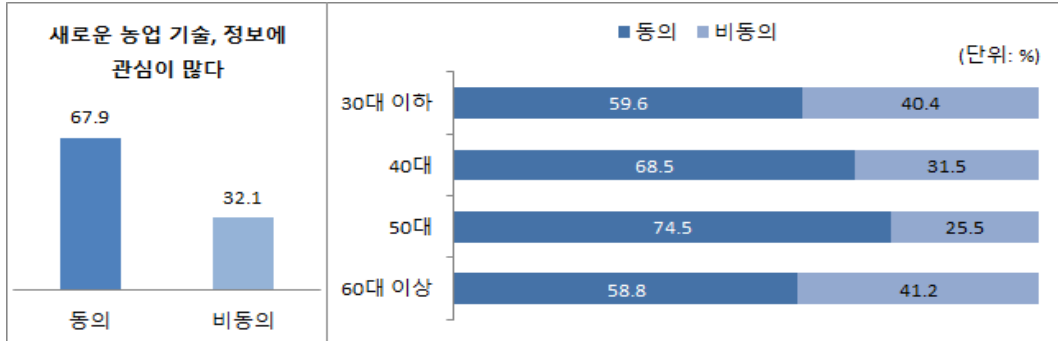
〈그림 3-23〉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자부심을 느낀다



다) 새로운 농업 기술, 정보에 관심이 많다

○ ‘새로운 농업 기술, 정보에 관심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67.9%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 7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68.5%, 30대 이하 59.6%, 60대 이상 58.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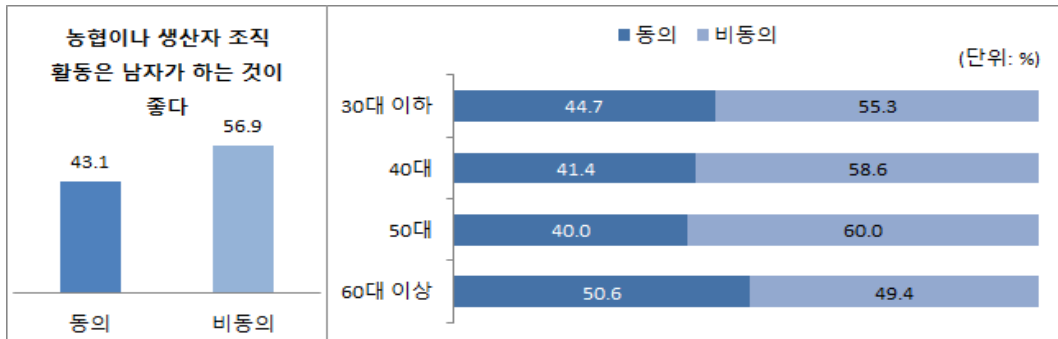
〈그림 3-24〉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새로운 농업 기술, 정보에 관심이 많다



라)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 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 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비율은 43.1%이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0.6%, 30대 이하 44.7%, 40대 41.4%, 50대가 40.0% 순으로 나타나 50대가 조직활동에서의 성역할 분리에 가장 비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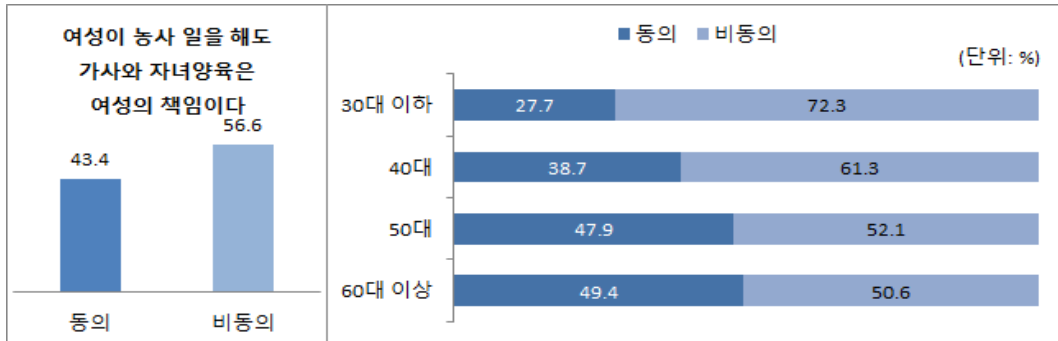
〈그림 3-25〉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 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마) 여성이 농사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

- ‘여성이 농사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56.6%이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49.4%, 50대 47.9%, 40대 38.7%, 30대 이하 27.75%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사와 자녀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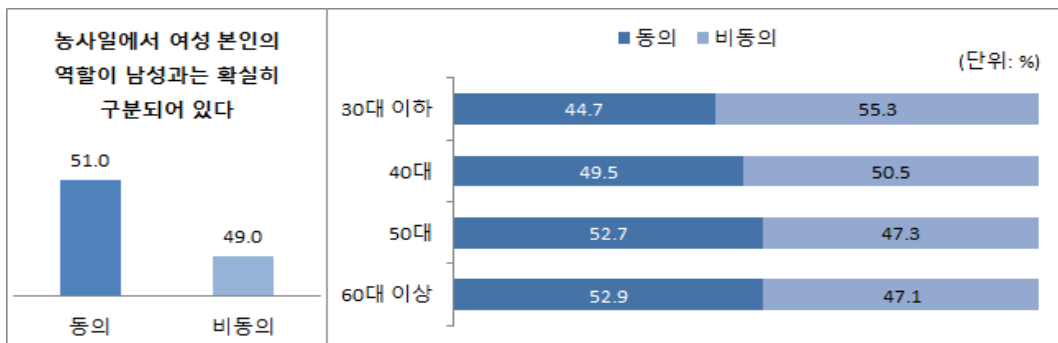
〈그림 3-26〉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여성이 농사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



바) 농사일에서 여성 본인의 역할이 남성과는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 ‘농사일에서 여성 본인의 역할이 남성과는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51.0%이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2.9%, 50대 52.7%, 40대 49.5%, 30대 이하 44.7%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적 성역할 개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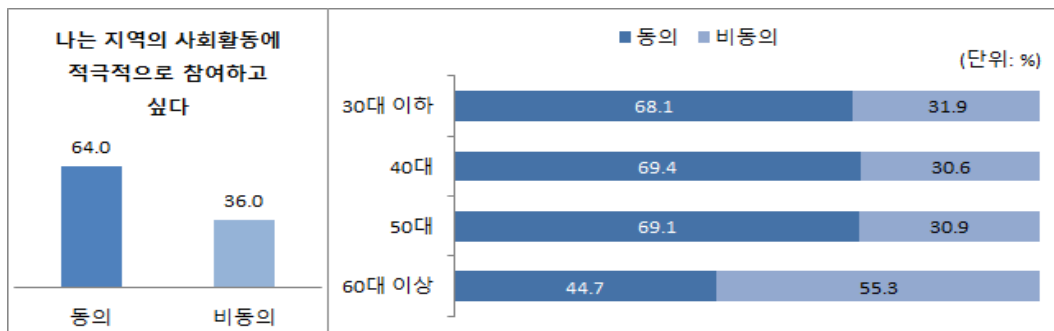
〈그림 3-27〉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농사일에서 여성 본인의 역할이 남성과는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사) 나는 지역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 ‘나는 지역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64.0%이며, 연령별로는 40대가 69.4%, 50대 69.1%, 30대 이하 68.1%, 60대 이상 44.7% 순으로 50대 이하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는 비슷한 수준인데 비해 60대 이상은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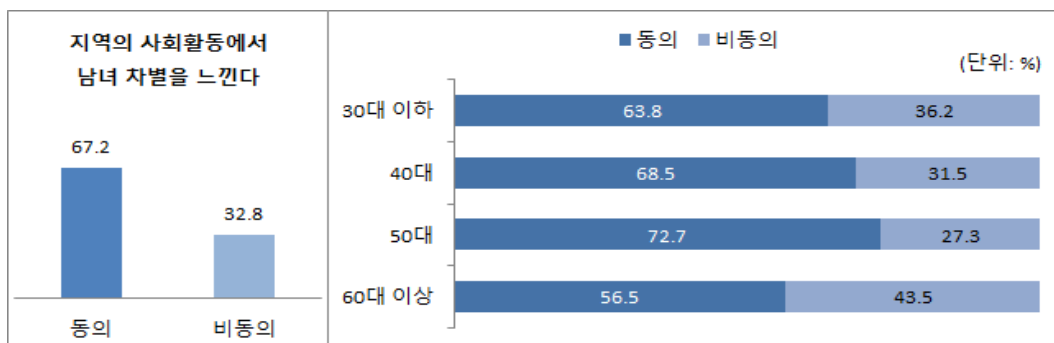
〈그림 3-28〉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나는 지역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아) 지역의 사회활동에서 남녀 차별을 느낀다

- ‘지역의 사회활동에서 남녀 차별을 느낀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67.2%이며, 연령 별로는 50대 72.7%, 40대 68.5%, 30대 이하 63.8%, 60대 이상 56.5% 순으로 50대가 성차별의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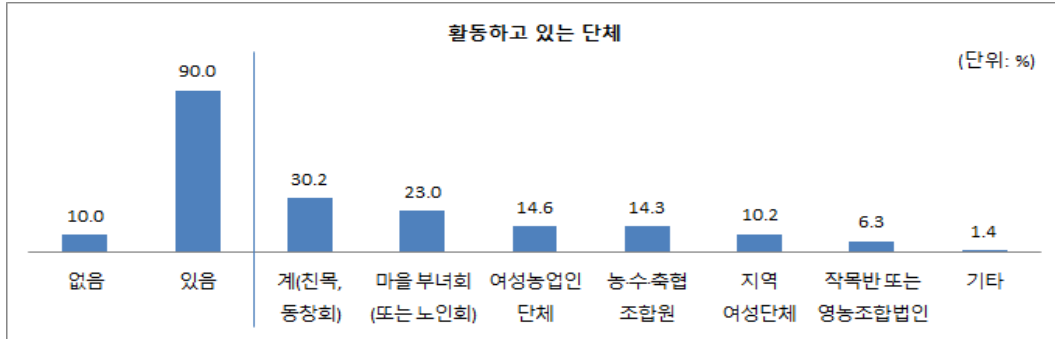
〈그림 3-29〉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 - 지역의 사회활동에서 남녀 차별을 느낀다



8) 현재 가입·활동하고 있는 단체(다중응답)

- 현재 가입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경우는 90.0%이며, 현재 가입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 유형은 계(친목, 동창회) 모임이 30.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 부녀회(또는 노인회) 23.0%, 여성농업인단체 14.6%, 농·수·축협 조합원 14.3%, 지역 여성단체 10.2%,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6.3%, 기타 1.4%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0〉 현재 가입·활동하고 있는 단체(다중응답)



- 연령별로 살펴보면, 현재 가입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경우는 50대 94.6%, 40대 90.5%, 60대 이상 89.7%, 30대 이하 56.4%로 50대 단체 활동률이 가장 높음
- 참여하고 있는 단체 유형은 모든 연령대에서 계(친목, 동창회) 모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을 부녀회(또는 노인회), 여성농업인단체(한여농,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전여농 등), 농·수·축협 조합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42〉 현재 활동 단체(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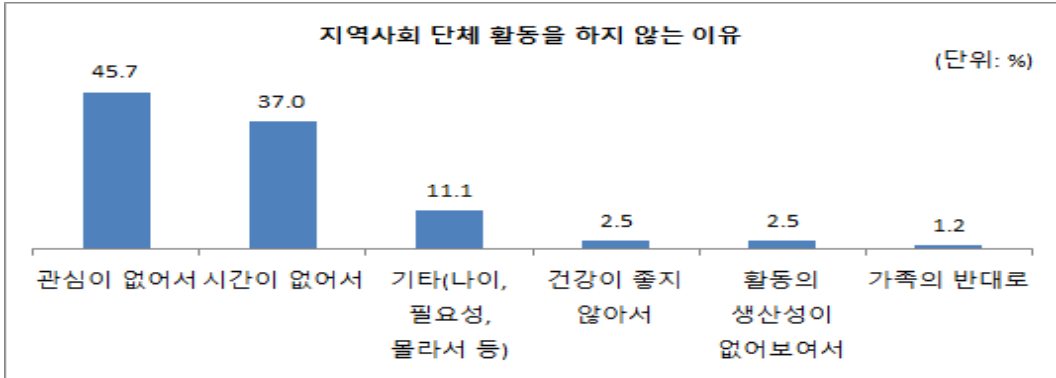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현재 가입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무엇입니까?(다중응답)										
	마을 부녀회 (또는 노인회)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수·축협 조합원	여성농업인단체 (한여농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전여농 등)	지역 여성단체	계 (친목 동창회)	기타	계	있음	없음	계
30대 이하	5 (16.1)	2 (6.5)	4 (12.9)	4 (12.9)	2 (6.5)	13 (41.9)	1 (3.2)	31 (100.0)	31 (56.4)	24 (43.6)	55 (100.0)
40대	44 (23.0)	16 (8.4)	22 (11.5)	29 (15.2)	17 (8.9)	61 (31.9)	2 (1.0)	191 (100.0)	191 (90.5)	20 (9.5)	211 (100.0)
50대	83 (22.7)	21 (5.8)	55 (15.1)	61 (16.7)	47 (12.9)	94 (25.8)	4 (1.1)	365 (100.0)	365 (94.6)	21 (5.4)	386 (100.0)
60대 이상	35 (25.2)	7 (5.0)	23 (16.5)	12 (8.6)	8 (5.8)	51 (36.7)	3 (2.2)	139 (100.0)	139 (89.7)	16 (10.3)	155 (100.0)
계	167 (23.0)	46 (6.3)	104 (14.3)	106 (14.6)	74 (10.2)	219 (30.2)	10 (1.4)	726 (100.0)	726 (90.0)	81 (10.3)	807 (100.0)

9) 지역사회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지역사회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4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 37.0%, 기타(나이, 필요성, 몰라서 등) 11.1%, 건강이 좋지 않아서 2.5%, 활동의 생산성이 없어보여서 2.5%, 가족의 반대로 1.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1〉 지역사회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상은 관심이 없어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가 많았고, 30대 이하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관심이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남

〈표 3-43〉 지역사회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역사회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χ^2
	관심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족의 반대로	활동의 생산성이 없어 보여서	기타 (나이, 필요성, 몰라서 등)	계	
30대 이하	7(29.2)	10(41.7)	0(0.0)	1(4.2)	0(0.0)	6(25.0)	24(100.0)	22.718
40대	11(55.0)	7(35.0)	0(0.0)	0(0.0)	1(5.0)	1(5.0)	20(100.0)	
50대	11(52.4)	9(42.9)	0(0.0)	0(0.0)	1(4.8)	0(0.0)	21(100.0)	
60대 이상	8(50.0)	4(25.0)	2(12.5)	0(0.0)	0(0.0)	2(12.5)	16(100.0)	
계	37(45.7)	30(37.0)	2(2.5)	1(1.2)	2(2.5)	9(11.1)	81(100.0)	

* p<.05, ** p<.01, *** p<.001

다. 농업관련 교육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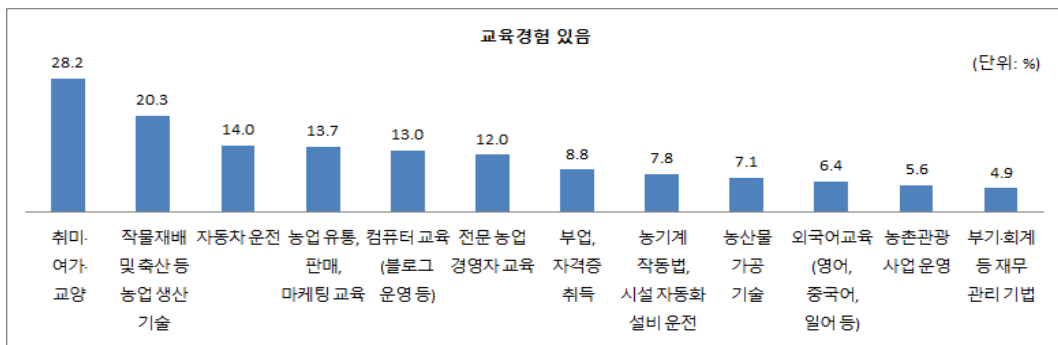
1) 농업관련 교육경험

○ 최근 3년 간 농업관련 교육경험은 취미·여가·교양이 2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20.3%, 자동차운전 14.0%,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13.7%, 컴퓨터 교육(블로그 운영 등) 13.0%,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12.0%, 부업, 자격증 취득 8.8%,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설비 운전 7.8%, 농산물 가공기술 7.1%, 외국어교육(영어, 중국어, 일어 등) 6.4%, 농촌관광사업 운영 5.6%, 부가·회계 등 재무관리 기법 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교육경험은 대체로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만 부가·회계 등 재무관리기법 교육, 부업 및 자격증 취득 교육, 외국어 교육은 30대가 가장 높고, 농촌관광사업 운영 교육과 취미·여가·교양 교육은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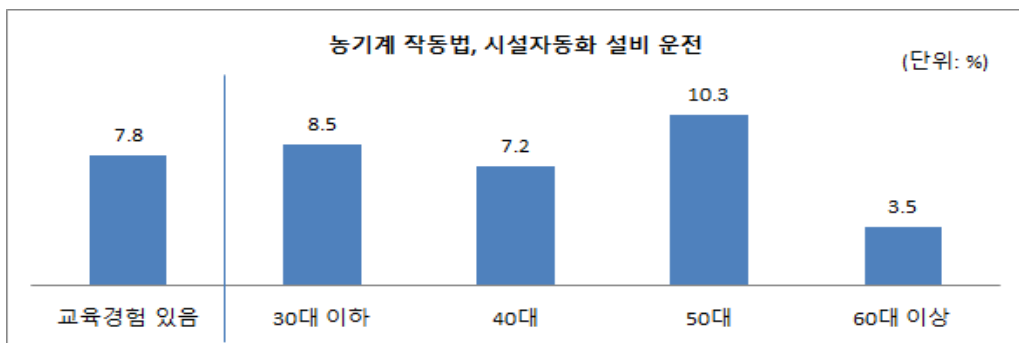
〈그림 3-32〉 농업관련 교육 경험



가)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 설비 운전

-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 설비 운전 교육 경험은 7.8%로 다소 낮은 편임
- 연령별로는 50대 10.3%, 30대 이하 8.5%, 40대 7.2%, 60대 이상 3.5% 순으로 50대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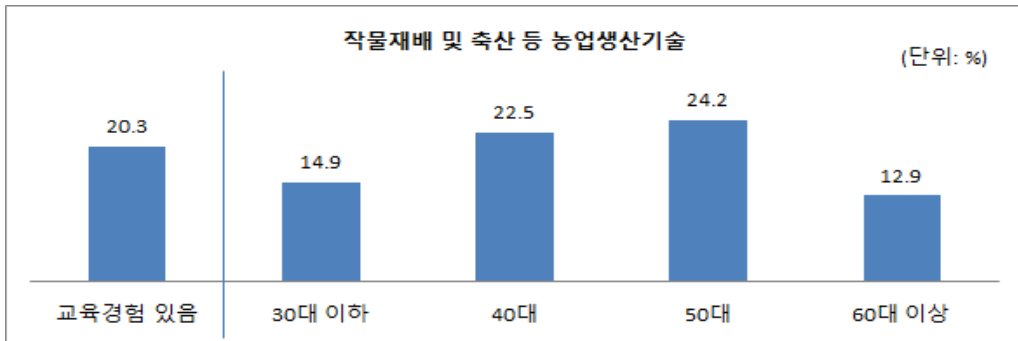
〈그림 3-33〉 교육경험 -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 설비 운전



나)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교육 경험은 20.3%로 다른 교육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임. 연령별로는 50대 24.2%, 40대가 22.5%, 30대 이하 14.9%, 60대가 12.9% 순으로 50대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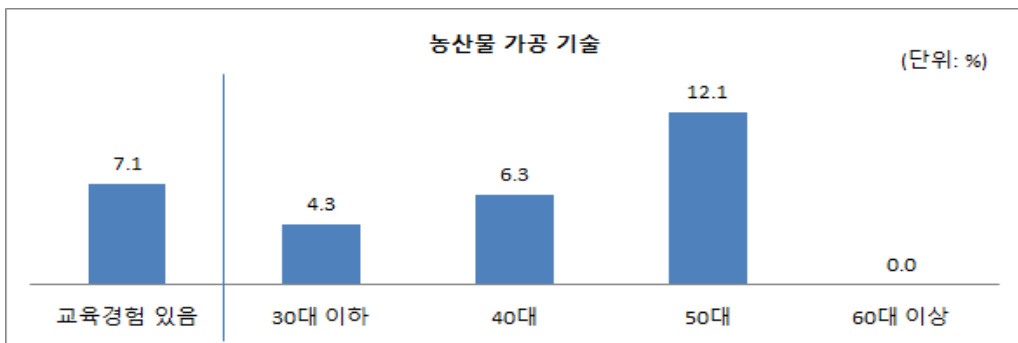
〈그림 3-34〉 교육경험 -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다) 농산물 가공 기술

- 농산물 가공 기술 교육 경험은 7.1%로 낮은 편이며, 연령별로는 50대 12.1%, 40대가 6.3%, 30대 이하 4.3%, 60대가 0.0% 순으로 50대가 가장 많음

〈그림 3-35〉 교육경험 - 농산물 가공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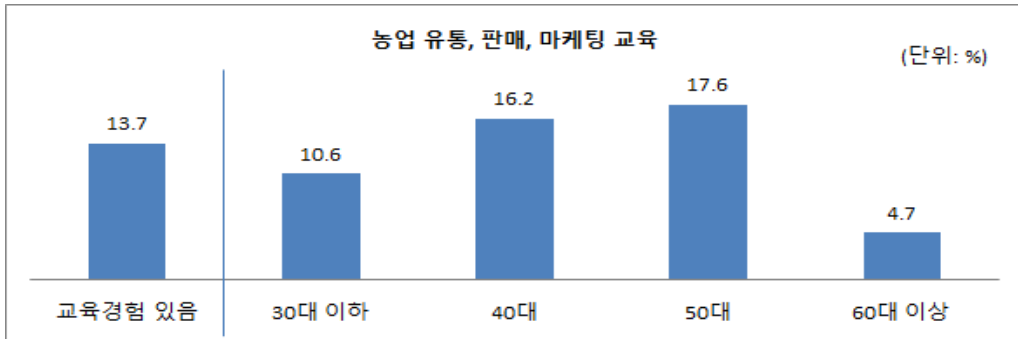


라)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경험은 13.7%로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임

- 연령별로는 50대 17.6%, 40대가 16.2%, 30대 이하 10.6%, 60대가 4.7% 순으로 50대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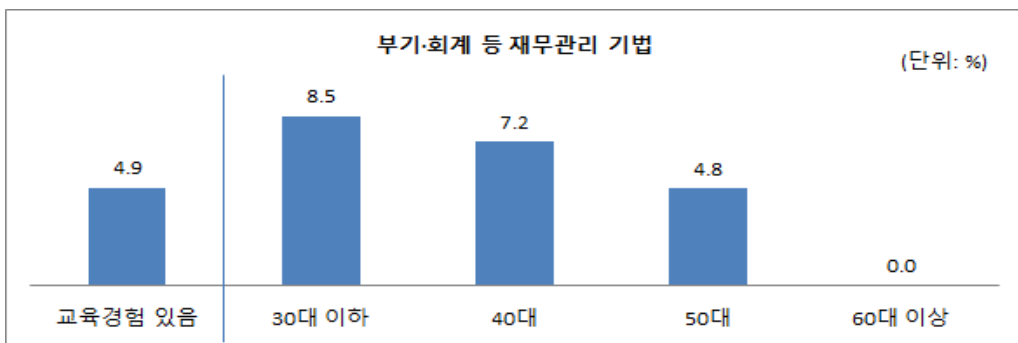
〈그림 3-36〉 교육경험 -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마) 부가·회계 등 재무관리 기법

- 부가·회계 등 재무관리 기법 교육 경험은 4.9%로 12개 교육과정 중 가장 낮음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8.5%, 40대 7.2%, 50대 4.8% 순으로 30대 이하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교육경험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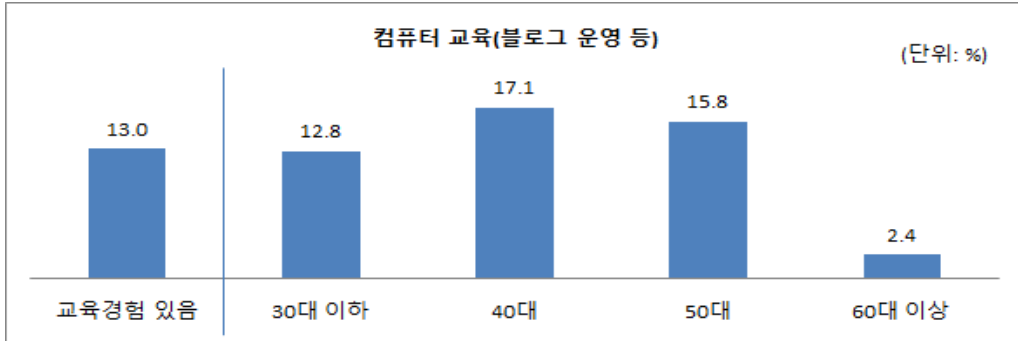
〈그림 3-37〉 교육경험 - 부기·회계 등 재무관리 기법



바) 컴퓨터 교육(블로그 운영 등)

- 컴퓨터(블로그 운영 등) 교육 경험은 13.0%로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임
 - 연령별로는 50대 15.8%, 40대가 17.1%, 30대 이하 12.8%, 60대가 2.4% 순으로 50대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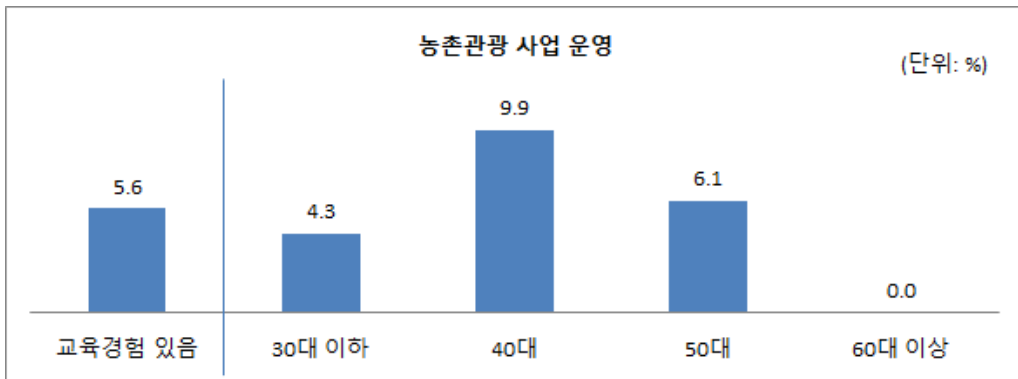
〈그림 3-38〉 교육경험 - 컴퓨터 교육(블로그 운영 등)



사) 농촌관광 사업 운영

- 농촌관광 사업 운영 교육 경험은 5.6%로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매우 낮음
 - 연령별로는 40대 9.9%, 50대가 6.1%, 30대 이하 4.3% 순으로 40대가 가장 많고, 60대는 경험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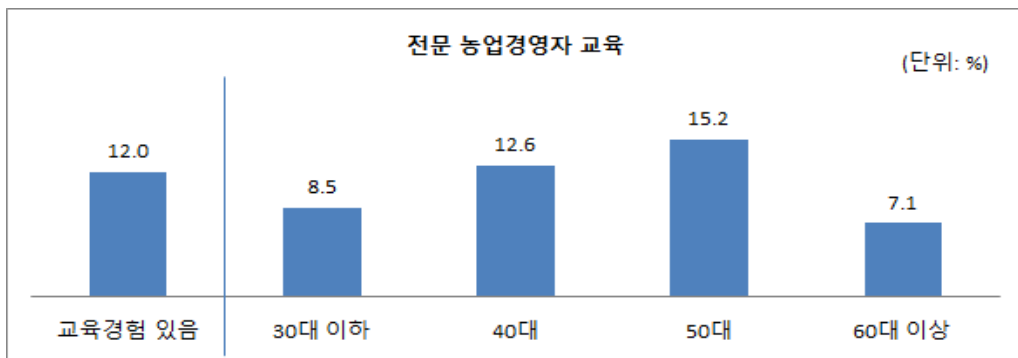
〈그림 3-39〉 교육경험 - 농촌관광 사업 운영



아)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경험은 12.0%로 12개 교육과정 중 중간 수준임
 - 연령별로는 50대 15.2%, 40대가 12.6%, 30대 이하 8.5%, 60대가 7.1% 순으로 50대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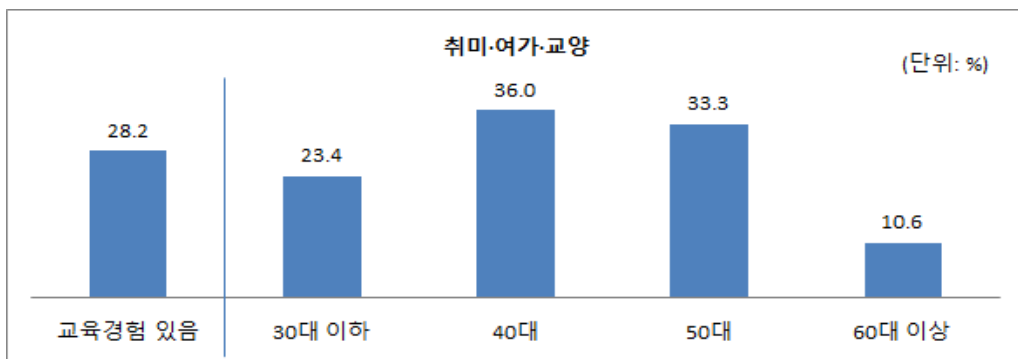
〈그림 3-40〉 교육경험 -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자) 취미·여가·교양

- 취미·여가·교양 교육 경험은 28.2%이며, 12개 교육과정 중 가장 높음
 - 연령별로는 40대 36.0%, 50대가 33.3%, 30대 이하 23.4%, 60대가 10.6% 순으로 40대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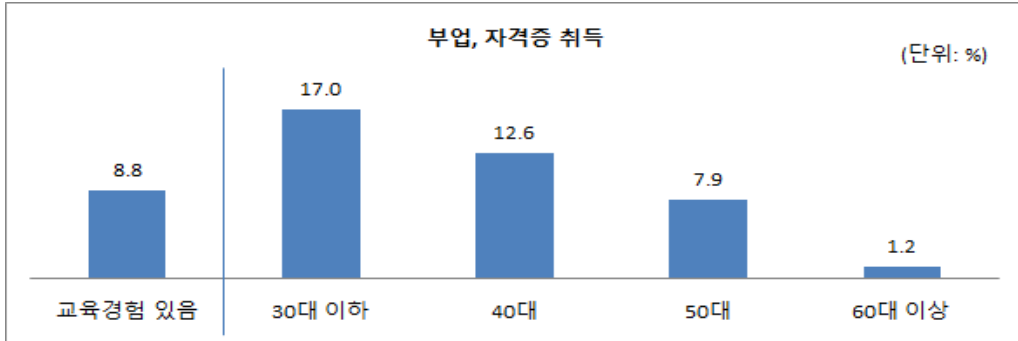
〈그림 3-41〉 교육경험 - 취미·여가·교양



차) 부업, 자격증 취득

- 부업, 자격증 취득 교육 경험은 8.8%로 12개 교육과정 중 중간 수준임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17.0%, 40대 12.6%, 50대 7.9%, 60대 이상 1.2% 순으로 30대 이하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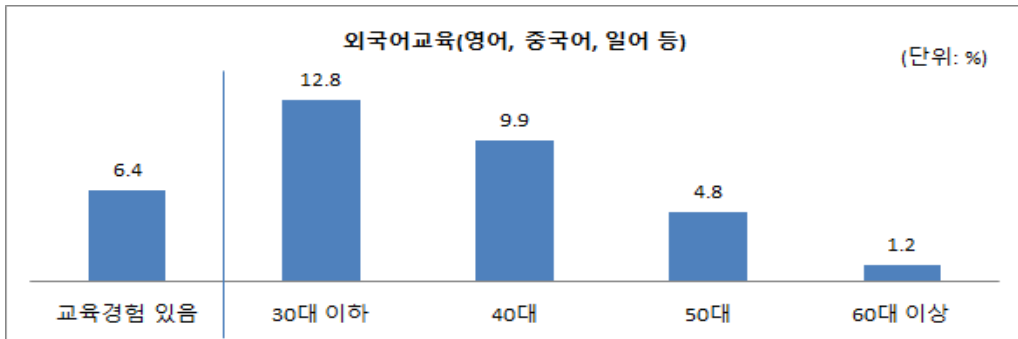
〈그림 3-42〉 교육경험 - 부업, 자격증 취득



카) 외국어교육(영어, 중국어, 일어 등)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 교육 경험은 6.4%이며,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임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12.8%, 40대 9.9%, 50대 4.8%, 60대 이상 1.2% 순으로 30대 이하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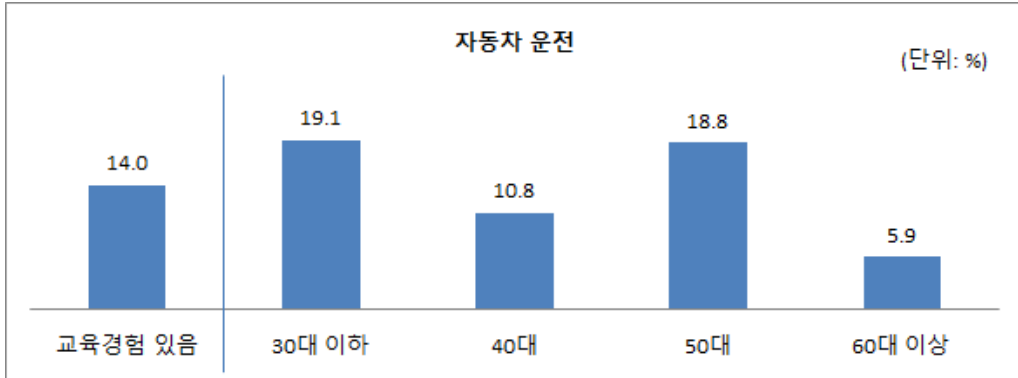
〈그림 3-43〉 교육경험 - 외국어교육(영어, 중국어, 일어 등)



타) 자동차 운전

- 자동차 운전 교육 경험은 14.0%이며,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임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19.1%, 50대 18.8%, 40대 10.8%, 60대 이상 5.9% 순으로 30대 이하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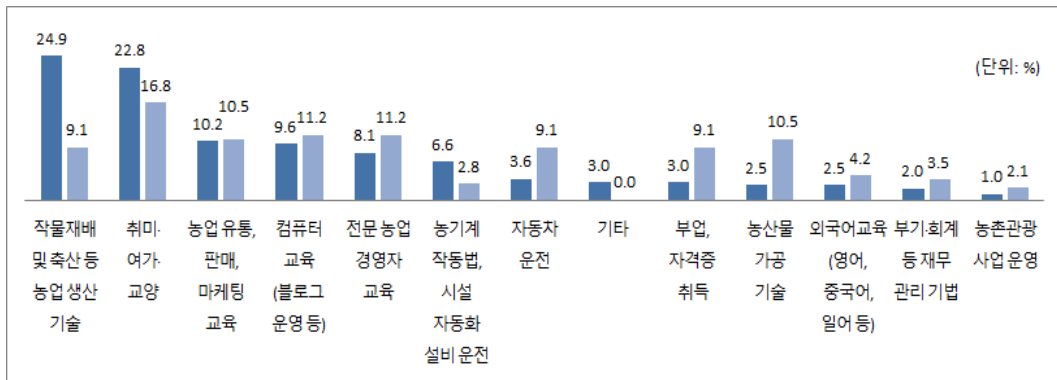
〈그림 3-44〉 교육경험 - 자동차 운전



2) 가장 유익했던 교육

- 가장 유익했던 교육 1순위는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 생산 기술 교육이 24.9%로 가장 많고, 2순위는 취미·여가·교양 교육이 16.8%로 가장 많음

〈그림 3-45〉 가장 유익했던 교육 - 1순위, 2순위



- 가장 유익했던 교육 1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와 50대는 취미·여가·교양 교육이 가장 많고, 40대와 60대 이상은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교육으로 나타남

〈표 3-44〉 가장 유익했던 교육 - 1순위

단위 : 명(%)

구분	가장 유익했던 교육 - 1순위							χ^2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 설비 운전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 생산기술	농산물 가공 기술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부가·회계 등 재무 관리 기법	컴퓨터 교육 (블로그 운영 등)	농촌관광 사업 운영	
30대 이하	2(9.5)	4(19.0)	0(0.0)	1(4.8)	0(0.0)	3(14.3)	0(0.0)	47.741
40대	3(5.1)	16(27.1)	1(1.7)	3(5.1)	3(5.1)	9(15.3)	2(3.4)	
50대	5(5.4)	22(23.9)	4(4.3)	14(15.2)	1(1.1)	5(5.4)	0(0.0)	
60대 이상	3(12.0)	7(28.0)	0(0.0)	2(8.0)	0(0.0)	2(8.0)	0(0.0)	
계	13(6.6)	49(24.9)	5(2.5)	20(10.2)	4(2.0)	19(9.6)	2(1.0)	
구분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취미·여가 교양	부업 자격증 취득	외국어교육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자동차 운전	기타	계	
30대 이하	2(9.5)	5(23.8)	1(4.8)	2(9.5)	1(4.8)	0(0.0)	21(100.0)	
40대	1(1.7)	14(23.7)	4(6.8)	2(3.4)	0(0.0)	1(1.7)	59(100.0)	
50대	8(8.7)	23(25.0)	1(1.1)	1(1.1)	5(5.4)	3(3.3)	92(100.0)	
60대 이상	5(20.0)	3(12.0)	0(0.0)	0(0.0)	1(4.0)	2(8.0)	25(100.0)	
계	16(8.1)	45(22.8)	6(3.0)	5(2.5)	7(3.6)	6(3.0)	197(100.0)	

* p<.05, ** p<.01, *** p<.001

○ 가장 유익했던 교육 2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부업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이 가장 많고, 40대와 50대는 취미·여가·교양 교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은 취미·여가·교양 교육,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이 같은 비율로 가장 많음

〈표 3-45〉 가장 유익했던 교육 - 2순위

단위 : 명(%)

구분	가장 유익했던 교육 - 2순위							χ^2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 설비 운전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 생산기술	농산물 가공 기술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부가·회계 등 재무 관리 기법	컴퓨터 교육(블로그 운영 등)	농촌관광 사업 운영	
30대 이하	2(11.1)	1(5.6)	1(5.6)	1(5.6)	2(11.1)	2(11.1)	0(0.0)	41.453
40대	1(2.5)	2(5.0)	5(12.5)	5(12.5)	1(2.5)	6(15.0)	1(2.5)	
50대	1(1.4)	7(9.6)	9(12.3)	9(12.3)	2(2.7)	8(11.0)	2(2.7)	
60대 이상	0(0.0)	3(25.0)	0(0.0)	0(0.0)	0(0.0)	0(0.0)	0(0.0)	
계	4(2.8)	13(9.1)	15(10.5)	15(10.5)	5(3.5)	16(11.2)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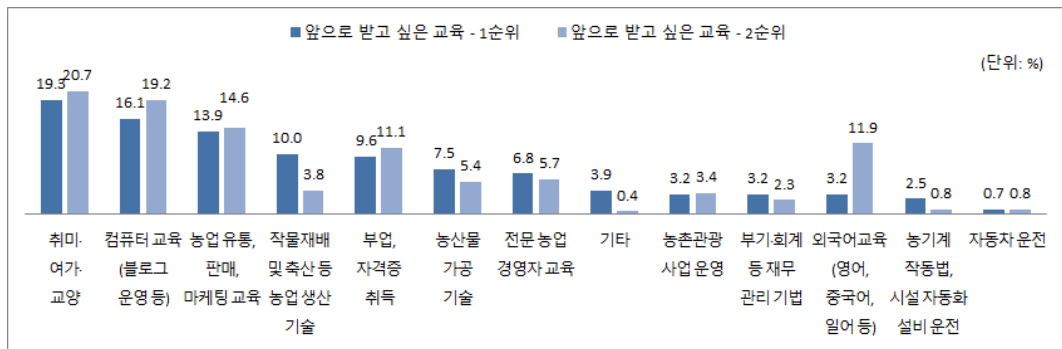
구분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취미·여가· 교양	부업, 자격증 취득	외국어교육 (영어·중국어, 일어 등)	자동차 운전	기타	계	
30대 이하	0(0.0)	1(5.6)	5(27.8)	1(5.6)	2(11.1)	0(0.0)	18(100.0)	41.453
40대	6(15.0)	8(20.0)	3(7.5)	2(5.0)	0(0.0)	0(0.0)	40(100.0)	
50대	7(9.6)	12(16.4)	4(5.5)	2(2.7)	10(13.7)	0(0.0)	73(100.0)	
60대 이상	3(25.0)	3(25.0)	1(8.3)	1(8.3)	1(8.3)	0(0.0)	12(100.0)	
계	16(11.2)	24(16.8)	13(9.1)	6(4.2)	13(9.1)	0(0.0)	143(100.0)	

* p<.05, ** p<.01, *** p<.001

3)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1순위와 2순위는 취미·여가·교양 교육이 각각 19.3%,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46〉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 1순위, 2순위



- 연령별로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1순위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와 40대는 컴퓨터 교육 (블로그 운영 등)이 가장 많고, 50대는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이 가장 많으며, 60대 이상은 취미·여가·교양 교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6〉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 1순위

구분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 1순위							χ^2
	농기계 작동법, 시설 자동화 설비 운전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 생산 기술	농산물 가공 기술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부기·회계 등 재무 관리 기법	컴퓨터 교육 (블로그 운영 등)	농촌관광 사업 운영	
30대 이하	1(2.9)	4(11.8)	2(5.9)	3(8.8)	1(2.9)	7(20.6)	0(0.0)	77.047***

단위 : 명(%)

40대	1(1.2)	4(4.8)	1(1.2)	7(8.4)	7(8.4)	19(22.9)	4(4.8)	77.047***
50대	2(1.6)	13(10.4)	17(13.6)	24(19.2)	1(0.8)	15(12.0)	5(4.0)	
60대 이상	3(7.9)	7(18.4)	1(2.6)	5(13.2)	0(0.0)	4(10.5)	0(0.0)	
계	7(2.5)	28(10.0)	21(7.5)	39(13.9)	9(3.2)	45(16.1)	9(3.2)	
구분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취미·여가 교양	부업 자격증 취득	외국어교육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자동차 운전	기타	계	
30대 이하	2(5.9)	4(11.8)	6(17.6)	2(5.9)	1(2.9)	1(2.9)	34(100.0)	
40대	2(2.4)	16(19.3)	15(18.1)	3(3.6)	1(1.2)	3(3.6)	83(100.0)	
50대	13(10.4)	22(17.6)	5(4.0)	4(3.2)	0(0.0)	4(3.2)	125(100.0)	
60대 이상	2(5.3)	12(31.6)	1(2.6)	0(0.0)	0(0.0)	3(7.9)	38(100.0)	
계	19(6.8)	54(19.3)	27(9.6)	9(3.2)	2(0.7)	11(3.9)	280(100.0)	

* p<.05, ** p<.01, *** p<.001

- 연령별로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2위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취미·여가 교양 교육이 가장 많고, 40대는 컴퓨터(블로그 운영 등) 교육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 교육이 가장 많으며, 운영 등이 가장 많고, 50대는 컴퓨터(블로그 운영 등) 교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7〉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 2순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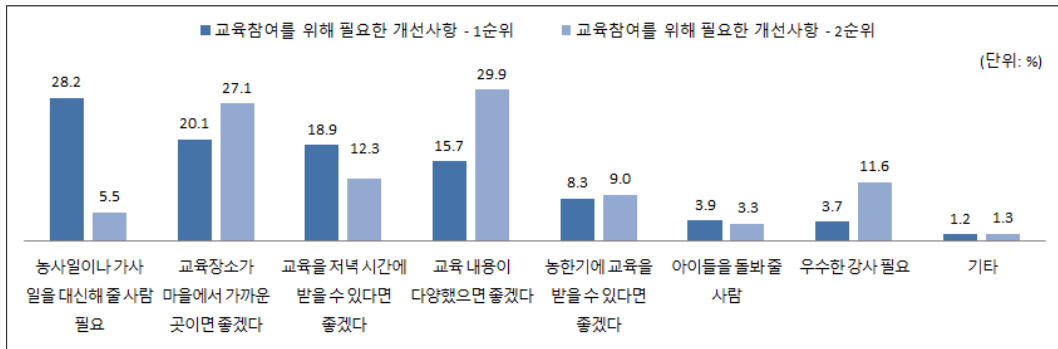
구분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 2순위							χ^2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 설비 운전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 생산기술	농산물 가공 기술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부가·회계 등 재무 관리 기법	컴퓨터 교육(블로그 운영 등)	농촌관광 사업 운영	
30대 이하	0(0.0)	1(3.1)	3(9.4)	4(12.5)	2(6.3)	5(15.6)	0(0.0)	42.019
40대	0(0.0)	4(5.1)	1(1.3)	13(16.5)	1(1.3)	16(20.3)	3(3.8)	
50대	1(0.8)	3(2.5)	8(6.8)	16(13.6)	1(0.8)	26(22.0)	6(5.1)	
60대 이상	1(3.1)	2(6.3)	2(6.3)	5(15.6)	2(6.3)	3(9.4)	0(0.0)	
계	2(0.8)	10(3.8)	14(5.4)	38(14.6)	6(2.3)	50(19.2)	9(3.4)	
구분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취미·여가 교양	부업 자격증 취득	외국어교육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자동차 운전	기타	계	
30대 이하	1(3.1)	7(21.9)	2(6.3)	6(18.8)	1(3.1)	0(0.0)	32(100.0)	
40대	4(5.1)	14(17.7)	7(8.9)	16(20.3)	0(0.0)	0(0.0)	79(100.0)	
50대	8(6.8)	24(20.3)	17(14.4)	7(5.9)	0(0.0)	1(0.8)	118(100.0)	
60대 이상	2(6.3)	9(28.1)	3(9.4)	2(6.3)	1(3.1)	0(0.0)	32(100.0)	
계	15(5.7)	54(20.7)	29(11.1)	31(11.9)	2(0.8)	1(0.4)	261(100.0)	

* p<.05, ** p<.01, *** p<.001

4) 교육참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 교육참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1순위로는 농사일이나 가사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8.2%로 가장 많고, 2순위로는 교육 내용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29.9%로 가장 많음

〈그림 3-47〉 교육참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 1순위, 2순위



- 교육참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1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농사일이나 가사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표 3-48〉 교육참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 1순위

단위 : 명(%)

구분	비교적 편하게 각종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순위									χ^2
	농사일이나 가사 일을 대신해 줄 사람 필요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	교육을 저녁 시간에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교육 장소가 마을에서 가까운 곳이면 좋겠다	농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교육 내용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우수한 강사 필요	기타	계	
30대 이하	11(23.4)	8(17.0)	4(8.5)	5(10.6)	3(6.4)	7(14.9)	7(14.9)	2(4.3)	47(100.0)	75.048 ***
40대	32(28.8)	5(4.5)	15(13.5)	19(17.1)	10(9.0)	26(23.4)	4(3.6)	0(0.0)	111(100.0)	
50대	45(27.3)	2(1.2)	43(26.1)	37(22.4)	14(8.5)	21(12.7)	3(1.8)	0(0.0)	165(100.0)	
60대 이상	27(31.8)	1(1.2)	15(17.6)	21(24.7)	7(8.2)	10(11.8)	1(1.2)	3(3.5)	85(100.0)	
계	115(28.2)	16(3.9)	77(18.9)	82(20.1)	34(8.3)	64(15.7)	15(3.7)	5(1.2)	408(100.0)	

* p<.05, ** p<.01, *** p<.001

- 교육참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2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에서는 교육

내용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60대 이상에서는 교육장소가 마을에서 가까운 곳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표 3-49〉 교육참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 2순위

단위 : 명(%)

구분	비교적 편하게 각종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순위									χ^2
	농사일이 나 가사 일을 대신해 줄 사람 필요	아이들을 돌봐 줄 사람	교육을 저녁 시간에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교육 장소가 마을에서 가까운 곳이면 좋겠다	농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교육 내용이 다양했으 면 좋겠다	우수한 강사 필요	기타	계	
30대 이하	3(6.8)	2(4.5)	3(6.8)	13(29.5)	4(9.1)	16(36.4)	3(6.8)	0(0.0)	44(100.0)	33.077*
40대	9(8.3)	5(4.6)	12(11.1)	21(19.4)	7(6.5)	33(30.6)	18(16.7)	3(2.8)	108(100.0)	
50대	6(3.7)	4(2.4)	24(14.6)	39(23.8)	17(10.4)	53(32.3)	21(12.8)	0(0.0)	164(100.0)	
60대 이상	4(4.9)	2(2.4)	10(12.2)	35(42.7)	8(9.8)	17(20.7)	4(4.9)	2(2.4)	82(100.0)	
계	22(5.5)	13(3.3)	49(12.3)	108(27.1)	36(9.0)	119(29.9)	46(11.6)	5(1.3)	39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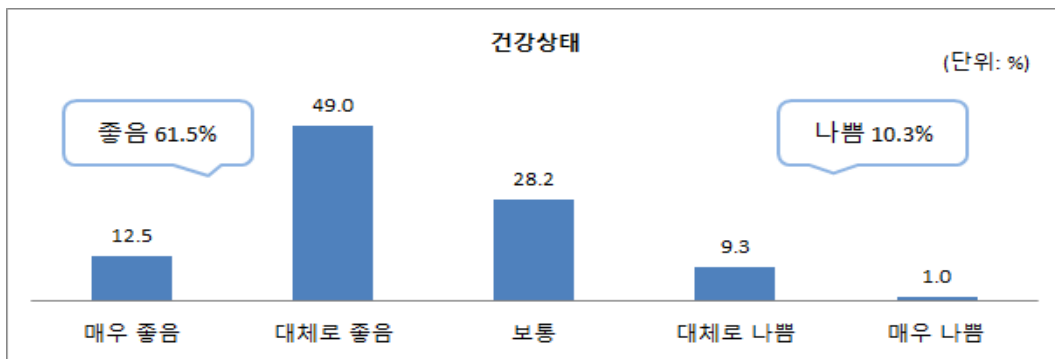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라. 건강 및 복지 현황

1) 건강상태

- 건강상태는 좋음(대체로 좋음 49.0%, 매우 좋음 12.5%) 61.5%, 보통 28.2%, 나쁨(대체로 나쁨 9.3%, 매우 나쁨 1.0%) 10.3% 순으로 건강상태가 좋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그림 3-48〉 건강상태



-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좋음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30대 이하는 대체로 좋음 40.4%, 매우 좋음 31.9%로 건강상태가 좋음 비율이 72.3%이며, 건강상태가 좋음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50〉 건강상태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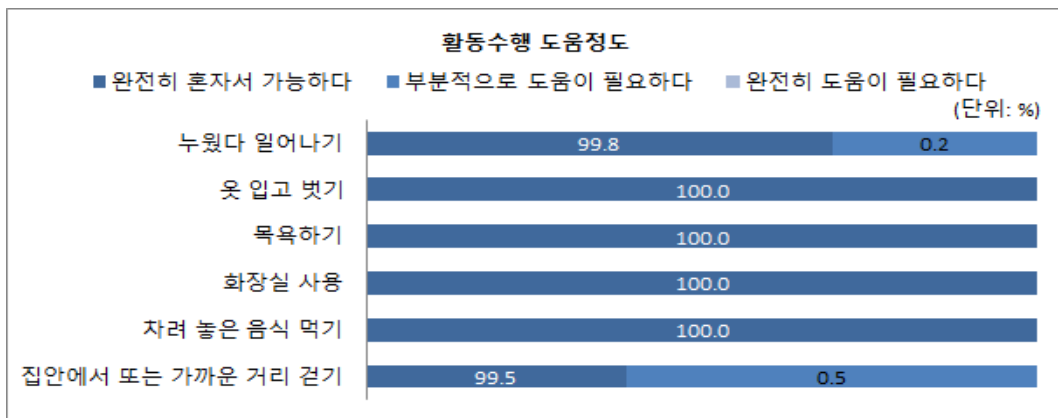
구분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χ^2
	매우 좋음	대체로 좋음	보통	대체로 나쁨	매우 나쁨	계	
30대 이하	15(31.9)	19(40.4)	12(25.5)	1(2.1)	0(0.0)	47(100.0)	45.111 ***
40대	14(12.6)	60(54.1)	32(28.8)	4(3.6)	1(0.9)	111(100.0)	
50대	18(10.9)	88(53.3)	43(26.1)	15(9.1)	1(0.6)	165(100.0)	
60대 이상	4(4.7)	33(38.8)	28(32.9)	18(21.2)	2(2.4)	85(100.0)	
계	51(12.5)	200(49.0)	115(28.2)	38(9.3)	4(1.0)	408(100.0)	

* p<.05, ** p<.01, *** p<.001

2) 활동수행 도움정도

- 활동수행 도움정도는 완전히 혼자서 가능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옷입고 벗기,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 차려놓은 음식 먹기는 완전히 혼자서 가능한 비율이 100%이며, 누웠다 일어나기는 99.8%, 집안에서 또는 가까운 거리 걷기도 99.5%로 모든 활동이 완전히 혼자서 가능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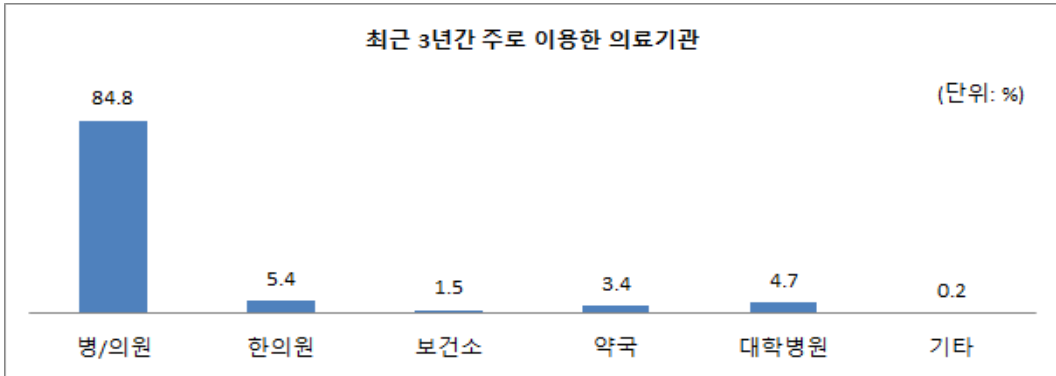
〈그림 3-49〉 활동수행 도움정도



3) 최근 3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 최근 3년 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84.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의원 5.4%, 대학병원 4.7%, 약국 3.4%, 보건소 1.5%, 기타 0.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0〉 최근 3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 연령별로도 모두 병/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병/의원 다음으로는 30대 이하는 한의원, 40대는 한의원과 약국, 50대는 한의원, 60대 이상은 대학병원으로 나타남

〈표 3-51〉 최근 3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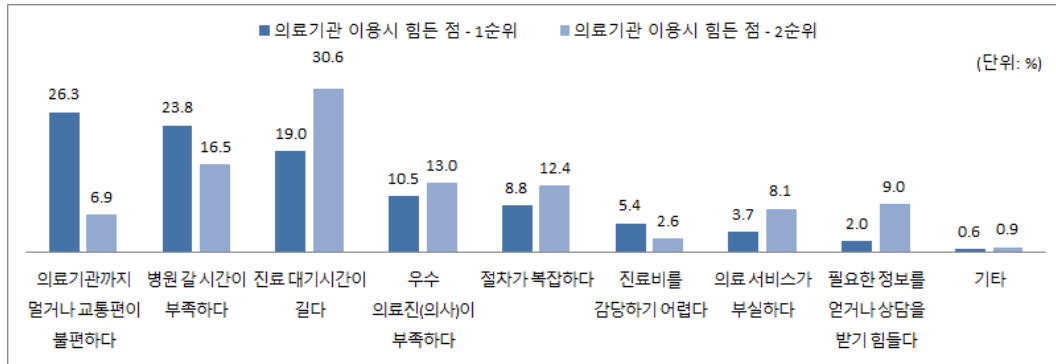
구분	최근 3년간 귀하가 아플 때 주로 이용한 곳은 어디입니까?							χ^2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약국	대학병원	기타	계	
30대 이하	42(89.4)	3(6.4)	1(2.1)	1(2.1)	0(0.0)	0(0.0)	47(100.0)	14.506
40대	100(90.1)	4(3.6)	0(0.0)	4(3.6)	3(2.7)	0(0.0)	111(100.0)	
50대	134(81.2)	11(6.7)	4(2.4)	7(4.2)	8(4.8)	1(0.6)	165(100.0)	
60대 이상	70(82.4)	4(4.7)	1(1.2)	2(2.4)	8(9.4)	0(0.0)	85(100.0)	
계	346(84.8)	22(5.4)	6(1.5)	14(3.4)	19(4.7)	1(0.2)	408(100.0)	

* p<.05, ** p<.01, *** p<.001

4) 의료기관 이용시 힘든 점 - 1순위, 2순위

- 의료기관 이용시 힘든 점 1순위는 의료기관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이 26.3%로 가장 많고, 2순위는 진료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이 30.6%로 가장 많음

〈그림 3-51〉 의료기관 이용시 힘든 점 - 1순위, 2순위



- 연령별 의료기관 이용시 힘든 점 1순위는 30대 이하, 40대, 60대 이상에서는 의료기관까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많고, 50대는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많음

〈표 3-52〉 의료기관 이용시 힘든 점 - 1순위

단위 : 명(%)

구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1순위										χ^2
	의료기관까지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하다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하다	의료 서비스가 부실하다	우수 의료진(의사)이 부족하다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진료 대기시간이 길다	진료비가 복잡하다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기 힘들다	기타	계	
30대 이하	15(37.5)	9(22.5)	0(0.0)	6(15.0)	2(5.0)	5(12.5)	1(2.5)	2(5.0)	0(0.0)	40(100.0)	30.074
40대	25(26.3)	22(23.2)	4(4.2)	12(12.6)	5(5.3)	18(18.9)	7(7.4)	2(2.1)	0(0.0)	95(100.0)	
50대	25(17.1)	37(25.3)	9(6.2)	14(9.6)	8(5.5)	32(21.9)	17(11.6)	3(2.1)	1(0.7)	146(100.0)	
60대 이상	28(38.9)	16(22.2)	0(0.0)	5(6.9)	4(5.6)	12(16.7)	6(8.3)	0(0.0)	1(1.4)	72(100.0)	
계	93(26.3)	84(23.8)	13(3.7)	37(10.5)	19(5.4)	67(19.0)	31(8.8)	7(2.0)	2(0.6)	353(100.0)	

* p<.05, ** p<.01, *** p<.001

- 연령별 의료기관 이용시 힘든 점 2순위는 모든 연령대에서 진료대기시간이 길다는 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3〉 의료기관 이용시 힘든 점 - 2순위

단위 : 명(%)

구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2순위										χ^2
	의료기관 까지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하다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하다	의료 서비스가 부실하다	우수 의료진 (의사)이 부족하다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진료 대기시간 이 길다	절차가 복잡하다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기 힘들다	기타	계	
30대 이하	4(10.0)	7(17.5)	3(7.5)	7(17.5)	1(2.5)	14(35.0)	1(2.5)	3(7.5)	0(0.0)	40(100.0)	30.174
40대	5(5.5)	17(18.7)	5(5.5)	11(12.1)	1(1.1)	29(31.9)	14(15.4)	9(9.9)	0(0.0)	91(100.0)	
50대	6(4.2)	27(18.9)	15(10.5)	17(11.9)	6(4.2)	39(27.3)	14(9.8)	16(11.2)	3(2.1)	143(100.0)	
60대 이상	9(12.5)	6(8.3)	5(6.9)	10(13.9)	1(1.4)	24(33.3)	14(19.4)	3(4.2)	0(0.0)	72(100.0)	
계	24(6.9)	57(16.5)	28(8.1)	45(13.0)	9(2.6)	106(30.6)	43(12.4)	31(9.0)	3(0.9)	34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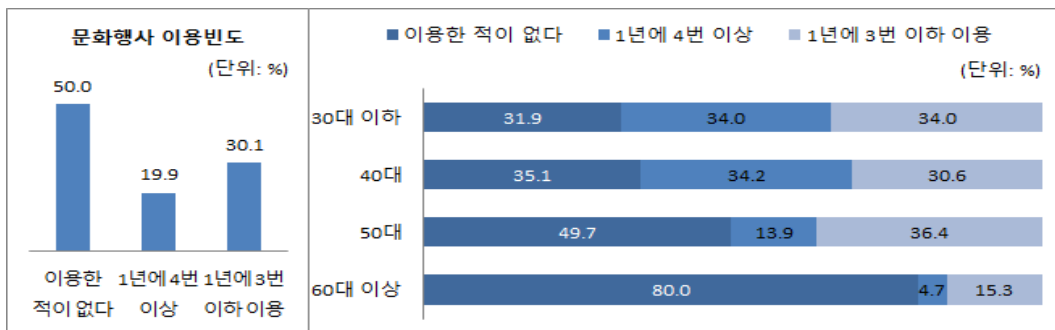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5)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의 이용

가) 문화행사 이용빈도

- 지난 1년간 문화행사를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가 절반정도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용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아졌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용빈도가 높은 비율이 높아짐
 - 지난 1년 간 문화행사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50.0%로 가장 많고, 1년에 3번 이하 30.1%, 1년에 4번 이상 19.9%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60대 이상은 80.0%가 지난 1년 간 문화행사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년에 4번 이상 이용한 경우는 40대 34.2%, 30대 이하 34.0%로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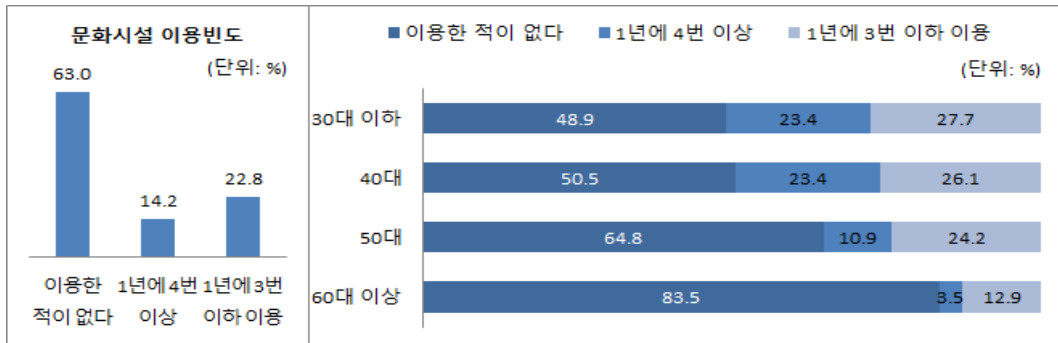
〈그림 3-52〉 문화행사 이용빈도



나) 문화시설 이용빈도

- 지난 1년 간 문화시설 이용빈도 역시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63.0%로 가장 많고, 1년에 3번 이하 22.8%, 1년에 4번 이상 14.2% 순으로 나타남
 - － 연령별로는 이용경험이 없는 비율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60대 이상은 83.5%가 지난 1년 간 문화시설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1년에 3번 이하 또는 4번 이상 이용한 비율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증가하여 30대 이하의 이용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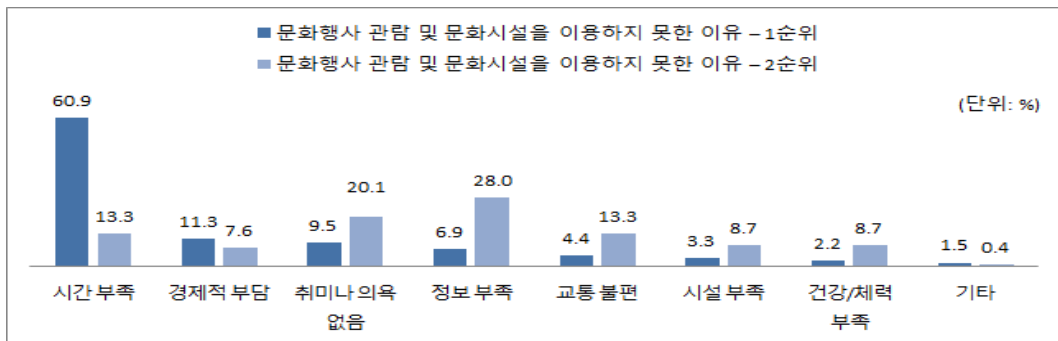
〈그림 3-53〉 문화시설 이용빈도



다) 문화행사 관람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 문화행사 관람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1순위는 시간부족이 60.9%로 가장 많고, 2순위는 정보 부족이 28.0%로 가장 많음

〈그림 3-54〉 문화행사 관람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 1순위, 2순위



○ 문화행사 관람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1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시간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시간부족은 50대 65.8%, 40대 63.9%, 60대 이상 55.4%, 30대 이하 48.0% 순으로 나타남

〈표 3-54〉 문화행사 관람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 1순위

단위 : 명(%)

구분	문화행사를 관람하거나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순위									χ^2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불편	시설 부족	정보 부족	취미나 의욕 없음	건강/체력 부족	기타	계	
30대 이하	2(8.0)	12(48.0)	2(8.0)	4(16.0)	2(8.0)	2(8.0)	0(0.0)	1(4.0)	25(100.0)	42.360 **
40대	9(14.8)	39(63.9)	3(4.9)	0(0.0)	4(6.6)	5(8.2)	0(0.0)	1(1.6)	61(100.0)	
50대	14(12.3)	75(65.8)	2(1.8)	5(4.4)	9(7.9)	5(4.4)	2(1.8)	2(1.8)	114(100.0)	
60대 이상	6(8.1)	41(55.4)	5(6.8)	0(0.0)	4(5.4)	14(18.9)	4(5.4)	0(0.0)	74(100.0)	
계	31(11.3)	167(60.9)	12(4.4)	9(3.3)	19(6.9)	26(9.5)	6(2.2)	4(1.5)	274(100.0)	

* p<.05, ** p<.01, *** p<.001

○ 문화행사 관람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2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에서는 정보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취미나 의욕이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표 3-55〉 문화행사 관람 및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 2순위

단위 : 명(%)

구분	문화행사를 관람하거나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순위									χ^2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불편	시설 부족	정보 부족	취미나 의욕 없음	건강/체력 부족	기타	계	
30대 이하	3(12.5)	5(20.8)	3(12.5)	3(12.5)	6(25.0)	4(16.7)	0(0.0)	0(0.0)	24(100.0)	27.858
40대	1(1.7)	11(18.6)	12(20.3)	8(13.6)	15(25.4)	9(15.3)	3(5.1)	0(0.0)	59(100.0)	
50대	12(11.1)	13(12.0)	11(10.2)	7(6.5)	35(32.4)	21(19.4)	9(8.3)	0(0.0)	108(100.0)	
60대 이상	4(5.5)	6(8.2)	9(12.3)	5(6.8)	18(24.7)	19(26.0)	11(15.1)	1(1.4)	73(100.0)	
계	20(7.6)	35(13.3)	35(13.3)	23(8.7)	74(28.0)	53(20.1)	23(8.7)	1(0.4)	264(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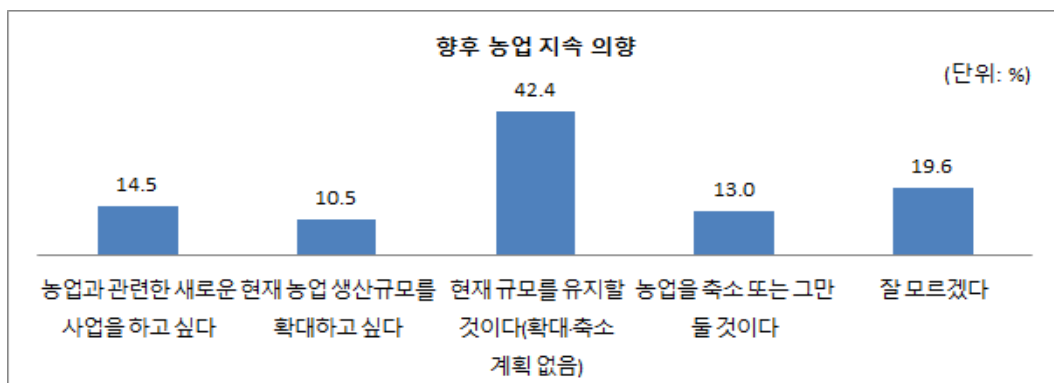
3.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수요 분석결과

가. 정책수요 및 향후계획

1) 향후 농업 지속 의향

- 향후 농업 지속 의향은 확대 또는 축소 없이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42.4%로 가장 많음
 - －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 19.6%, 농업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다 14.5%, 농업을 축소 또는 그만 둘 것이다 13.0%, 현재 농업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싶다 10.5% 순으로 규모 유지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55〉 향후 농업 지속 의향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상은 현재 규모 유지 의향이 가장 많고 30대 이하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 다만 축소 의향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고, 농업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은 50대 이하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6〉 향후 농업 지속 의향

단위 : 명(%)

구분	향후 농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χ^2
	농업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	현재 농업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싶다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 (확대·축소 계획 없음)	농업을 축소 또는 그만 둘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30대 이하	8(17.0)	7(14.9)	12(25.5)	4(8.5)	16(34.0)	47(100.0)	43.949 ***
40대	20(18.0)	11(9.9)	45(40.5)	10(9.0)	25(22.5)	111(100.0)	
50대	29(17.6)	21(12.7)	73(44.2)	16(9.7)	26(15.8)	165(100.0)	
60대 이상	2(2.4)	4(4.7)	43(50.6)	23(27.1)	13(15.3)	85(100.0)	
계	59(14.5)	43(10.5)	173(42.4)	53(13.0)	80(19.6)	40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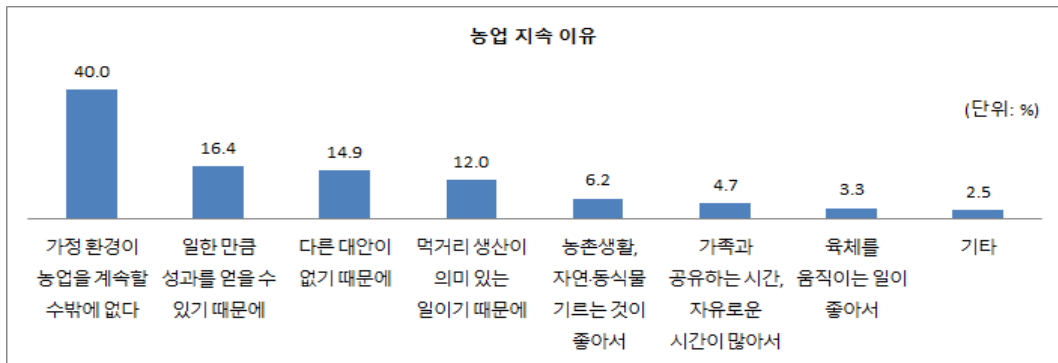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 농업 지속 이유

○ 농업 지속 이유는 가정환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이는 앞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
유가 배우자의 본가(시댁), 남편, 자신의 본가(친정)가 농업에 종사하는 환경적 영향이
라는 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농업을 계속하려는 이유로는 가정환경이 농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6.4%,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14.9%, 먹거리 생산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12.0%, 농촌
생활, 자연·동식물 기르는 것이 좋아서 6.2%,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 자유로운 시간
이 많아서 4.7%, 육체를 움직이는 일이 좋아서 3.3%, 기타 2.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6〉 농업 지속 이유



- 연령별로 농업 지속 이유도 모든 연령대에서 가정환경이 농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만 30대 이하는 가정환경이 농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와 함께 일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표 3-57〉 농업 지속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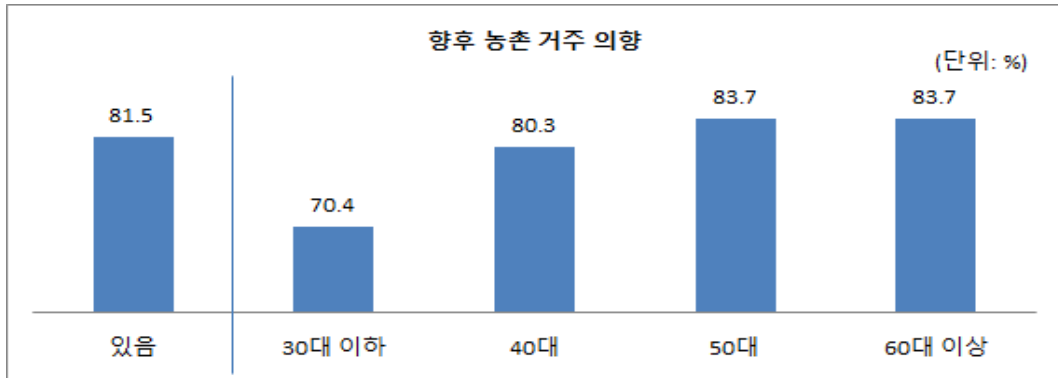
구분	농업을 계속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χ^2
	가정 환경이 농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	먹거리 생산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농촌생활, 자연·동 식물 기르는 것이 좋아서	일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서	육체를 움직이는 일이 좋아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타	계	
30대 이하	8 (29.6)	5 (18.5)	2 (7.4)	8 (29.6)	0 (0.0)	0 (0.0)	3 (11.1)	1 (3.7)	27 (100.0)	24.951
40대	28 (36.8)	9 (11.8)	7 (9.2)	13 (17.1)	7 (9.2)	2 (2.6)	8 (10.5)	2 (2.6)	76 (100.0)	
50대	48 (39.0)	14 (11.4)	6 (4.9)	19 (15.4)	5 (4.1)	3 (2.4)	25 (20.3)	3 (2.4)	123 (100.0)	
60대 이상	26 (53.1)	5 (10.2)	2 (4.1)	5 (10.2)	1 (2.0)	4 (8.2)	5 (10.2)	1 (2.0)	49 (100.0)	
계	110 (40.0)	33 (12.0)	17 (6.2)	45 (16.4)	13 (4.7)	9 (3.3)	41 (14.9)	7 (2.5)	275 (100.0)	

* p<.05, ** p<.01, *** p<.001

3) 향후 농촌 거주 의향

- 응답자의 81.5%는 앞으로도 계속 농촌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50대가 각각 83.7%, 40대가 80.3%, 30대 이하 70.4%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향후 농촌 거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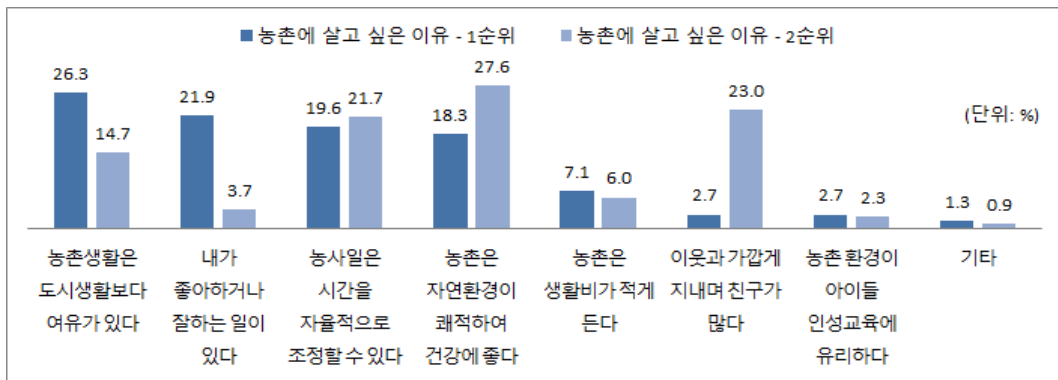
〈그림 3-57〉 향후 농촌 거주 의향



4) 농촌에서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 농촌에서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1순위는 ‘농촌생활은 도시생활보다 여유가 있다’는 이유가 26.3%로 가장 많고, 2순위는 ‘농촌은 자연환경이 쾌적하여 건강에 좋다’는 이유가 27.6%로 가장 많음

〈그림 3-58〉 농촌에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 1순위, 2순위



- 농촌에서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1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에서는 ‘농촌 생활은 도시생활보다 여유가 있다’는 이유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이 있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8〉 농촌에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 1순위

단위 : 명(%)

구분	농촌에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순위									χ^2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이 있다	농촌은 생활비가 적게 든다	농촌 생활은 도시생활보다 여유가 있다	농촌은 자연 환경이 쾌적하여 건강에 좋다	농사일은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웃과 가깝게 지내며 친구가 많다	농촌 환경이 아이들 인성 교육에 유리하다	기타	계	
30대 이하	4(21.1)	1(5.3)	6(31.6)	3(15.8)	3(15.8)	0(0.0)	1(5.3)	1(5.3)	19(100.0)	19.488
40대	9(14.8)	6(9.8)	19(31.1)	13(21.3)	11(18.0)	0(0.0)	2(3.3)	1(1.6)	61(100.0)	
50대	20(19.4)	7(6.8)	27(26.2)	18(17.5)	23(22.3)	4(3.9)	3(2.9)	1(1.0)	103(100.0)	
60대 이상	16(39.0)	2(4.9)	7(17.1)	7(17.1)	7(17.1)	2(4.9)	0(0.0)	0(0.0)	41(100.0)	
계	49(21.9)	16(7.1)	59(26.3)	41(18.3)	44(19.6)	6(2.7)	6(2.7)	3(1.3)	224(100.0)	

* p<.05, ** p<.01, *** p<.001

○ 농촌에서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2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에서는 ‘농사일은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많고, 40대와 60대는 ‘농촌은 자연환경이 쾌적하여 건강에 좋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50대는 ‘농촌은 자연환경이 쾌적하여 건강에 좋다’는 이유와 함께 ‘이웃과 가깝게 지내며 친구가 많다’는 이유가 높게 나타남

〈표 3-59〉 농촌에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 - 2순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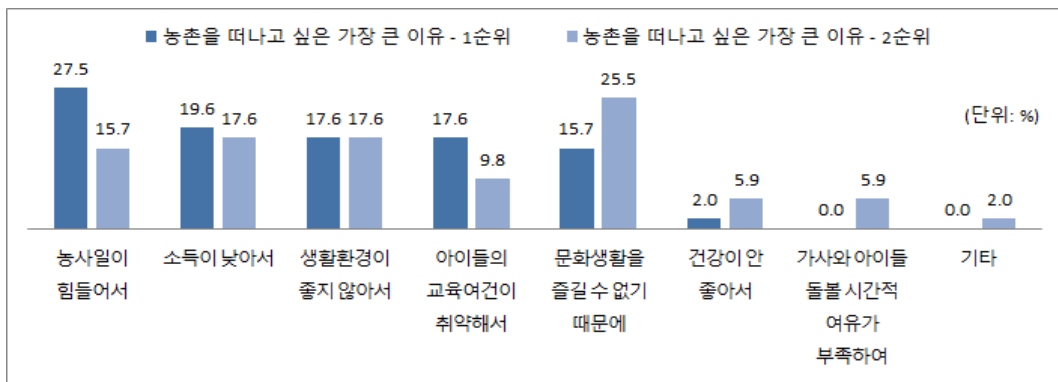
구분	농촌에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2순위									χ^2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이 있다	농촌은 생활비가 적게 든다	농촌 생활은 도시생활보다 여유가 있다	농촌은 자연 환경이 쾌적하여 건강에 좋다	농사일은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웃과 가깝게 지내며 친구가 많다	농촌 환경이 아이들 인성 교육에 유리하다	기타	계	
30대 이하	0(0.0)	3(17.6)	2(11.8)	3(17.6)	5(29.4)	3(17.6)	1(5.9)	0(0.0)	17(100.0)	25.905
40대	1(1.7)	6(10.0)	10(16.7)	17(28.3)	15(25.0)	8(13.3)	3(5.0)	0(0.0)	60(100.0)	
50대	4(4.0)	3(3.0)	17(16.8)	27(26.7)	21(20.8)	27(26.7)	1(1.0)	1(1.0)	101(100.0)	
60대 이상	3(7.7)	1(2.6)	3(7.7)	13(33.3)	6(15.4)	12(30.8)	0(0.0)	1(2.6)	39(100.0)	
계	8(3.7)	13(6.0)	32(14.7)	60(27.6)	47(21.7)	50(23.0)	5(2.3)	2(0.9)	217(100.0)	

* p<.05, ** p<.01, *** p<.001

5)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1순위는 ‘농사일이 힘들어서’가 27.5%로 가장 많고, 2순위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가 25.5%로 가장 많음
 - ‘농사 일이 힘들어서’는 연령증가와 함께 육체적 노동에 부담을 느끼는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는 40대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3-59〉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 1순위, 2순위



-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1순위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30대 이하는 ‘소득이 낮아서’가 37.5%로 가장 많고, 40대는 ‘아이들이 교육 여건이 취약해서’ 40.0%, 50대와 60대 이상은 ‘농사 일이 힘들어서’가 각각 35.0%, 37.5%로 가장 많음
 -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자녀의 보육과 양육이 집중된 40대 이하 연령에서는 소득과 교육여건에 대한 부담이 크고, 50대 이상은 연령증가와 함께 농업노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3-60〉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 1순위

단위 : 명(%)

구분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순위									χ^2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의 교육 여건이 취약해서	농사일이 힘들어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서	가사와 아이들 돌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건강이 안 좋아서	기타	계	
30대 이하	2(25.0)	2(25.0)	0(0.0)	1(12.5)	3(37.5)	0(0.0)	0(0.0)	0(0.0)	8(100.0)	20.814
40대	2(13.3)	6(40.0)	4(26.7)	1(6.7)	2(13.3)	0(0.0)	0(0.0)	0(0.0)	15(100.0)	
50대	4(20.0)	0(0.0)	7(35.0)	5(25.0)	4(20.0)	0(0.0)	0(0.0)	0(0.0)	20(100.0)	
60대 이상	1(12.5)	1(12.5)	3(37.5)	1(12.5)	1(12.5)	0(0.0)	1(12.5)	0(0.0)	8(100.0)	
계	9(17.6)	9(17.6)	14(27.5)	8(15.7)	10(19.6)	0(0.0)	1(2.0)	0(0.0)	51(100.0)	

* p<.05, ** p<.01, *** p<.001

○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2순위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30대 이하는 ‘아이들이 교육 여건이 취약해서’ 50.0%, 40대와 60대 이상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가 각각 33.3%, 50.0%로 가장 많았으며, 50대는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와 ‘소득이 낮아서’가 각각 25.0%로 가장 많음

〈표 3-61〉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 2순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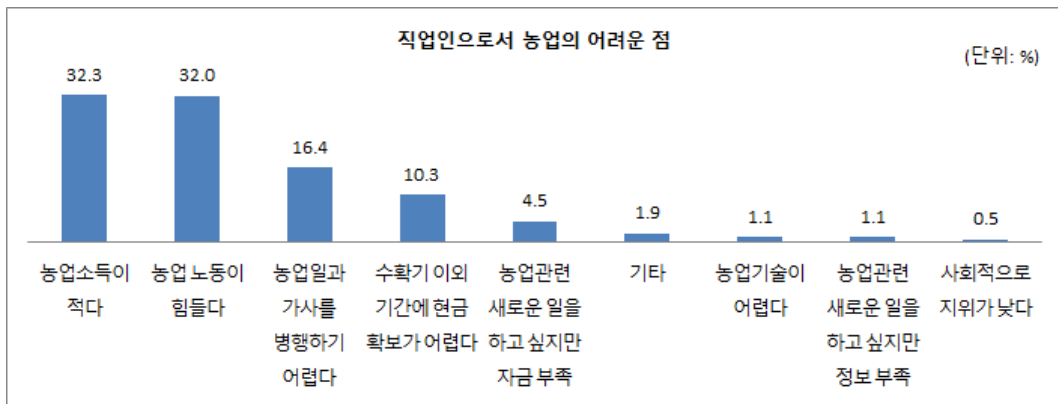
구분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2순위									χ^2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의 교육 여건이 취약해서	농사일이 힘들어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서	가사와 아이들 돌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건강이 안 좋아서	기타	계	
30대 이하	2 (25.0)	4 (50.0)	0 (0.0)	1 (12.5)	0 (0.0)	1 (12.5)	0 (0.0)	0 (0.0)	8(100.0)	33.188*
40대	1 (6.7)	0 (0.0)	4 (26.7)	5 (33.3)	2 (13.3)	2(13.3)	1 (6.7)	0 (0.0)	15(100.0)	
50대	5 (25.0)	1 (5.0)	3 (15.0)	3 (15.0)	5 (25.0)	0(0.0)	2 (10.0)	1 (5.0)	20(100.0)	
60대 이상	1 (12.5)	0 (0.0)	1 (12.5)	4 (50.0)	2 (25.0)	0(0.0)	0 (0.0)	0 (0.0)	8(100.0)	
계	9 (17.6)	5 (9.8)	8 (15.7)	13 (25.5)	9 (17.6)	3(5.9)	3 (5.9)	1 (2.0)	51(100.0)	

* p<.05, ** p<.01, *** p<.001

6) 직업인으로서 농업의 어려운 점

- 농업을 하면서 직업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적은 소득인 것으로 나타남
- 직업인으로 농업의 어려운 점은 ‘농업소득이 적다’가 32.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업 노동이 힘들다’ 32.0%, ‘농업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어렵다’ 16.4%, ‘수확기 이외 기간에 현금 확보가 어렵다’ 10.3%, ‘농업관련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만 자금 부족’ 4.5%, ‘기타’ 1.9%, ‘농업기술이 어렵다’ 1.1%, ‘농업관련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만 정보 부족’ 1.1%,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0.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0〉 직업인으로서 농업의 어려운 점



- 연령별로도 50대 이하에서는 적은 소득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힘든 농업 노동, 농업과 가사노동의 병행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힘든 노동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적은 소득, 농업과 가사노동 병행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50대 이하에서는 ‘농업소득이 적다’ 30대 이하 31.8%, 40대 31.1%, 50대 3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적은 농업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힘든 농업 노동, 농업과 가사노동의 병행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은 ‘농업 노동이 힘들다’ 44.9%, ‘농업소득이 적다’ 23.1%, ‘농업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어렵다’ 16.7%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힘든 농업 노동에 대한 부담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2〉 직업인으로서 농업을 하기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직업인으로서 농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χ^2
	농업 노동이 힘들다	농업소득이 적다	농업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어렵다	농업기술이 어렵다	수확기 이외 기간에 현금 확보가 어렵다	농업관련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만 자금 부족	농업관련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만 정보 부족	
30대 이하	11(25.0)	14(31.8)	8(18.2)	0(0.0)	7(15.9)	1(2.3)	0(0.0)	31.734
40대	28(27.2)	32(31.1)	20(19.4)	3(2.9)	10(9.7)	8(7.8)	2(1.9)	
50대	47(30.7)	58(37.9)	21(13.7)	1(0.7)	13(8.5)	7(4.6)	2(1.3)	
60대 이상	35(44.9)	18(23.1)	13(16.7)	0(0.0)	9(11.5)	1(1.3)	0(0.0)	
계	121(32.0)	122(32.3)	62(16.4)	4(1.1)	39(10.3)	17(4.5)	4(1.1)	
구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기타	계	χ^2	어려운 점이 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계	
30대 이하	1(2.3)	2(4.5)	44(100.0)	31.565	44(93.6)	3(6.4)	47(100.0)	
40대	0(0.0)	0(0.0)	103(100.0)		103(92.8)	8(7.2)	111(100.0)	
50대	1(0.7)	3(2.0)	153(100.0)		153(92.7)	12(7.3)	165(100.0)	
60대 이상	0(0.0)	2(2.6)	78(100.0)		78(91.8)	7(8.2)	85(100.0)	
계	2(0.5)	7(1.9)	378(100.0)		378(92.6)	30(7.4)	40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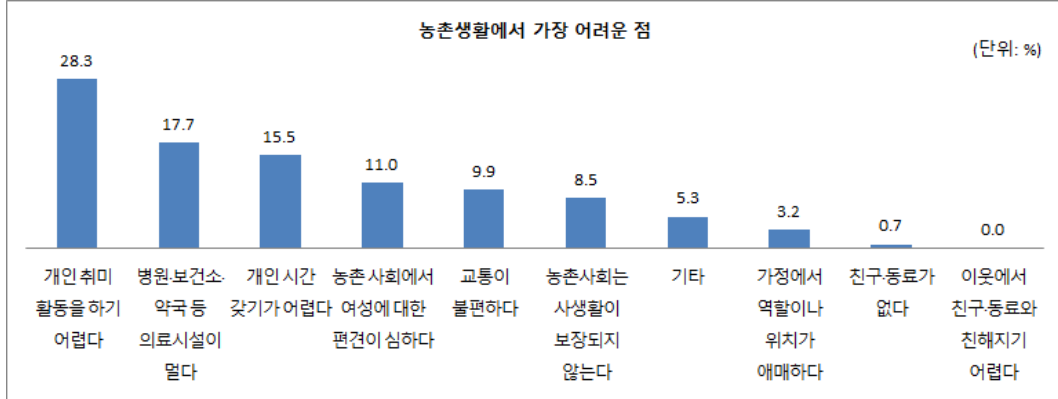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7) 농촌생활의 어려운 점

○ 농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개인 취미활동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 농촌생활의 어려운 점으로는 ‘개인 취미 활동을 하기 어렵다’가 2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병원·보건소·약국 등 의료시설이 멀다’ 17.7%, ‘개인 시간 갖기가 어렵다’ 15.5%, ‘농촌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11.0%, ‘교통이 불편하다’ 9.9%, ‘농촌사회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8.5%, ‘기타’ 5.3%, ‘가정에서 역할이나 위치가 애매하다’ 3.2%, ‘친구·동료가 없다’ 0.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1〉 농촌생활의 어려운 점



〈표 3-63〉 농촌생활의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농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χ^2
	교통이 불편하다	병원·보건소·약국 등 의료시설이 멀다	농촌사회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개인 시간 갖기가 어렵다	개인 취미 활동을 하기 어렵다	이웃에서 친구·동료와 친해지기 어렵다	친구·동료가 없다	가정에서 역할이나 위치가 애매하다	
30대 이하	3(8.6)	3(8.6)	2(5.7)	8(22.9)	10(28.6)	0(0.0)	1(2.9)	2(5.7)	
40대	7(9.1)	5(6.5)	10(13.0)	15(19.5)	19(24.7)	0(0.0)	0(0.0)	5(6.5)	
50대	8(7.2)	14(12.6)	10(9.0)	17(15.3)	40(36.0)	0(0.0)	1(0.9)	2(1.8)	
60대 이상	10(16.7)	28(46.7)	2(3.3)	4(6.7)	11(18.3)	0(0.0)	0(0.0)	0(0.0)	
계	28(9.9)	50(17.7)	24(8.5)	44(15.5)	80(28.3)	0(0.0)	2(0.7)	9(3.2)	
구분	농촌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기타	계	χ^2		어려운 점이 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계	69.852***
30대 이하	4(11.4)	2(5.7)	35(100.0)	62.827***		35(74.5)	12(25.5)	47(100.0)	
40대	11(14.3)	5(6.5)	77(100.0)			77(69.4)	34(30.6)	111(100.0)	
50대	12(10.8)	7(6.3)	111(100.0)			111(67.3)	54(32.7)	165(100.0)	
60대 이상	4(6.7)	1(1.7)	60(100.0)			60(70.6)	25(29.4)	85(100.0)	
계	31(11.0)	15(5.3)	283(100.0)			283(69.4)	125(30.6)	40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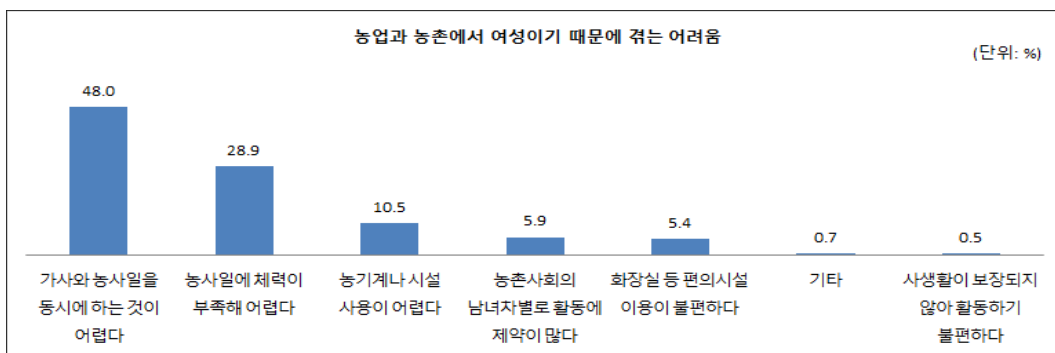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는 개인 취미활동이 어려운 점과 개인 시간을 갖기 어려운 점, 60대 이상에서는 의료시설이 멀다는 점과 개인 취미활동이 어려운 점이 가장 높음
 - ‘개인 취미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30대 이하 28.6%, 40대 24.7%, 50대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인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는 30대 이하 22.9%, 40대 19.5%, 50대 15.3%로 높게 나타나 힘든 농사일로 인한 취미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은 ‘병원·보건소·약국 등 의료시설이 멀다’ 46.7%, ‘개인 취미활동을 하기 어렵다’ 18.3%, ‘교통이 불편하다’ 16.7% 순으로 의료시설이 멀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남

8)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

-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으로 겪는 어려움으로는 가사노동과 농사일의 병행 부담과 농사일에 대한 체력 부담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보육과 양육 부담을 안는 30대와 40대는 가사노동과 농사일의 병행부담이 크고, 60대 이상은 농사일에 대한 체력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다’가 4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사일에 체력이 부족해 어렵다’ 28.9%, ‘농기계나 시설 사용이 어렵다’ 10.5%, ‘농촌사회의 남녀차별로 활동에 제약이 많다’ 5.9%,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5.4%, ‘기타’ 0.7%,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활동하기 불편하다’ 0.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2〉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



-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는 가사와 농사일 병행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고, 60대 이상에서는 농사일에 대한 체력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50대 이하에서는 가사노동과 농사일 병행 부담, 농사일에 대한 체력 부족, 농기계나 시설사용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와 40대는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53.2%, 54.1%로 높게 나타남
 - 60대 이상에서는 농사일에 대한 체력 부담, 가사노동과 농사일 병행 부담, 농기계나 시설 사용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농사일에 대한 체력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임

〈표 3-64〉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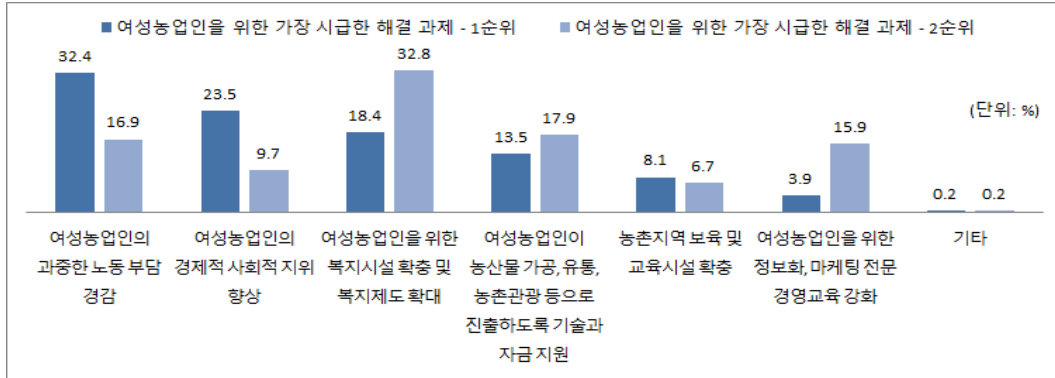
구분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χ^2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다	농사일에 체력이 부족해 어렵다	농촌사회의 남녀차별로 활동에 제약이 많다	농기계나 시설 사용이 어렵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활동하기 불편하다	기타	계	
30대 이하	25(53.2)	9(19.1)	4(8.5)	5(10.6)	3(6.4)	0(0.0)	1(2.1)	47(100.0)	27.402
40대	60(54.1)	28(25.2)	2(1.8)	9(8.1)	9(8.1)	2(1.8)	1(0.9)	111(100.0)	
50대	80(48.5)	46(27.9)	14(8.5)	19(11.5)	6(3.6)	0(0.0)	0(0.0)	165(100.0)	
60대 이상	31(36.5)	35(41.2)	4(4.7)	10(11.8)	4(4.7)	0(0.0)	1(1.2)	85(100.0)	
계	196(48.0)	118(28.9)	24(5.9)	43(10.5)	22(5.4)	2(0.5)	3(0.7)	408(100.0)	

* p<.05, ** p<.01, *** p<.001

9) 여성농업인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1순위는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농업부담 경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 확대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3〉 여성농업인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 1순위, 2순위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에 이어 30대 이하와 50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 40대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제도 확대와 농산물 가공, 유통, 농촌관광 등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술과 자금지원, 60대 이상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제도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5〉 여성농업인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 1순위

단위 : 명(%)

구분	여성농업인을 위해 앞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순위								χ^2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	농촌지역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 확대	여성농업인이 농산물 가공, 유통, 농촌관광 등으로 진출하도록 기술과 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보화, 마케팅 전문 경영교육 강화	기타	계	
30대 이하	12(25.5)	15(31.9)	8(17.0)	7(14.9)	3(6.4)	2(4.3)	0(0.0)	47(100.0)	34.833*
40대	20(18.0)	32(28.8)	10(9.0)	22(19.8)	22(19.8)	5(4.5)	0(0.0)	111(100.0)	
50대	48(29.1)	49(29.7)	4(2.4)	30(18.2)	26(15.8)	7(4.2)	1(0.6)	165(100.0)	
60대 이상	16(18.8)	36(42.4)	11(12.9)	16(18.8)	4(4.7)	2(2.4)	0(0.0)	85(100.0)	
계	96(23.5)	132(32.4)	33(8.1)	75(18.4)	55(13.5)	16(3.9)	1(0.2)	408(100.0)	

* p<.05, ** p<.01, *** p<.001

-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 2순위는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 확대’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나타남

〈표 3-66〉 여성농업인을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 2순위

단위 : 명(%)

구분	여성농업인을 위해 앞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순위								χ^2
	여성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여성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	농촌지역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	여성농업인 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 확대	여성 농업인이 농산물 가공·유통·농 촌관광 등으로 진출하도록 기술과 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보화, 마케팅 전문 경영교육 강화	기타	계	
30대 이하	7(15.2)	5(10.9)	5(10.9)	16(34.8)	7(15.2)	6(13.0)	0(0.0)	46(100.0)	29.888 *
40대	11(9.9)	25(22.5)	12(10.8)	26(23.4)	13(11.7)	24(21.6)	0(0.0)	111(100.0)	
50대	14(8.6)	26(16.0)	7(4.3)	52(31.9)	37(22.7)	26(16.0)	1(0.6)	163(100.0)	
60대 이상	7(8.4)	12(14.5)	3(3.6)	38(45.8)	15(18.1)	8(9.6)	0(0.0)	83(100.0)	
계	39(9.7)	68(16.9)	27(6.7)	132(32.8)	72(17.9)	64(15.9)	1(0.2)	40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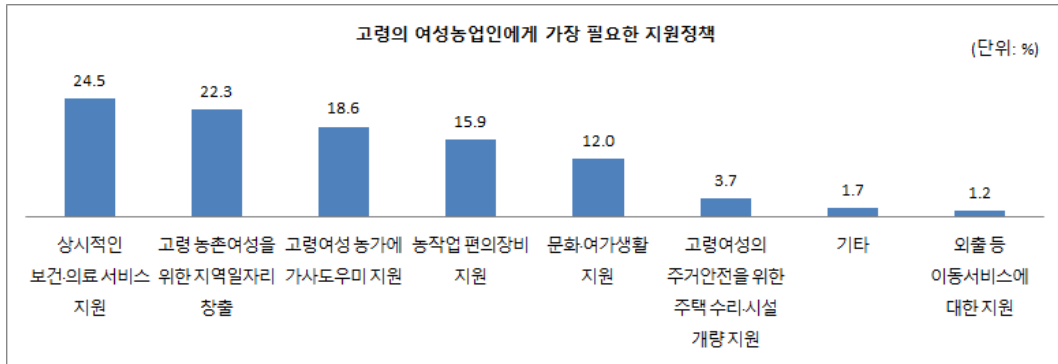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0)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고령의 여성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상시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인 것으로 나타남

- 고령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으로는 ‘상시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이 2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령 농촌여성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22.3%, ‘고령여성 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 18.6%,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5.9%, ‘문화·여가생활 지원’ 12.0%, ‘고령여성의 주거안전을 위한 주택수리·시설개량지원’ 3.7%, ‘기타’ 1.7%, ‘외출 등 이동서비스에 대한 지원’ 1.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4〉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23.4%, 40대와 50대는 ‘고령 농촌 여성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이 각각 26.1%, 21.8%, 60대 이상은 ‘상시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67〉 고령의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구분	고령의 여성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χ^2
	고령 농촌여성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고령여성의 주거 안전을 위한 주택수리시설 개량지원	고령여성 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	상시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문화·여가생활 지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외출 등 이동서비스에 대한 지원	기타	계	
30대 이하	10(21.3)	1(2.1)	8(17.0)	10(21.3)	5(10.6)	11(23.4)	2(4.3)	0(0.0)	47(100.0)	23.169
40대	29(26.1)	5(4.5)	20(18.0)	26(23.4)	14(12.6)	13(11.7)	2(1.8)	2(1.8)	111(100.0)	
50대	36(21.8)	8(4.8)	34(20.6)	34(20.6)	24(14.5)	25(15.2)	0(0.0)	4(2.4)	165(100.0)	
60대 이상	16(18.8)	1(1.2)	14(16.5)	30(35.3)	6(7.1)	16(18.8)	1(1.2)	1(1.2)	85(100.0)	
계	91(22.3)	15(3.7)	76(18.6)	100(24.5)	49(12.0)	65(15.9)	5(1.2)	7(1.7)	408(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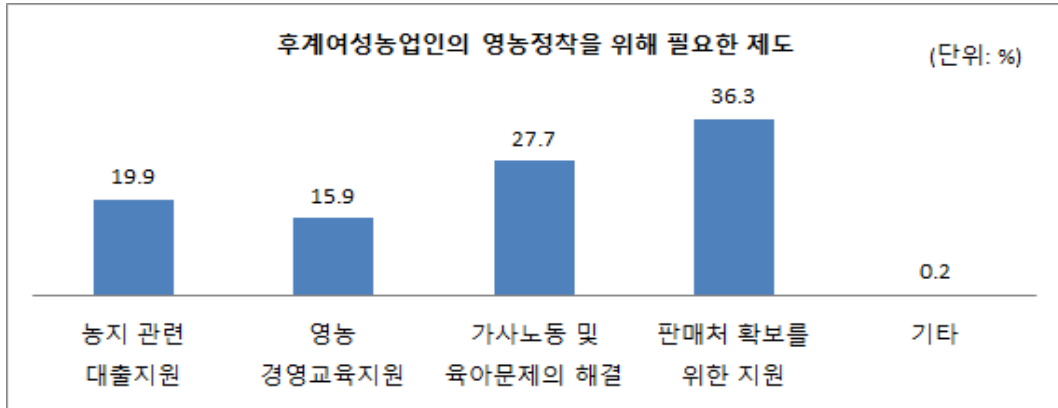
11) 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 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제도는 ‘판매처 확보를 위한 지원’에 대한 필요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제도는 ‘판매처 확보를 위한 지

원'이 3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사노동 및 육아문제의 해결' 27.7%, '농지 관련 대출지원' 19.9%, '영농 경영교육지원' 15.9%, '기타' 0.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5〉 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후계 여성농업인 정책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판매처 확보를 위한 지원', '가사노동 및 육아문제 해결', '농지 관련 대출지원', '영농 경영교육 지원'의 순으로 나타나 판매처 확보를 위한 지원의 필요인식이 가장 높음

〈표 3-68〉 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단위 : 명(%)

구분	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χ^2
	농지 관련 대출지원	영농 경영교육지원	가사노동 및 육아문제의 해결	판매처 확보를 위한 지원	기타	계	
30대 이하	9(19.1)	8(17.0)	12(25.5)	18(38.3)	0(0.0)	47(100.0)	7.175
40대	26(23.4)	16(14.4)	28(25.2)	41(36.9)	0(0.0)	111(100.0)	
50대	33(20.0)	31(18.8)	44(26.7)	56(33.9)	1(0.6)	165(100.0)	
60대 이상	13(15.3)	10(11.8)	29(34.1)	33(38.8)	0(0.0)	85(100.0)	
계	81(19.9)	65(15.9)	113(27.7)	148(36.3)	1(0.2)	40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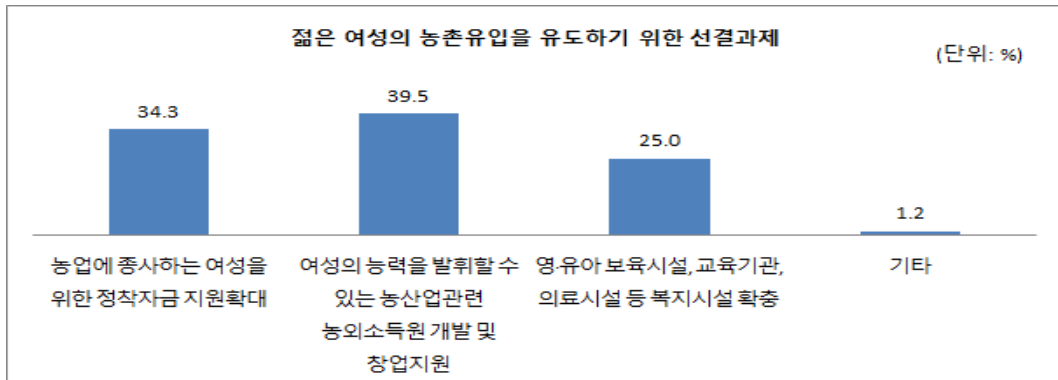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12) 젊은 여성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

- 젊은 여성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농산업 관련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지원인 것으로 나타남

- 젊은 여성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는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산업관련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지원’이 39.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확대’ 34.3%,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 25.0%, ‘기타’ 1.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6〉 젊은 여성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산업관련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지원’이 가장 선결과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다만 농산업 관련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지원에 이어 50대 이하에서는 정착자금 지원 확대, 복지시설 확충 순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60대 이상에서는 복지시설 확충 정착자금 지원확대 순으로 나타남

〈표 3-69〉 젊은 여성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

단위 : 명(%)

구분	젊은 여성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χ^2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확대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산업관련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지원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	기타	계	
30대 이하	16(34.0)	17(36.2)	13(27.7)	1(2.1)	47(100.0)	7.166
40대	41(36.9)	47(42.3)	23(20.7)	0(0.0)	111(100.0)	
50대	59(35.8)	65(39.4)	38(23.0)	3(1.8)	165(100.0)	
60대 이상	24(28.2)	32(37.6)	28(32.9)	1(1.2)	85(100.0)	
계	140(34.3)	161(39.5)	102(25.0)	5(1.2)	408(100.0)	

* p<.05, ** p<.01, *** p<.001

나.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1)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5개 기본전략 중 가장 인지도가 낮은 분야로 최고 21.1%~최저 10.8% 수준이며,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의 7개 정책 중 인지도가 높은 상위 3순위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21.1%,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 20.3%, ‘여성농업인 정책 전달기능 강화’ 19.1%임
 - 다음으로는 ‘부부공동경영 협약 및 공동경영주 홍보 등 양성평등 추진’ 17.4%,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16.9%,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15.4%,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10.8%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7〉 정책인지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알고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 연령별 인지도는 7개 정책 중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정책은 50대 > 40대 > 30대 이하 > 60대 이상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고 30대 이하의 인지수준이 가장 낮음
 -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 정책은 40대 > 50대 > 60대 이상 > 30대 이하 순으로 4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고 30대 이하의 인지수준이 가장 낮음
- 연령별 인지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 정책은 40대 26.1%, 50대 25.5%, 60대 이상 9.4%, 30대 이하 8.5% 순으로 4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부부공동경영 협약 및 공동경영주 홍보 등 양성평등 추진’ 정책은 50대 23.6%, 40대 22.5%, 30대 이하 8.5%, 60대 이상 3.5%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기능 강화’ 정책은 50대 27.3%, 40대 19.8%, 30대 이하 10.6%, 60대 이상 7.1%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정책은 50대 24.2%, 40대 18.9%, 30대 이하 10.6%, 60대 이상 3.5%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정책은 50대 21.8%, 40대 18.0%, 30대 이하 6.4%, 60대 이상 4.7%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정책은 7개 정책 중 가장 인지수준이 높았으며, 50대 28.5%, 40대 23.4%, 30대 이하 14.9%, 60대 이상 7.1%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정책은 7개 정책 중 가장 인지수준이 낮았으며, 50대 16.4%, 40대 11.7%, 30대 이하 4.3%, 60대 이하 2.4%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표 3-70〉 정책인지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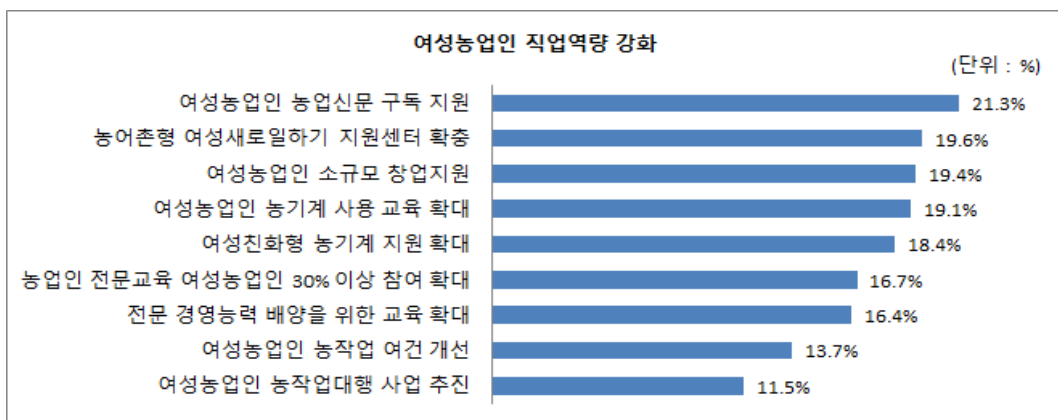
구분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	20.3	8.5	26.1	25.5	9.4
부부공동경영 협약 및 공동경영주 홍보 등 양성평등 추진	17.4	8.5	22.5	23.6	3.5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기능 강화	19.1	10.6	19.8	27.3	7.1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16.9	10.6	18.9	24.2	3.5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15.4	6.4	18.0	21.8	4.7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21.1	14.9	23.4	28.5	7.1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10.8	4.3	11.7	16.4	2.4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알고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분야의 인지수준은 최고 21.3%~최저 11.5%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9개 정책 중 ‘전문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와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정책은 30대 이하의 청년 여성농업인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분야의 9개 정책 중 인지도가 높은 상위 3순위는 ‘여성농업인 농업신문 구독 지원’ 21.3%,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확충’ 19.6%,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19.4%임
 - 다음으로는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19.1%,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18.4%,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16.7%,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16.4%,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13.7%, ‘여성농업인 농작업대행 사업 추진’ 11.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8〉 정책인지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알고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 연령별 인지도는 9개 정책 모두 40~50대의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30대 이하의 인지수준이 낮게 나타남
 -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정책은 4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정책은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정책은 60대 이상의 인지수준이 가장 낮고, 나머지 정책은 30대 이하의 인지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문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와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정책은 30대 이하에서 0.0%로 나타나 청년 여성농업인이 해당 정책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인지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정책은 50대 23.0%, 40대 7.1%, 30대 이하 8.5%, 60대 이상 8.2% 순으로 50대의 해당 정책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농업신문 구독 지원’ 정책은 9개 정책은 가장 인지수준이 높은 정책이었으며, 50대 31.5%, 40대 20.7%, 60대 이상 12.9%, 30대 이하 2.1% 순으로 50대의 해당 정책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정책은 50대 24.8%, 40대 19.8%, 60대 이상 4.7%, 30대 이하 0.0% 순으로 50대의 해당 정책 인지수준이 가장 높고, 30대 이하는 해당 정책을 인지하지 못함
-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정책은 50대 24.3%, 40대 24.2%, 30대 이하 10.2%, 60대 이상 8.2% 순으로 50대와 4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확충’ 정책은 50대 25.5%, 40대 23.4%, 60대 이상 10.6%, 30대 이하 6.4% 순으로 50대의 정책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농작업대행 사업 추진’ 정책은 9개 정책 중 가장 인지수준이 낮은 정책이었으며, 50대 15.8%, 40대 15.3%, 60대 이상 4.7%, 30대 이하 0.0% 순으로 50대와 40대의 해당 정책 인지수준이 높고 30대 이하는 인지하지 못함
-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정책은 40대 18.0%, 50대 17.6%, 60대 이상 7.1%, 30대 이하 2.1% 순으로 40대와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정책은 40대 27.0%, 50대 22.4%, 60대 이상 9.4%, 30대 이하 6.4% 순으로 4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정책은 50대 24.2%, 40대 22.5%, 60대 이하 9.4%, 60대 이하 4.3%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표 3-71〉 정책인지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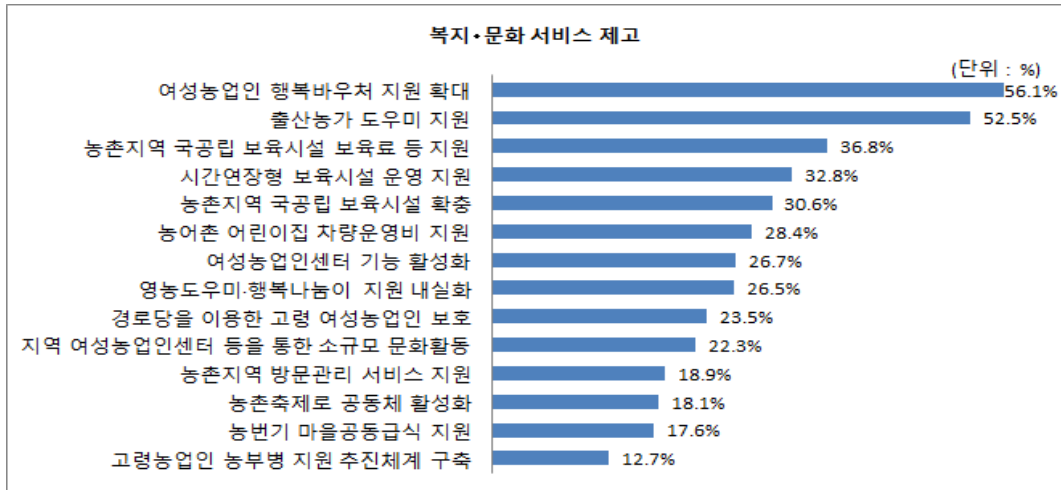
구분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16.7	8.5	17.1	23.0	8.2
여성농업인 농업신문 구독 지원	21.3	2.1	20.7	31.5	12.9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16.4	0.0	19.8	24.8	4.7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19.4	10.6	24.3	24.2	8.2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확충	19.6	6.4	23.4	25.5	10.6
여성농업인 농작업대행 사업 추진	11.5	0.0	15.3	15.8	4.7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13.7	2.1	18.0	17.6	7.1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19.1	6.4	27.0	22.4	9.4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18.4	4.3	22.5	24.2	9.4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알고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3)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의 인지수준은 최고 56.1%~최저 12.7% 수준으로 5개 기본전략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분야이며, 14개 정책에서 모두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인지수준이 높고, 대부분의 정책에서 60대 이상 노년 여성농업인의 인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의 14개 정책 중 인지도가 높은 상위 5순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56.1%,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52.5%,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36.8%,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32.8%,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30.6%임
 - 다음으로는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28.4%,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26.7%,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26.5%, ‘경로당을 이용한 고령 여성농업인 보호’ 23.5%,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문화활동’ 22.3%, ‘농촌지역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18.9%, ‘농촌축제로 공동체 활성화’ 18.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17.6%, ‘고령농업인 농부병 지원 추진체계 구축’ 12.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9〉 정책인지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알고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 연령별로는 14개 정책 모두 40~50대의 인지수준이 높고,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 대부분 60대 이상의 인지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40대와 50대는 정책의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정책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남
 - 대부분 60대 이상의 인지수준이 가장 낮았으나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농촌지역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경로당을 이용한 고령 여성농업인 보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정책은 30대 이하가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인지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정책의 인지수준은 52.5%이며,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 14개 정책 중 2위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정책에 이어 인지수준이 가장 높은 정책이며, 40대 66.7%, 50대 66.7%, 30대 이하 42.6%, 60대 이상 31.8% 순으로 4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50대 38.2%, 40대 36.0%, 30대 이하 21.3%, 60대 이상 14.1%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정책은 40대 46.8%, 50대 40.0%, 30대 이하 34.0%, 60대 이상 18.8% 순으로 4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정책은 50대 41.8%, 40대 35.1%, 30대 이하 21.3%, 60대 이상 18.8%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정책은 50대 35.8%, 40대 27.9%, 60대 이상 20.0%, 30대 이하 19.1%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정책은 40대 34.2%, 50대 31.5%, 30대 이하 19.1%, 60대 이상 11.8% 순으로 50대의 해당 정책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농촌지역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정책은 40대 18.9%, 60대 이상 14.1%, 30대 이하 12.8%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경로당을 이용한 고령 여성농업인 보호’ 정책은 40대 28.8%, 50대 27.3%, 60대 이상 16.5%, 30대 이하 10.6% 순으로 4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정책은 40대 35.1%, 50대 30.3%, 30대 이하 19.1%, 60대 이상 11.8% 순으로 4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정책의 인지수준은 56.1%로 5개 분야 40개 정책 중에서 가장 인지수준이 높고, 40대 63.1%, 50대 58.8%, 30대 이하 46.8%, 60대 이상 47.1% 순으로 4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정책은 40대 23.4%, 50대 23.0%, 30대 이하 8.5%, 60대 이상 4.7% 순으로 40대와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고령농업인 농부병 지원 추진체계 구축’ 정책은 14개 정책 중 가장 인지수준이 낮았으며, 50대 17.6%, 40대 17.1%,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2.4% 순으로 50대와 4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문화활동’ 정책은 50대 29.7%, 40대 26.1%, 30대 이하 14.9%, 60대 이상 7.1%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농촌축제로 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50대 23.6%, 40대 20.7%, 30대 이하 12.8%, 60대 이상 7.1% 순으로 50대의 해당 정책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표 3-72〉 정책인지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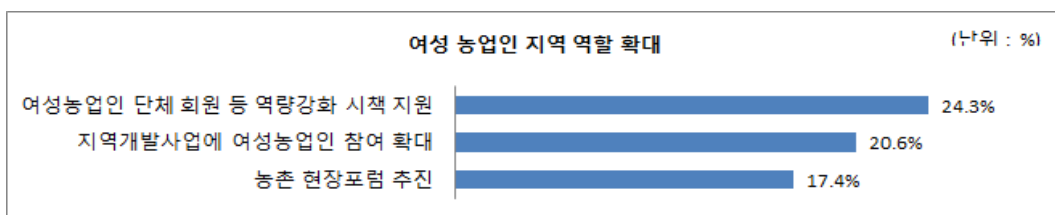
구분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52.5	42.6	66.7	56.4	31.8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30.6	21.3	36.0	38.2	14.1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36.8	34.0	46.8	40.0	18.8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32.8	21.3	35.1	41.8	18.8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28.4	19.1	27.9	35.8	20.0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26.7	19.1	34.2	31.5	11.8
농촌지역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18.9	12.8	18.9	23.0	14.1
경로당을 이용한 고령 여성농업인 보호	23.5	10.6	28.8	27.3	16.5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26.5	19.1	35.1	30.3	11.8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56.1	46.8	63.1	58.8	47.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17.6	8.5	23.4	23.0	4.7
고령농업인 농부병 지원 추진체계 구축	12.7	4.3	17.1	17.6	2.4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문화활동	22.3	14.9	26.1	29.7	7.1
농촌축제로 공동체 활성화	18.1	12.8	20.7	23.6	7.1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알고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4)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분야의 인지수준은 최고 24.3%~최저 17.4%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공통적으로 50대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분야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등 역량강화 시책 지원' 정책으로 24.3%이며,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20.6%, '농촌 현장포럼 추진' 17.4%순으로 나타남

〈그림 3-70〉 정책인지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알고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 연령별 인지도는 공통적으로 50대 > 40대 순으로 50대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3개 정책 중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등 역량강화 시책 지원’ 정책은 30대 이하가 가장 인지수준이 낮고, 나머지 2개 정책은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인지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정책은 50대 30.3%, 40대 20.7%, 30대 이하 8.2%, 60대 이상 8.2%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농촌 현장포럼 추진’ 정책은 50대 24.8%, 40대 19.8%, 30대 이하 6.4%, 60대 이상 5.9%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등 역량강화 시책 지원’ 정책은 50대 33.3%, 40대 26.1%, 60대 이상 11.8%, 30대 이하 10.6%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표 3-73〉 정책인지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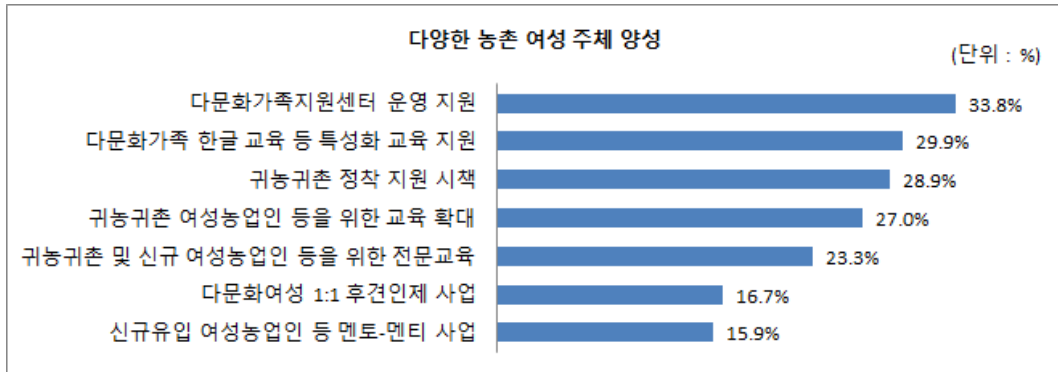
구분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20.6	8.5	20.7	30.3	8.2
농촌 현장포럼 추진	17.4	6.4	19.8	24.8	5.9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등 역량강화 시책 지원	24.3	10.6	26.1	33.3	11.8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알고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5)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의 인지수준은 최고 33.8%~최저 15.9%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정책으로 33.8%이며,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29.9%,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 28.9%,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27.0%, ‘귀농귀촌 및 신규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전문교육’ 23.3%,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사업’ 16.7%,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 사업’ 15.9% 순으로 나타남

〈그림 3-71〉 정책인지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알고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 대부분의 정책이 50대 > 40대 순으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40~50대의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 사업’ 정책은 50대 > 30대 이하 > 60대 이상 > 40대 순으로 50대에 이어 30대 이하의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이례적으로 4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사업. 정책은 50대 > 60대 이상 > 40대 > 30대 이하 순으로 50대 다음으로 60대 이상의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정책에서 30대 이하의 인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과 ‘다문화가족 한글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정책은 60대 이상의 인지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인지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정책은 50대 31.5%, 40대 30.6%, 60대 이상 20.0%, 30대 이하 14.9% 순으로 50대와 4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귀농귀촌 및 신규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전문교육’ 정책은 50대 27.9%, 40대 26.1%, 60대 이상 15.3%, 30대 이하 14.9% 순으로 50대와 40대의 인지수준이 높음
-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 정책은 50대 33.3%, 40대 31.5%, 30대 이하 21.3%, 60대 이상 22.1%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정책은 7개 정책 중 가장 인지수준이 높고, 연령별

로는 50대 39.4%, 40대 36.9%, 60대 이상 24.7%, 30대 이하 23.4%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정책은 50대 35.2%, 40대 32.4%, 30대 이하 23.4%, 60대 이상 20.0%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음
-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 사업’ 정책은 7개 정책 중 가장 인지수준이 낮고, 50대 21.2%, 30대 이하 14.9%, 60대 이상 11.8%, 40대 11.7% 순으로 50대의 해당 정책 인지수준이 가장 높고, 30대 이하가 40대보다 인지수준이 높음
-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사업’ 정책은 50대 20.6%, 60대 이상 16.5%, 40대 14.4%, 30대 이하 8.5% 순으로 50대의 인지수준이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40대보다 인지수준이 높음

〈표 3-74〉 정책인지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단위 : %

구분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27.0	14.9	30.6	31.5	20.0
귀농귀촌 및 신규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전문교육	23.3	14.9	26.1	27.9	15.3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	28.9	21.3	31.5	33.3	2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33.8	23.4	36.9	39.4	24.7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29.9	23.4	32.4	35.2	20.0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 사업	15.9	14.9	11.7	21.2	11.8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사업	16.7	8.5	14.4	20.6	16.5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알고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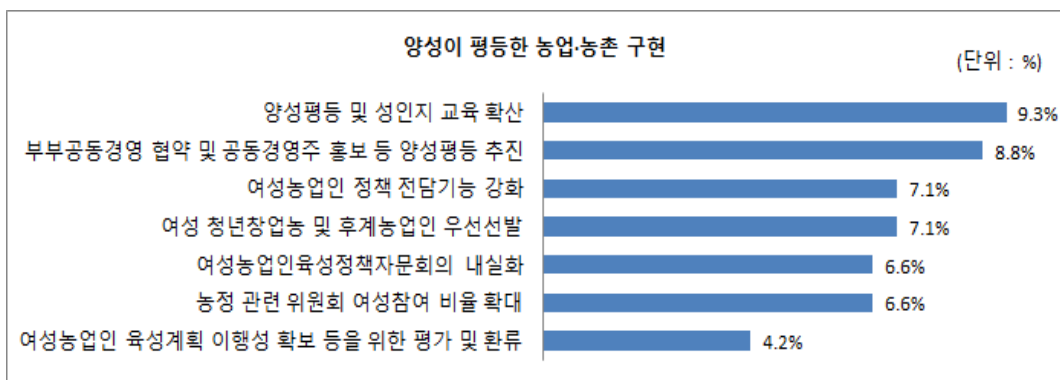
다. 여성농업인 정책 이용 또는 참여 경험

1)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의 정책 이용 또는 참여 경험률은 최고 9.3%~최저 4.2%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경험률이 높고 60대 이상 노년 여성농업인의 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 중 경험률이 높은 상위 3순위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9.3%, ‘부부공동경영 협약 및 공동경영주 홍보 등 양성평등 추진’ 8.8%,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 7.1%임
- 다음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기능 강화’ 7.1%,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6.6%,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6.6%,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4.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72〉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이용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 연령별 경험률은 7개 정책 모두 60대 이상이 공통적으로 가장 낮고, 40대와 50대가 높게 나타남
 -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과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정책은 40대가 가장 높고, 나머지 정책에서는 5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7개 정책 모두 60대 이상의 경험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연령별 경험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 정책은 40대 10.8%, 50대 6.7%, 30대 이하 6.4%, 60대 이상 3.5% 순으로 4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부부공동경영 협약 및 공동경영주 홍보 등 양성평등 추진’ 정책은 50대 12.7%, 40대 8.1%, 30대 이하 6.4%, 60대 이상 3.5% 순으로 5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기능 강화’ 정책은 50대 10.3%, 40대 6.3%, 30대 이하

- 4.3%, 60대 이상 3.5% 순으로 5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정책은 50대 8.5%, 40대 7.2%,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3.5% 순으로 50대의 해당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정책은 50대 8.5%, 40대 7.2%,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3.5% 순으로 5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정책은 7개 정책 중 가장 경험률이 높으며, 50대 12.7%, 40대 9.0%, 30대 이하 6.4%, 60대 이상 4.7% 순으로 50대의 해당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정책은 7개 정책 중 가장 경험률이 낮으며, 40대 4.5%, 30대 이하 4.3%, 50대 4.2%, 60대 이상 3.5% 순으로 40대의 해당 경험률이 가장 높음

〈표 3-75〉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단위 : %

구분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	7.1	6.4	10.8	6.7	3.5
부부공동경영 협약 및 공동경영주 홍보 등 양성평등 추진	8.8	6.4	8.1	12.7	3.5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기능 강화	7.1	4.3	6.3	10.3	3.5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6.6	4.3	7.2	8.5	3.5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6.6	4.3	7.2	8.5	3.5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9.3	6.4	9.0	12.7	4.7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4.2	4.3	4.5	4.2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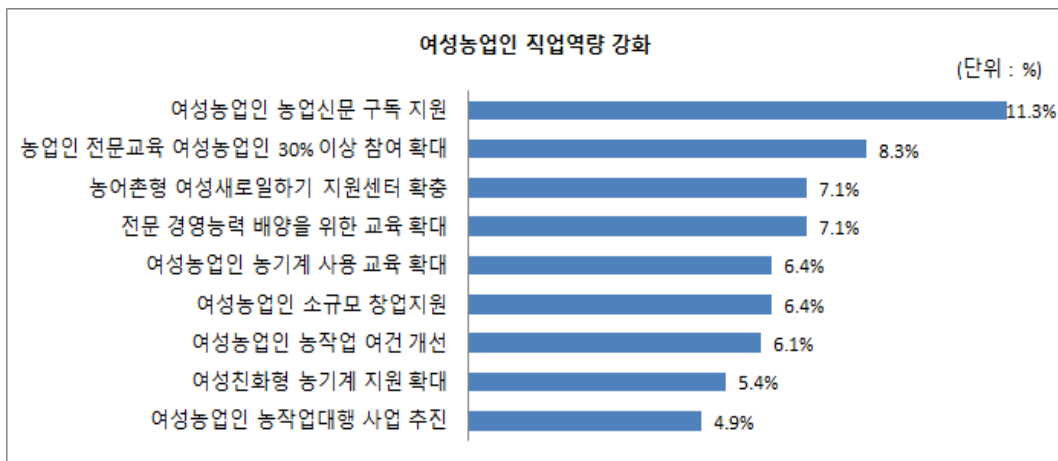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이용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분야의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은 최고 11.3%~최저 4.9%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경험률이 높고 대체로 60대 이상 노년 여성농업인의 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분야 중 경험률이 높은 상위 3순위는 ‘여성농업인 농업신문 구독 지원’ 11.3%,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8.3%,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7.1%임
- 다음으로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확충’ 7.1%,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6.4%,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6.4%,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6.1%,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5.4%, ‘여성농업인 농작업대행 사업 추진’ 4.9% 순으로 나타남

〈그림 3-73〉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이용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 연령별 정책 이용 또는 참여 경험률은 40~50대가 높고, 9개 정책 중 8개 정책에서 60대 이상의 정책 이용 또는 참여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9개 정책 모두 40~50대의 경험률이 높았는데 이 중 전문 경영능력 배양, 소규모 창업지원, 새로일하기 지원센터 확충, 농작업 여건개선, 농기계 사용 교육, 농기계 지원과 같이 직업역량 강화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은 40대의 경험률이 조금 더 높고,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농업신문 구독, 농작업 대행과 같은 보다 간접적 기여 정책은 50대의 경험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9개 정책은 ‘여성 농업인 농민신문 구독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책에서 60대 이상의 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30대 이하의 농민신문 구독 경험이 가장 낮은 이유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IT기기에 더 친숙한 세대이기 때문으로 파악됨

○ 연령별 경험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정책은 50대 12.1%, 40대 8.1%,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3.5% 순으로 5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농업신문 구독 지원’ 정책은 9개 정책 중 가장 경험률이 높고, 50대 15.2%, 40대 11.7%, 60대 이상 7.1%, 30대 이하 4.3% 순으로 5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정책은 40대 9.9%, 50대 8.5%,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2.4% 순으로 4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정책은 40대 9.0%, 50대 6.7%,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3.5% 순으로 4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확충’ 정책은 40대 10.8%, 50대 7.3%,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3.5% 순으로 4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농작업대행 사업 추진’ 정책은 9개 정책 중 가장 경험률이 낮고, 50대 6.1%, 40대 5.4%,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2.4% 순으로 5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정책은 40대 8.1%, 50대 6.7%,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3.5% 순으로 4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정책은 40대 11.7%, 50대 4.8%,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3.5% 순으로 4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정책은 40대 8.1%, 50대 4.8%,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3.5% 순으로 4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표 3-76〉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단위 : %

구분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8.3	4.3	8.1	12.1	3.5
여성농업인 농업신문 구독 지원	11.3	4.3	11.7	15.2	7.1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7.1	4.3	9.9	8.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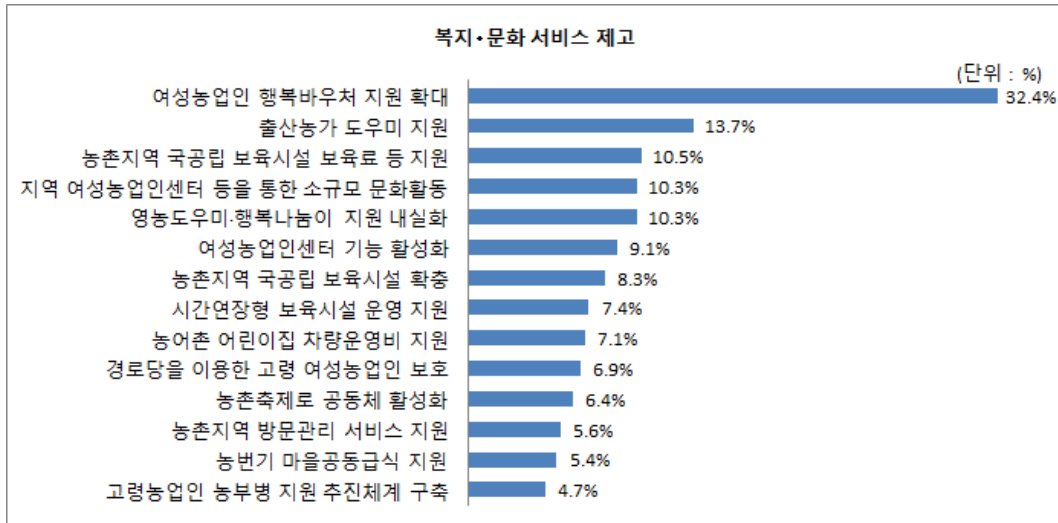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6.4	4.3	9.0	6.7	3.5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확충	7.1	4.3	10.8	7.3	3.5
여성농업인 농작업대행 사업 추진	4.9	4.3	5.4	6.1	2.4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6.1	4.3	8.1	6.7	3.5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6.4	4.3	11.7	4.8	3.5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5.4	4.3	8.1	4.8	3.5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이용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3)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의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은 최고 32.4%~최저 4.7% 수준으로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 가장 높은 분야이며, 다른 분야에 비해 다양한 연령의 정책 이용 및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체로 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이 높았으나 보육관련 지원정책의 경험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 이하의 청년 여성농업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대체로 60대 이상 노년 여성농업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정책의 경험률은 가장 높게 나타남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 중 경험률이 높은 상위 5순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32.4%,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13.7%,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10.5%,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10.3%,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문화활동' 10.3%임
 - 다음으로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9.1%,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8.3%,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7.4%,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7.1%, '경로당을 이용한 고령 여성농업인 보호' 6.9%, '농촌축제로 공동체 활성화' 6.4%, '농촌지역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5.6%,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5.4%, '고령농업인 농부병 지원 추진체계 구축' 4.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74〉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이용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 보육관련 정책을 제외하고 대체로 50대의 경험률이 높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다양한 연령대의 정책 이용 및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 이하의 경험률이 높은 정책은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농촌지역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임
-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 경험률이 높은 정책은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임
-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 경험률이 높은 정책은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경로당을 이용한 고령 여성농업인 보호’, ‘고령농업인 농부병 지원 추진체계 구축’,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문화활동’, ‘농촌축제로 공동체 활성화’임
-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 경험률이 높은 정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임

○ 연령대별 경험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정책은 50대 18.9%, 30대 이하 14.9%, 50대 13.9%, 60대 이상 5.9% 순으로 4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30대 이하 12.8%, 40대 10.8%, 50대

- 7.9%, 60대 이상 3.5% 순으로 30대 이하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정책은 30대 이하 17.0%, 40대 13.5%, 50대 10.3%, 60대 이상 3.5% 순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30대 이하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정책은 30대 이하 17.0%, 40대 7.2%, 50대 6.7%, 60대 이상 3.5% 순으로 4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험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정책은 30대 이하 10.6%, 50대 8.5%, 40대 7.2%, 60대 이상 2.4% 순으로 30대 이하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정책은 50대 10.9%, 40대 9.9%, 30대 이하 8.5%, 60대 이상 4.7% 순으로 5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농촌지역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정책은 30대 이하 6.4%, 50대 6.1%, 60대 이상 5.9%, 40대 4.5% 순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30대 이하와 50대의 해당 경험률이 조금 더 높음
 - ‘경로당을 이용한 고령 여성농업인 보호’ 정책은 50대 7.9%, 40대 7.2%, 30대 이하 6.4%, 60대 이상 4.7% 순으로 5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정책은 40대 14.4%, 50대 10.6%, 30대 이하 10.6%, 60대 이상 2.4% 순으로 40대의 해당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정책은 14개 정책 중 가장 경험률이 높고, 60대 이상 35.3%, 50대 33.9%, 40대 31.5%, 30대 이하 23.4% 순으로 60대 이상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정책은 40대 8.1%, 50대 4.8%,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3.5% 순으로 4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고령농업인 농부병 지원 추진체계 구축’ 정책은 14개 정책 중 가장 경험률이 낮으며, 50대 6.7%,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3.5%, 40대 2.7% 순으로 50대가 가장 높음
 -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문화활동’ 정책은 50대 12.7%, 40대 11.7%, 30대 이하 8.5%, 60대 이상 4.7% 순으로 5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농촌축제로 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50대 8.5%, 60대 이상 5.9%, 40대 4.5%, 30대 이하 4.3% 순으로 5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표 3-77〉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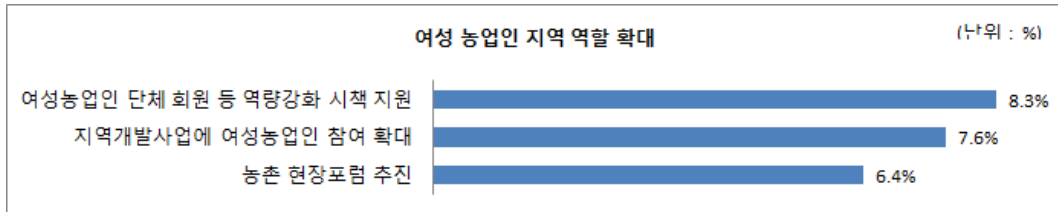
구분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13.7	14.9	18.9	13.9	5.9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8.3	12.8	10.8	7.9	3.5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10.5	17.0	13.5	10.3	3.5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7.4	17.0	7.2	6.7	3.5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7.1	10.6	7.2	8.5	2.4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9.1	8.5	9.9	10.9	4.7
농촌지역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5.6	6.4	4.5	6.1	5.9
경로당을 이용한 고령 여성농업인 보호	6.9	6.4	7.2	7.9	4.7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10.3	10.6	14.4	11.5	2.4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32.4	23.4	31.5	33.9	35.3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5.4	4.3	8.1	4.8	3.5
고령농업인 농부병 지원 추진체계 구축	4.7	4.3	2.7	6.7	3.5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문화활동	10.3	8.5	11.7	12.7	4.7
농촌축제로 공동체 활성화	6.4	4.3	4.5	8.5	5.9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이용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4)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분야의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은 최고 8.3%~최저 6.4%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경험률이 높음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분야 중 경험률이 가장 높은 정책은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등 역량강화 시책 지원' 정책으로 8.3%이며,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7.6%, '농촌 현장포럼 추진' 6.4% 순으로 나타남

〈그림 3-75〉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이용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경험률이 높고,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정책은 30대 이하가 가장 낮고 나머지 정책은 60대 이상이 가장 낮음
- 연령별 경험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정책은 50대 9.1%, 40대 7.2%, 60대 이상 7.1%, 30대 이하 4.3 순으로 5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농촌 현장포럼 추진' 정책은 50대 7.9%, 40대 7.2%,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3.5 순으로 50대의 경험률이 가장 높음
 -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등 역량강화 시책 지원' 정책은 3개 정책 중 경험률이 가장 높고, 40대 10.8%, 50대 9.1%, 30대 이하 6.4%, 60대 이상 4.7 순으로 40대의 해당 경험률이 가장 높음

〈표 3-78〉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구분	단위 : %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7.6	4.3	7.2	9.1	7.1
농촌 현장포럼 추진	6.4	4.3	7.2	7.9	3.5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등 역량강화 시책 지원	8.3	6.4	10.8	9.1	4.7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이용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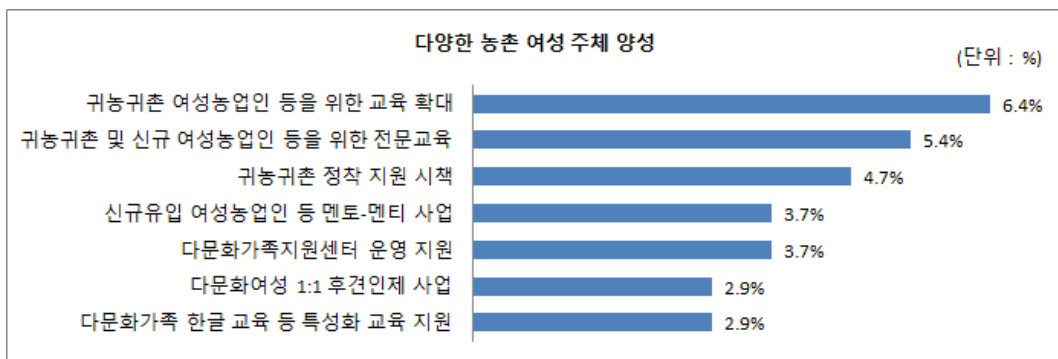
5)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의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은 최고 9.3%~최저 4.2% 수준으로 경험률이 낮으며, 다른 분야와 달리 대체로 50대 이상의 경험률이 높

고, 모든 정책에서 40대 이하의 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 중 경험률이 높은 상위 3순위는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6.4%, ‘귀농귀촌 및 신규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전문교육’ 5.4%,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 4.7%임
-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3.7%,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 사업’ 3.7%,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사업’ 2.9%,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2.9% 순으로 나타남

〈그림 3-76〉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이용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 연령별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은 대체로 50대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정책에서 40대의 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50대 이상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자녀와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다문화가족 형성을 경험하게 되는 연령이나 귀농귀촌 연령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 이하의 경험률이 높은 정책은 ‘다문화 여성 1:1 후견인제 사업’임
-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의 경험률이 높은 정책은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 사업’임
-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상의 경험률이 높은 정책은 ‘귀농귀촌 및 신규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전문교육’,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임

○ 연령별 경험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정책은 7개 정책 중 가장 경험률이 높고, 50대 7.3%, 60대 이상 7.1%, 30대 이하 6.4%, 40대 4.5% 순으로 50대와 60대 이상의 경험률이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음
- ‘귀농귀촌 및 신규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전문교육’ 정책의 경험률은 5.4%이며,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의 7개 정책 중 2위임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7.1%, 30대 이하 6.4%, 50대 6.1%, 40대 2.7% 순으로 60대 이상의 해당 경험률이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음
-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의 경험률은 4.7%이며,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의 7개 정책 중 3위임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5.9%, 50대 5.5%, 30대 이하 4.3%, 40대 2.7% 순으로 60대 이상의 해당 경험률이 가장 높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정책의 경험률은 3.7%이며,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의 7개 정책 중 4위임
- 연령별로는 50대 5.5%, 60대 이상 4.7%, 30대 이하 2.1%, 40대 0.9% 순으로 50대의 해당 경험률이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음
-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정책의 경험률은 7개 정책 중 가장 낮으며, 60대 이상 4.7%, 50대 3.6%, 30대 이하 2.1%, 40대 0.9% 순으로 60대 이상의 해당 경험률이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음
-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 사업’ 정책의 경험률은 3.7%이며,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의 7개 정책 중 4위임
- 연령별로는 50대 5.5%, 30대 이하 4.3%, 60대 이상 3.5%, 40대 0.9% 순으로 50대의 해당 경험률이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음
-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사업’ 정책의 경험률은 2.9%이며,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의 7개 정책 중 6위임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4.3%, 50대 3.6%, 60대 이상 3.5%, 40대 0.9% 순으로 30대 이하의 해당 경험률이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음

〈표 3-79〉 정책 이용 또는 참여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단위 : %

구분	전체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6.4	6.4	4.5	7.3	7.1
귀농귀촌 및 신규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전문교육	5.4	6.4	2.7	6.1	7.1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	4.7	4.3	2.7	5.5	5.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3.7	2.1	0.9	5.5	4.7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2.9	2.1	0.9	3.6	4.7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 사업	3.7	4.3	0.9	5.5	3.5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사업	2.9	4.3	0.9	3.6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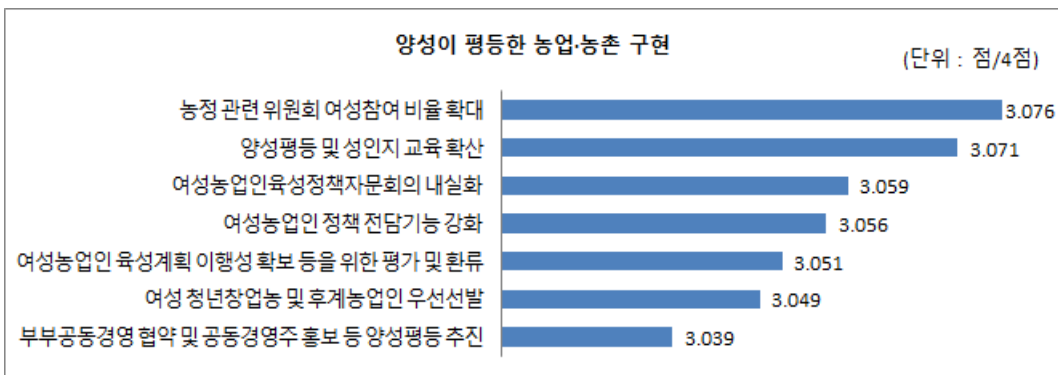
주 : 제시된 값은 정책을 이용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응답의 백분비임

라. 여성농업인 정책 필요도

1)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의 7개 정책 중 필요도가 높은 상위 3순위는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여성농업인 정책 전달기능 강화',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 '부부공동경영 협약 및 공동경영주 홍보 등 양성평등 추진' 순임

〈그림 3-77〉 정책필요도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3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책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필요도 순위 역시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임
- 4점 만점으로 평가된 필요도를 상위 3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30대 이하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부부공동경영 협약 및 공동경영주 홍보 등 양성평등 추진’ 순으로 나타남
 - 40대에서는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순으로 나타남
 - 50대에서는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기능 강화’,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부부공동경영 협약 및 공동경영주 홍보 등 양성평등 추진’ 순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에서는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필요도 순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대체로 높게 나타남

〈표 3-80〉 정책필요도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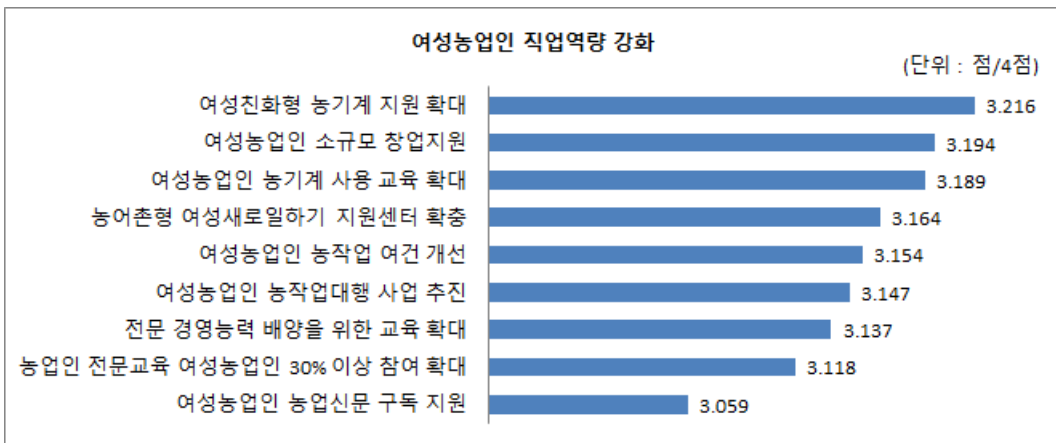
단위 : 점/4점

구분	평균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	3.049	3.064	3.036	3.061	3.035
부부공동경영 협약 및 공동경영주 홍보 등 양성평등 추진	3.039	3.149	3.018	3.067	2.953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기능 강화	3.056	3.149	3.036	3.073	3.000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3.076	3.191	3.108	3.061	3.000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3.059	3.149	3.090	3.030	3.024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3.071	3.149	3.090	3.073	3.000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3.051	3.191	3.063	3.042	2.976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분야의 9개 정책 중 필요도가 높은 상위 3순위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확충’,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여성농업인 농작업대행 사업 추진’,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여성농업인 농업신문 구독 지원’ 순임

〈그림 3-78〉 정책필요도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3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책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필요도 순위 역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4점 만점으로 평가된 필요도를 상위 3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30대 이하에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순으로 나타남
 - 40대에서는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확충’,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순으로 나타남
 - 50대에서는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여성농

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순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필요도 순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정책은 공통적으로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남

〈표 3-81〉 정책필요도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단위 : 점/4점

구분	평균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3.118	3.191	3.117	3.158	3.000
여성농업인 농업신문 구독 지원	3.059	3.128	3.018	3.121	2.953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3.137	3.234	3.144	3.176	3.000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3.194	3.298	3.171	3.261	3.035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확충	3.164	3.277	3.198	3.188	3.012
여성농업인 농작업대행 사업 추진	3.147	3.298	3.180	3.152	3.012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3.154	3.277	3.162	3.170	3.047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3.189	3.319	3.180	3.218	3.071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3.216	3.383	3.189	3.242	3.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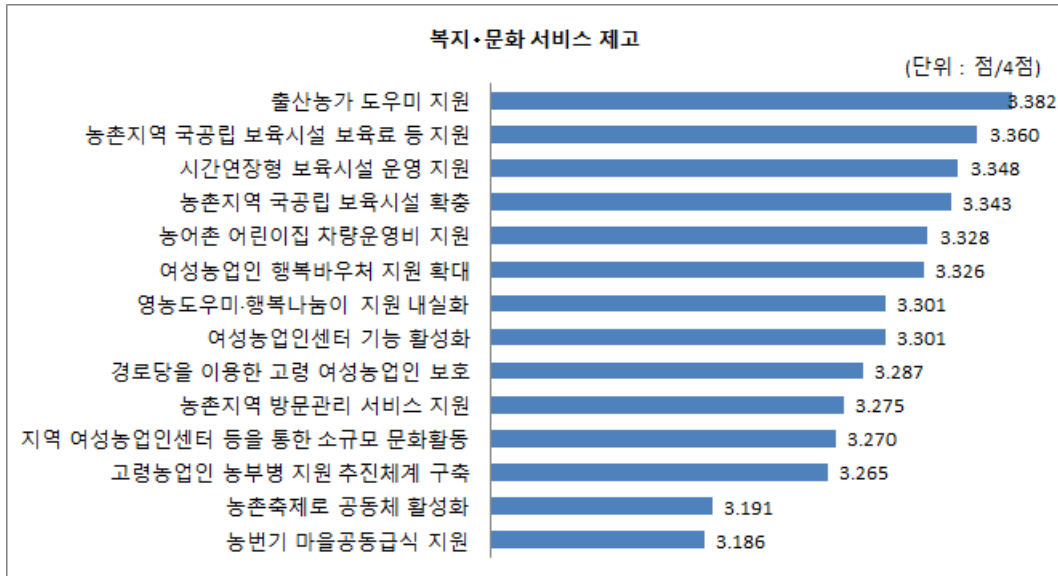
3)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인지수준 및 경험률이 높은 정책들이 많았던 분야으로 필요도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 분야의 14개 정책 중에서 필요도가 높은 상위 5순위는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경로당을 이용한 고령 여성농업인 보호', '농촌지역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문화활동', '고령농업인 농부병 지원 추진체계 구축', '농촌축제로 공동체 활성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순임

〈그림 3-79〉 정책필요도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3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책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필요도 순위 역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4점 만점으로 평가된 필요도를 상위 5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30대 이하에서는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순으로 나타남
 - － 40대에서는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순으로 나타남
 - － 50대에서는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순으로 나타남
 - － 60대에서는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필요도 순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정책, ‘시간연장형 보육 시설 운영 지원’은 공통적으로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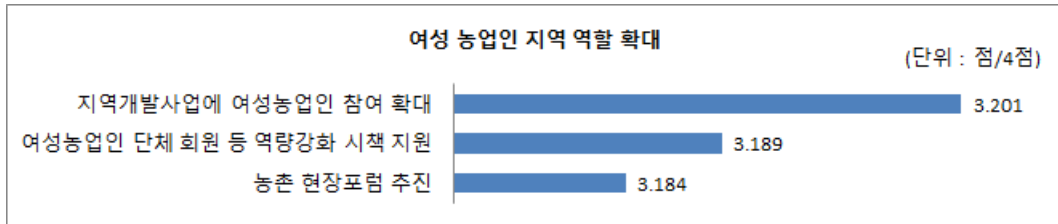
〈표 3-82〉 정책필요도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구분	평균	단위 : 점/4점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3.382	3.511	3.387	3.400	3.271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3.343	3.489	3.324	3.364	3.247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3.360	3.489	3.360	3.394	3.224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3.348	3.468	3.351	3.364	3.247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3.328	3.447	3.306	3.382	3.188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3.301	3.362	3.315	3.345	3.165
농촌지역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3.275	3.404	3.288	3.285	3.165
경로당을 이용한 고령 여성농업인 보호	3.287	3.404	3.306	3.303	3.165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3.301	3.426	3.315	3.321	3.176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3.326	3.468	3.306	3.358	3.21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3.186	3.340	3.189	3.176	3.118
고령농업인 농부병 지원 추진체계 구축	3.265	3.362	3.243	3.285	3.200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문화활동	3.270	3.298	3.270	3.297	3.200
농촌축제로 공동체 활성화	3.191	3.277	3.153	3.242	3.094

4)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 여성 농업인의 지역 역할 확대 분야의 3개 정책 중 가장 필요도가 높은 정책은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이며, 다음으로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등 역량강화 시책 지원’, ‘농촌 현장포럼 추진’ 순임

〈그림 3-80〉 정책필요도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 3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책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필요도 순위 역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연령에 따른 필요도 순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정책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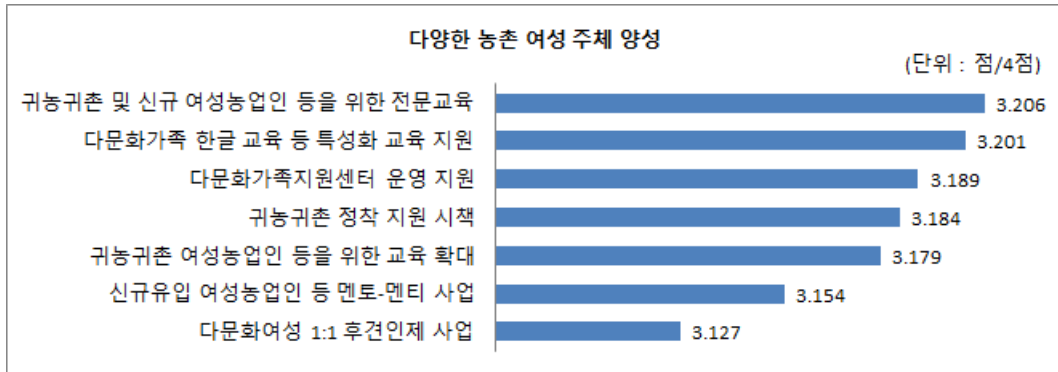
〈표 3-83〉 정책필요도 :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구분	평균	단위 : 점/4점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3.223	3.298	3.216	3.279	3.082
농촌 현장포럼 추진	3.132	3.234	3.072	3.218	2.988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등 역량강화 시책 지원	3.159	3.234	3.171	3.218	2.988

5)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의 7개 정책 중 필요도가 높은 상위 3순위는 ‘귀농귀촌 및 신규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전문교육’,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 사업’,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사업’ 순임

〈그림 3-81〉 정책필요도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제 양성



- 30대 이하는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 사업’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책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필요도 순위 역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4점 만점으로 평가된 필요도를 상위 3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30대 이하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 순으로 나타남
 - 40대에서는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귀농귀촌 및 신규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전문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 순으로 나타남
 - 50대에서는 ‘귀농귀촌 및 신규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전문교육’,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순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에서는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순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필요도 순위에 차이를 보였지만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50대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필요도 순위가 높았으며,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정책은 50대 이하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도 순위가 높게 나타남

〈표 3-84〉 정책필요도 :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단위 : 점/4점

구분	평균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3.179	3.255	3.135	3.236	3.082
귀농귀촌 및 신규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전문교육	3.206	3.277	3.189	3.267	3.071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	3.184	3.298	3.153	3.224	3.08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3.189	3.340	3.153	3.224	3.082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3.201	3.298	3.207	3.242	3.059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 사업	3.154	3.213	3.135	3.224	3.012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사업	3.127	3.277	3.099	3.170	3.000

4. 소결 및 시사점

가. 여성농업인 실태

1) 농업규모 및 소득수준

- 안정적인 소득유지를 위해서는 농사기술과 함께 적정규모의 경작지와 노동력이 필요함.
경작지 임차는 경작지 부족과 소득 확대의 2가지 측면에서 모두 중요함
 - 본인 소유의 경작지가 없는 30대 이하의 청년 여성농업인은 경작지 확보,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은 농사규모 확대를 위해 경작지 임차가 필요함
 - 임차를 통한 경작지 확보는 농사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소득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이 실제 담당하고 있는 작업비율과 소득기여율에 비해 보조적 위치에 머물
고 있음. 단독경영주 인식이 낮고 생활용 금전관리 담당 비율이 높은 점, 높은 가사노
동 부담비율은 여성농업인의 이러한 위치를 잘 보여줌

2) 경제·사회 활동 참여

-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 이유는 배우자와 부모의 농업종사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하의 청년 여성농업인은 농업인과 경영주로서의

주체인식이 매우 낮음

- 생활용 금전을 제외한 재무관리를 비롯하여 농업경영 전반은 여전히 남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여성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음
 - － 여성농업인 담당비율이 높은 밭작물(논, 밭, 과수) 관련 작업은 기계대체가 어려워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계작업보다 노동부담이 크지만 보조적 작업으로 인식되고, 농촌 특유의 남성 중심문화와 낮은 성평등 인식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 낮은 농업소득은 여성농업인의 소득불안을 가중시킴. 중년 여성농업인에 비해 소득불안이 높고 농업종사기간이 짧은 청년 여성농업인은 중년 여성농업인보다 높은 성평등인식에도 불구하고 농사전문가가 되고 싶거나 농업 기술과 정보에 대한 관심이 낮고 직업적 자부심도 낮음
-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욕구는 중년 여성농업인이 가장 높음. 특히 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은 성차별을 크게 느끼고 조직활동의 성역할 분리도 반대하지만 가사와 자녀양육과 농사일에 대한 성역할 관념은 다소 보수적임

3) 농업관련 교육 참여

- 최근 3년 간 농업관련 교육경험이 취미·여가·교양(28.2%)과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20.3%)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장 유익했던 교육 1순위는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 생산 기술 교육(24.9%), 2순위는 취미·여가·교양 교육(16.8%)이며, 향후 받고 싶은 교육 1순위와 2순위도 취미·여가·교양 교육임. 그러나 연령별 교육경험 분야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앞서 50대 여성 중년 여성농업인은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높고, 농업전문가로의 성장을 희망하며 새로운 농업기술 및 정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 관련 교육 중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 설비 운전’ 교육,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교육, ‘농산물 가공 기술’ 교육,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 참여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
- 그러나 교육 경험에 10%대에 머물렀고 유익했던 교육경험은 25% 전후 수준으로 나타난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교육을 제외하고는 연령대별 만족도 순위가 매

우 낮고, 향후 참여희망 순위 역시 낮은 점에 비추어 농업관련 활동 욕구가 반영된 교육내용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앞서 생활비 부족으로 일반 직장 취업을 원했던 40대 이하 여성을 위해서는 ‘부업, 자격증 취득’ 교육, ‘부기·회계 등 재무관리 기법’, ‘외국어 교육’ 등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연령대보다는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10% 전후 수준으로 참여경험이 매우 낮고, 유익한 교육경험이나 향후 교육희망 순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교육내용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 1순위는 ‘농사일과 가사일을 대신해 줄 사람 필요’로 나타남. 여성농업인의 농사일과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이용률이 10.3%에 그쳐 이용률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 건강과 복지현황

- 건강상태는 양호한 비율이 61.5%로 대체로 건강한 편이며,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대부분의 활동수행이 가능함. 최근 3년간 아플 때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병/의원이며, 의료기관 이용시 힘든 점 1순위는 의료기관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다(26.3%), 2순위는 진료대기 시간이 길다(30.6%)는 점으로 나타나 근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 응답자의 60% 이상이 지난 1년간 문화행사 및 시설을 이용한 적 없으며, 특히 60대는 80% 이상에 이름. 문화행사 및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1순위 시간부족, 2순위 정보부족으로 나타남.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어려운 점은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2순위로 지목되어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나.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및 정책 현황

1) 여성농업인 정책수요

- 정책수요는 크게 소득불안을 줄이기 위한 소득활동 지원, 문화생활지원 확대, 노동력부담 경감 지원, 근거리 건강관리시설 마련, 농사일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 경감으로 정

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앞서 살펴본 실태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남

-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1순위는 힘든 농사일(27.5%), 2순위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25.5%)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청년 여성농업인은 낮은 소득, 40대는 교육여건 취약, 50대 이상은 힘든 농사일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직업인으로서 농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적은 소득'과 '힘든 노동'으로 나타남. 50대 이하의 소득불만이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힘든 노동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큼
- 농촌에서 살기 가장 어려운 점은 취미활동이 어려운 환경(50대 이하)과 거리가 먼 의료시설(60대 이상), 농촌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은 가사와 농사일의 이중부담(50대 이하)과 체력부족(60대 이상)으로 나타남
 -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24.5%)과 고령 농촌 여성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22.3%)을 위한 정책수요가 높음
 - 후계 여성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처 확보를 위한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젊은 여성의 농촌유입을 위해서는 '농산업관련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지원'에 대한 선결요구가 높음

2) 여성농업인 정책 현황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 분석된 정책 수요와 욕구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필요도에 비해 전반적인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문제점이 드러나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전반적인 정책 인지수준과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이 낮음
 - 연령별로는 대체로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정책 인지수준과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이 높은 편이며, 30대 이하 청년 여성농업인과 60대 이상 노년 여성농업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이용 및 경험률 제고를 통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함. 특히 세대별 정책 수요 욕구에 따라 정책의 직접대상자를 파악하여 타겟 홍보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5개 기본전략 분야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와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분야는 인지도가 낮은

분야로 나타남. 이 중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의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이 더 낮게 나타남. 그러나 필요도는 4점 중 모든 정책이 평균 3점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음

— 따라서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와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분야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참여 유도 노력이 필요함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는 5개 기본전략 분야 중 인지수준과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이 가장 높은 영역이었으며, 필요도 인식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나타남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는 인지도 면에서는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인지 수준이 가장 높고 대체로 60대 이상 노년 여성농업인의 인지수준이 가장 낮음.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은 다른 분야에 비해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보육관련 정책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고,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정책은 모든 정책 중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험률도 증가하여 60대 이상 노년 여성농업인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필요도가 모두 높게 나타남. 필요도가 3.3점 이상인 정책들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정책도 32.4%에 그쳤고 나머지 정책은 10% 전후 수준에 그침

— 따라서 복지·문화 서비스 제공 영역은 관련 정책의 이용 및 적용확대 노력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분야와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는 다른 영역에 비해 인지도는 중간수준이지만 필요도에 비해 이용률은 낮은 편임

—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분야는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는 정책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필요도는 여전히 높음

— 따라서 이 2개 영역의 정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이용률 향상 노력이 필요함

다. 시사점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정책수요 욕구가 다름

— 30대 이하의 청년 여성농업인은 결혼을 기점으로 환경적 영향으로 농업에 입문하는

시기이며 농업노동과 함께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이 낮고, 소득불안과 함께 소득활동과 보육지원 욕구가 강함

- 40대 중년 여성농업인은 농업 경험이 누적되면서 농업인으로서 성장을 시작하는 시기로 농업노동과 함께 자녀 양육을 부담함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욕구가 강하고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직 안정되지 못해 소득불안을 해소할 소득활동을 원하는 한편 농업전문가로의 성장 욕구 및 농업경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 참여가 증가하고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도 증가함
- 50대는 농업기술과 경험의 누적으로 농업전문가로의 성장이 완숙하는 시기로 가장 많은 농업노동을 부담하며 농업전문가로의 성장 및 활동 욕구가 가장 커 관련 교육 참여 및 정책 이용 및 참여도 적극적임. 그러나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농사일과 함께 가사노동을 여전히 부담함
- 60대 이상은 농업기술과 경험이 완숙되었지만 노화로 인한 신체능력의 감소로 과중한 농업노동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욕구 증가함

〈그림 3-82〉 생애주기별 정책수요 욕구

청년(입문기)	중년(성장기)			노년(쇠퇴기)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출산, 보육, 가사	양육, 가사	가사	가사	
농업 및 농촌생활 적응	농업 경험 축적	농업기술 및 경험 완숙	신체능력 감소(노화)	
소득불안, 낮은 농업인 정체성 인식(보조적 지위)	소득불안, 농업전문가 성장 욕구 증가	농업전문가 성장	과중한 농업노동 부담 증가	
소득활동, 보육지원	교육여건 개선, 소득활동, 농업활동 욕구 증가	농업 관련 활동 및 교육, 정책 참여 증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은 필요도에 비해 전반적인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문제점이 드러남. 따라서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함. 특히 세대별 정책 수요 욕구에 따라 정책의 직접대상자 파악을 통한 타겟 홍보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및 참여자 특성
2.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심층면접 분석결과
3.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세대별 정책 욕구
4. 소결 및 시사점

1. 심층면접개요 및 참여자 특성

가. 심층면접 개요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여성농업인이 경험하고 있는 농업의 어려움과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욕구를 파악하고자 했음
- 심층면접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0년 8월 26일 ~ 2020년 9월 2일
 - － 조사방법 : 심층면접조사
 - － 조사대상자 수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27명
- 주요 면접 내용
 - － 심층면접은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참여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표 4-1>과 같음

<표 4-1> 심층면접 질문내용

영역	질문 내용
일반사항	하시는 일(일상 소개, 농업 종사기간, 작물 등), 농업규모 및 소득수준, 농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 여성농업인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
생활환경	주거,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문화, 돌봄
경제·사회활동 참여	농사일 분담 정도, 6차산업 연계 여부, 단체활동 참여
건강상태	건강상태, 의료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정책수요	이용한 정책 및 의견, 희망하는 지원정책

나.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 심층면접 참여자 지역 분포
 - － 심층면접 참여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제주시 동부 8명(사례14, 18, 20, 21, 22, 23, 24, 25), 제주시 서부 6명(사례1, 2, 3, 4, 5, 6), 서귀포시 동부 8명(사례11, 12, 13, 15, 16, 17, 19, 27), 서귀포시 서부 5명(사례7, 8, 9, 10, 26)으로 구성됨

○ 심층면접 참여자 연령 분포

- 심층면접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3명(사례5, 26, 27), 40대 12명(사례2, 3, 4, 6, 7, 8, 9, 10, 14, 16, 18, 22), 50대 7명(사례13, 17, 19, 20, 21, 23, 25), 60대 5명(사례1, 11, 12, 15, 24)으로 40대와 50대의 분포가 많았음

○ 재배 작물

- 심층면접 참여자의 재배 작물로는 양곡류 6명(사례20, 21, 22, 23, 24, 25), 과실류 18명(사례1, 2, 4, 5, 6, 7, 8, 10, 11, 12, 13, 14, 15, 16, 17, 19, 26, 27), 채소류 2명(사례3, 9), 특용작물 1명(사례 18)으로 감귤을 비롯한 과실류 재배를 많이 하고 있었음

- 심층면접 참여자의 농업 종사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45년까지였으며, 참여자 집단의 평균은 13년 3개월이었고, 경작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최소 약 $992m^2$ (약 3백평)에서 최대 약 $330,579m^2$ (약 10만평)까지였고, 참여자 집단의 평균은 약 $41,898m^2$ (약 12,674평)정도 었음. 경작하고 있는 작물로 인해 발생한 연평균 소득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었으며 참여자 집단 연평균 소득은 7,156만원이였음

〈표 4-2〉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사 례	지 역	연 령	작 물	종 사 기 간	토지면적(단위: m^2)	연평균 소득 (단위: 만원)
1	제주시 서부	64	대봉감	5년	6,612(약 2천평)	2,000
2	제주시 서부	42	수박, 옥수수	3년	12,562(약 3천 8백평)	2,000
3	제주시 서부	44	양배추	4개월	992(약 3백평)	500
4	제주시 서부	41	레몬, 감귤	5년	1,983(약 600평)	5,000
5	제주시 서부	38	감귤, 브로콜리, 양배추, 콜라비, 비트, 콩, 호박	6년	33,058(약 1만평)	10,000
6	제주시 서부	48	감귤	15년	5,620(약 1천 7백평)	7,000
7	서귀포시 서부	46	감귤	1년	5,620(약 1천 7백평)	7,000
8	서귀포시 서부	41	감귤	2년	14,876(약 4천 5백평)	3,000
9	서귀포시 서부	44	바질, 공심채	2년 4개월	23,140(약 7천평)	10,000
10	서귀포시 서부	44	감귤	11년	24,793(약 7천 5백평)	10,000
11	서귀포시 동부	61	감귤	1년 5개월	6,612(약 2천평)	1,200
12	서귀포시 동부	60	감귤	6년	1,322(약 4백평)	1,000
13	서귀포시 동부	53	감귤, 블루베리, 키위, 바나나	7년	16,529(약 5천평)	10,000
14	제주시 동부	47	감귤	17년	23,140(약 7천평)	10,000
15	서귀포시 동부	61	감귤	35년	13,223(약 4천평)	5,000
16	서귀포시 동부	46	감귤	20년	9,917(약 3천평)	7,000
17	서귀포시 동부	53	감귤	5년	8,926(약 2천 7백평)	2,700
18	제주시 동부	47	더덕, 도라지	12년	16,529(약 5천평)	4,000
19	서귀포시 동부	52	감귤	15년	9,917(약 3천평)	6,000
20	제주시 동부	51	호박, 보리, 콩, 감자	30년	49,587(약 1만 5천평)	5,000
21	제주시 동부	58	콩	35년	9,917(약 3천평)	800
22	제주시 동부	43	콩, 보리	15년	165,289(약 5만평)	15,000
23	제주시 동부	55	감자, 콩, 보리, 호박	23년	165,289(약 5만평)	15,000
24	제주시 동부	66	호박, 메밀, 콩	45년	82,645(약 2만 5천평)	8,000
25	제주시 동부	55	보리, 콩, 메밀, 감자, 호박, 유채	30년	330,579(약 10만평)	30,000
26	서귀포시 서부	39	감귤	4년	8,264(약 2천 5백평)	10,000
27	서귀포시 동부	36	감귤	8년	9,917(약 3천평)	6,000

2.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심층면접 분석결과

가. 농업 종사 계기

-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크게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한 경우, 결혼 후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도와 종사, 귀농, 농업이 좋아서 등으로 나타남
 -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도와 종사하게 된 경우가 1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귀농 9명,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해서 하게 된 경우 5명, 농업이 좋아서는 1명이었음. 농업이 좋아서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과 남편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음. 이는 여전히 여성농업인은 남성 농업 노동의 보조자로 인식되고 내면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저는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멋모르게 도전을 한 거예요. 신랑이랑 같이 귀농을 한 거죠. 귀농 귀촌을 하게 결심을 해가지고 귀농·귀촌을 결심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여기에 아버님의 기반이 있으니 --- [사례 2]

부모님을 도와드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쓰러지시면서 아프면서 농사일을 못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이제 농사일을 도우다가 이제 애기 아빠한테 농사짓자고 제가 권유를 해서 애기 아빠 하는 일 접고 같이 농사를 하게 됐어요. --- [사례 4]

저가 어쨌든 시집 와서 시아버지 했던 시아버지가 주신 밭을 계속 했으니까 한 15년 정도는 계속 한 거 같아요. 그냥 어쨌든 --- [사례 6]

그냥 아버지한테 작년에 증여받아가지고 --- [사례 7]

그러니까 저희는 명절 때마다 왔다 갔다 하다가 퇴직하면 시댁 거기도 집성촌이예요. 경주 김씨. 그 △△ 거기 온 동네가 다 친척이예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면 여기 내려가자 해서 작년 2월에 퇴직을 하고 3월 말에 내려왔어요. --- [사례 11]

전부터 농장에서 일을 했었고, 우리가 △△에 농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도 아버님들이 경영하시고 있고 시댁쪽도 만만하지 않게 엄청 대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계속 꾸준하게 했던 거 같아요. --- [사례 13]

직장이 없는데 남편이 하는 일이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전업주부였어서 --- [사례 18]

저는 저희 남편이 이제 퇴직할 거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 삶을 살기 위해서 --- [사례 19]

어릴 때부터 저 농고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농업 계열 고등학교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안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좀 무섭게 생겼나봐요, 가서 이제 이상하게 된다고 안 보내준다고 --- [사례 20]

특별한 이유는 촌에서 태어나고 촌에서 그냥 결혼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농사를 --- [사례 21]

신랑이 직장을 다니다가 농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아, 그러냐! 그러면 같이 농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지은 게 지금 그게 됐어요. 좀 있고 하니까 --- [사례 22]

먹고 살기 위해서죠. 저는 신랑을 농사짓는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나가서 돈을 벌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하던 일이 여기하고는 도저히 안 맞고 그러다보니까 애들도 어렵고 여기서 살다보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제일 가장 큰 문제라서 --- [사례 23]

저희들은 결혼을 여기서 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신랑이 특별한 직업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가 막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이 지역은 삼성(고·양·부

씨) 재단 땅들이 많아서 그 임대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걸로 임대를 해서 농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축산으로 소를 시작했다가 소값 파동 나고 IMF 터지면서 힘든 생활을 겪어서 이제 소를 다 처분하고 밭도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농업이었거든요. 농사.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한 게 애들하고 같이 살아가려니까 시내 나가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 [사례 25]

나.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어려움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적은 소득, 돌봄, 육체적 힘듦,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부담, 편의(위생)시설의 부재, 농기계 사용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소득은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소득의 경우 농업노동에 종사한 기간이 짧거나,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지속적 투자(묘목에서 과실을 수확하기 까지는 3년에서 5년이 소요된다고 함), 토지 임대 농업인인 경우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는 경우는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거나, 시장가격이 높은 작물 재배(주로 시설재배), 토지 면적이 넓은 여성농업인이었음
 - 돌봄에 대한 어려움은 30대, 40대 젊은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는 현실 문제였음
 - 육체적 힘듦은 여성농업인의 노동 강도가 남성에 비해 적지 않고, 농업노동에 더하여 가사노동의 부담은 여전히 전적으로 여성의 몫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편의시설의 경우, 특히, 위생시설(화장실)은 시설재배나 집 주변 토지에서의 경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의 경우 여성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 된 무거운 기계로 향후 여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가벼운 농기계 개발·보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정말 이 농업에 종사를 해보니까 농사로 인해서 농사만을 가지고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사례 1]

시간이,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절이 되지만 농사일을 하다보면 정해진 계획이 없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해야 되는 경우 스

케줄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애들 양육이 힘들어요. 밭이 가깝지 않고 밭이 멀리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일 하다가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 [사례 2]

11월 중순부터 3월까지 매일 밭에 가게 되는데요, 그 때는 다른 일을 전혀 못해요. 그 때는 애들 맡길 곳이 없어요. 작년의 경우에는 유치원에 종일 맡겼다가 늦게 데리고 오곤 했는데, 그 점이 어려웠어요. --- [사례 26]

작년에 △△에서 내려왔는데 애들이 나가서 뛰어놀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자전거를 편하게 탈 만한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일부러 데리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애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싶다고 심심하다고 하는데 엄마는 정작 해줄 수 없으니까 --- [사례 3]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농사라는 게 알면 알수록 더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달려서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 [사례 4]

가사 노동이랑 농사일이랑 겹쳐야 되니까... 네, 이제 아침에 나와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일 해왔잖아요. 또 집에 와서도 밥 챙겨야 되고 뭐 치워야 되고 그냥 좀 어찌다가는 좀 힘들어요. --- [사례 5]

이제 밭에 일도 하면서 또 집안에 와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 [사례 25]

집안일은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상 가장 피크가 쿨 때는 시기인데 저는 아침 7시에 가서 12시에 오거든요. 딱 5시간 일을 하는데 저 혼자 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평일 날 저 혼자 갔다가 오는 게 힐링이에요. 오히려 주말에 신랑이랑 같이 나간 날에는 빨래가 두 배, 막... 더 숨통 막히고 그리고 갔다 오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 [사례 6]

저는 어머니 밭에 가보면 밭에 화장실이 없어요. 대부분의 밭에. 저는 좀 그런데

거기 살던 분들은 “그냥 싸” 이래요. 밭에서 그냥 볼일 보는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전 어색한데 어릴 때부터 했던 사람들은 다 싸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들도.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육지에서 많이 유입이 되고 그분들이 계속 농사를 짓는다면 그런 부분도... --- [사례 8]

농기계 사용이 너무 저는 애 아빠 파쇄기를 할 때 파쇄기를 써봐도 제가 하기 힘들고..., 예초기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작아도 하면 되는데 그걸 딱 제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예초를 안 하고 뽑거나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뽑거나 곡괭이로 파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무릎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요. 전 예초기 쓰면서 저게 내 사이즈 맞는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사례 10]

어쩔 때 보면 제가 밭일도 하고 농사일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한 거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농촌에서의 특징이 저는 진짜 지금 육아도 하고 막 일을 많이 했는데 밭에 나가지 않으면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 [사례 10]

다. 생활환경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생활환경은 주거와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문화·여가생활, 교통, 야간진료 병원, 안전의 취약성 등을 호소하고 있음
- 문화생활의 경우 자신의 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 등으로 문화시설 접근성이 낮으며, 농사일을 야간에 마치는 경우 진료를 받기가 힘들며, 일부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매너 행위로 인한 공포심 유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처음에 11년 전에 왔을 때는 저희는 이제 도심에 있었다 보니까 생활권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문화, 쇼핑 이런 게 되게 가깝고 여기는 지금은 누리던 걸 누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이 촌에서 촌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40분에 한 대 있다거나 1시간에 한 대가 있다거나 하니까 --- [사례 10]

생활 전반의 어려움 있는 거 같아요. 여기 △△ 지역 자체가 8시 정도 되면 다 상가, 가게도 별로 없지만 불이 다 점멸인 거예요. 저는 자가운전을 못하거든요. 무면허증이니까 그런데 '농촌에 살아서 필요 없을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농촌에 사니까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진짜로..., 24시간 문화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저녁 8시에 불이 꺼지는 문화권에 있으려니까 너무 갭이 많고 활동하기가 불편한 거죠. --- [사례 13]

예전에는 저녁시간 촌에 사니까 배달음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녁시간에 그때 어딜 가지 못해요. 집에 가야 돼. --- [사례 14]

교통편은 불편하죠. 하루에 버스가 몇 대,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한 편인데... --- [사례 15]

야간진료 그런 병원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고 편의시설?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해도 저녁에는 조금 여가활동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들어요. --- [사례 16]

(외국인 노동자) 머리 짧은 스포츠에 그러니까(윗옷을 걷는 행위 등) 괜히 혐오감이 들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하니까..., 그렇죠. 안면이 조금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웬지 거리감에 무서워서 이렇게 멀리 가지도 또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 가서 늦게 오는 시간이 되면 막 걱정이 되어가지고... --- [사례 16]

우리 앞에 과수원도 뭐가 잘 없어진대. 그래서 항상 문을 잘 잠그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무섭더라고. --- [사례 19]

아무래도 문화혜택 같은 걸 많이 못 누리지 않을까요? 시내하고 달라서? --- [사례 21]

- 여가활동 가운데 콘서트나 요가교실의 경우는 시간과 홍보 등의 부족으로 인해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60대의 경우는 여가활동의 콘텐츠와 공간의 부족을 호소함. 하지만, 여가 및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와 취향은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문예회관 콘서트 등) 찾아보면 할 수 있는데 그게 많이 홍보도 안 되고 바쁘다 보니까 가고 싶다 할 땐 놓쳐있고 --- [사례 4]

그거(마을 요가교실) 많이 나오는데 안 갔어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요가는 아침 새벽에 하더라고, 5시인지 한 6시 전부터 그럼 또 7시 몇 분까지 그게 안 돼요. 애기 챙기고 그 시간에 아침에도 밭에 일해야 되고... --- [사례 5]

우리 어머니 보면 그렇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시내에 사시고 시어머니는 거기(시골) 사시는데 부유한 걸로 따지자면 우리 시어머니가 훨씬 부유하신데 재산적으로는, 그런데 생활하는 거는 저희 엄마는 학교 골프도 가시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자기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쉬면 할 게 없어요. 그 동네에서. 지금 칠십대이시긴 한데... --- [사례 7]

여가 활동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할 공간이 없으니까... 노인당 아니면 공간이 없으니까 --- [사례 24]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이 촌에서는 어쨌든 일하다보면 여성농업인들 교류들이 많이 없으니까 여성끼리, 아니면 남성끼리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 [사례 10]

문화생활 자체는 여기서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지나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문화예술 회원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계속 문자가 오고 어제도 뮤지컬 한다고... --- [사례 11]

라. 경제·사회활동 참여

- 경제·사회활동 참여의 경우 농사일 분담, 6차 산업 연계, 단체활동 참여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봄
 - 농사일 분담의 경우 남편과 분업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노동의 강도에 있어서는 결코 남편과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정(과수원에서 나무 가지를 솎아주거나 잘라주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편이 담당하고, 그 다음 김매기나 이런 거 처리, 그다음 이 밭들 담장 관련해서 막 풀 제거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담당을 하고..., 제주도 여성들인 경우에는 정말 밭에 똑같이 가서 더 많이 하면 했지, 그러니깐 남자들인 경우에 큰 것들 탁 탁해서 내버리면 여자들인 경우 자질구레한 것들을 계속해야 되는 경우들이니까 --- [사례 1]

밭일은 이제 거의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남편이랑 같이 서로 도우면서 하고 기계로 하는 거는 혼자, 밭가는 거는 혼자 다 하고... --- [사례 5]

저는 보조하는 것. 보조하고 하우스 일을 해도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남편은 이렇게 굵은 일, 크고 굵은 일은 남편이 거의 알아서 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적과 작업이나 이렇게 밭에 잡초제거 하는 거..., 태풍이 오거나 뭐 지나갔거나 하면 하우스가 이렇게 비닐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묶어놓은 지지해주는 그 끈들이 풀리면 사람을 빨리 구하지 못하니까, 올라가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루지 않고 남편하고 보조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해야... --- [사례 16]

일단 신랑이랑 같이 밭에 가서 같이 줄 당기고 같이 약을 치고 그런데 줄 당기는 게 힘드니까 제가 약을 치면 신랑은 줄을 당기고, 사람 빌어서 잡초를 맬 때는 사람 옮겨주는 일이라던가 이런 거 같이 하지만 그래도 다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 할 거다 해서 밥 가지러 가는 일 남편이 해주고 --- [사례 25]

- 심층면접 참여자의 경우 5명 정도가 6차 산업에 관심을 보였고, 6차 산업과의 연계 여부는 60대의 경우 다소 회의적이고 현재의 농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40대의 경우는 매우 의욕적이고 6차 산업과의 연계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 또한 남편의 은퇴 후를 준비하고 있는 50대 참여자의 경우 적극 관심을 나타냈으며, 6차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또 다른 50대 참여자는 정책적 지원의 문제점에 다소 비판적이었지만, 6차 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긍정을 나타냈음

6차 산업과 연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자본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 있어서 그것을 그냥 다시 새로운 걸로 이렇게 하기가, 아유, 지금 뭘 또 다시 더 뭘 해. --- [사례 1]

저희가 지역연계 받은 게 제주 농산물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런 취지로 지역 연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 '△△△'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이제 약간의 개인적인 수익도 낼 수 있고 농산물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 [사례 2] [사례 3]

저희는 좀 그래도 6차 산업쪽으로는 미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체험농장 쪽으로 미래에는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올해 지원받은 사업 중에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하는 주말농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그러가지고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결혼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본인 나라에서 길러 먹었던 채소를 저희 밭에 심어가지고 일주일마다 와서 풀 뜯고 하고 있어요. --- [사례 9]

사실상 6차 산업이라고 하면 가공식품? 그런 걸로만 많이 치우쳐가지고 지원하는 곳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에 사람들은 뭣 모르고 안하는 사람 못 받아먹는 거고, 정말 이쪽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6차 산업에 대해가지고 보조를 받는 거예요. 받았던 사람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러니까 골고루 이제 좀 활성화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 [사례 17]

(온라인 판매)거거 굉장히 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 [사례 19]

- 심층면접 참여자의 단체 활동의 경우 부녀회, 농협 봉사단,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의용소방대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마을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나타남

지금 계속 마을 부녀회 임원으로 6년차예요. 여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저 작년도 했는데 계속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좋은 점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여러 위에 언니들이랑 음식도 좀 배우고 사람들이랑 어울려 가지고 사람도 좀 알고... --- [사례 5]

저는 그냥 부녀회 기본적인 건 참여는 다 하고요. 여기 마을문고는 9년 전부터 봉사를 계속 했어요. 계속 운영, 저희는 봉사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주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 [사례 10]

주민자치도 2대 했었고, 또 이장, 여성 이장도 했었고요..., 저보고 좀 마을 리민들 화합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아이고, 저가 그걸 어떻게 처음 대답해요. 한 진짜 열 번은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2년, 2009년, 2010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이제는 저희 마을이 이제는 화합은 많이 됐어요. --- [사례 15]

농촌생활은 사실 이렇게 보면 서로 이웃 간에 이웃사촌이라고 이제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서로 이렇게 같이 고민하다보면 좋은 점들을 더 같이 보완하면서 어울리면서 수눌면서 너 바쁘냐, 나 좀 왕 도와주라 이렇게 했을 때 같이 도우면서 일 할 수 있으니까 사람 살아가는 정을 느끼면서 사는 거 같아요. --- [사례 25]

마. 건강상태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농업노동으로 인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대표적인 농부병으로 꼽히는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음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 [사례 3]

몸이야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 [사례 5]

특히나 감귤 상자 나르다가 콘테나 나르다가 디스크가 빠져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 [사례 9]

많이 안 좋아졌어요. 뼈 같은데 허리 디스크도 있고요, 무릎도 지금 파열 되가지고 못쓰고 있고 하니까 --- [사례 10]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 [사례 17]

비오는 날에는 삭신이 다 쏘시는 걸 절실히 느끼고 --- [사례 23]

겨울이 지나면 고질병처럼 어깨와 손목이 아파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하고 있어요. --- [사례 26]

바.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했던 여성농업인 정책은 ‘행복바우처’ 사업이었음. 행복바우처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7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 정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농업인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1년에 15만원의 카드가 있어요. 그걸로 외식을 하거나 책을 살 수 있는 문화혜택이 있는데 그걸 주니까 좋더라고요. --- [사례 4]

저는 그냥 지금 바우처로 15만원 문화 바우처로 여성, 그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한 거 같아요. --- [사례 10]

3.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세대별 정책 욕구

가. 청년(30대 이하)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

- 청년(30대 이하) 여성 농업인의 정책 욕구는 다양하지 않았지만, 행복바우처 확대와 정보공유 및 청년 여성농업인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한 욕구를 드러냈으며, 여성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주체성 확립을 요구했음

정보공유 차원에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농사일) 하루 이틀 일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게 선진문물 탐방이라든지 연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특별히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있어도 못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고립되서 혼자 일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신랑은 보면 농협 조합원해서 활동도 하곤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대부분 남자 어른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 여자들은 농업에 대해 주체라기보다는 보조역할로 많이 인식되어서 그런 건지... 내가 갈게 하면, 너가 가면 뭐해?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사례 26]

청년 여성농업인으로서 행복바우처 금액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 [사례 27]

나. 중년(40대-50대)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

- 중년(40대-50대)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는 농산물에 대한 판로지원, 돌봄, 의료지원,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 농업경영체 미등록 사각지대 해소, 성평등 의식 개선, 농촌 일손돕기 인력지원, 농기계 교육 및 보수교육, 농번기철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의 다양한 욕구가 파악됨

판로가 있어도 경매장이라든가 농협 판매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주체가 되지 않고 그런 큰 단체가 가격을 정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좋은 상품을 가져가도 그 사람네 기준에서 뭐 시세라든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너무 저평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농사를 지으려면 무조건 판매처를 잡고 농사를 지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사례 2]

나눔터가 없어요. 나눔터가 지금 도시에 되게 밀집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게 조금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여건에 맞게 구비서류라는 게 행정쪽에서는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여건에 맞게 조금 바뀔 수 있는 건 바뀌어야 하는게 맞다고 봐요. --- [사례 3]

애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한푼 두푼 아껴서 애들 조금이라도 교육 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전 이제 그게 처음에는 시간도 없지만 솔직히 돈도 돈이고..., 저는 누워서 쉬는 걸로 체력을 회복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짜라고 하면 이왕이면 침 맞으면 더 좋겠다 해서 조금 더 기운내서 병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사례 4]

주말에 밭에 갈 때는 애들 어릴 때는 특히 딸 어릴 때는 집에만 혼자 놔두기가 좀 겁나서 애들을 어디 맡길 데가 있으면 좋겠죠. 그거지 --- [사례 6]

어쨌든 보면 모든 정책이나 농업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알고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 [사례 7]

경영체에 가입되어 있어도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지원부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남편의 이름으로 매매, 임대를 다 남편이름으로 하니까 제 이름으로는 매매 계약서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조합원도 안되고 농협의 조합원이 안 되면 농협에서 재해보험에 지원을 안 해줘요. --- [사례 9]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아이 돌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참 너무 속상한 거 같아요. --- [사례 9]

정책적으로는 사실 인력 지원인거죠. 저같이 허리 아프거나 이런 사람은 직접적인 노동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플 때는 대체인력을 조금 지원해주면 좋죠. --- [사례 10]

제도적인 부분, 지원금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농업인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들이나 아니면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성평등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꼭 나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남편들도 아이에게 --- [사례 10]

하우스는 1천 평이나 2천 평이라도 작은 규모라도 하우스는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소규모 농장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격심사가 아예 안되는 거야. 노지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6천평 이상..., 넓은 거죠. 나 이도 들어가고 하면 사람 써야 하는데 그런 걸 정책적으로 대농만 지원해주고 소농을 지원해주는 게 없는 거야. 정책이 문제인 거지, 소농도 지원 해 줘야지 --- [사례 13]

여성바우처 작년 받고 올해 두 번 받았는데 올해는 참 건의하고 싶은 게 지금 65세 이상 되면 어른들이 노인 복지 해가지고 경로우대로 따로 이렇게 노인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그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

는 거예요. 그 나이를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어른들이 먼저 줄을 서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겹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사례 16]

저희는 밭이 임대라서. 임대 신청서를 안 써줬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없어가지고 바우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주인이 서울에 거주하거나 여기에 있어도 직불금 관련해가지고 못 받을까봐 임대 신청서를 안 써주거든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 보면 5년 이내에 농지 취득한 사람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관리 그거 받으신 분에 한해가지고 그거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써줄지 몰라도 농지은행으로 알아보기도 해봤고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 같아요. --- [사례 17]

그런데 만일에 저 같은 경우는 조합원도 아니고 농사는 하겠지만 조합원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어디 단체도 가입 안 되고 하니까 전혀 진짜 소식 들은 게 없어요. --- [사례 18]

관리기를 지원해줬다. 관리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 줘야 돼요. 트랙터를 뭐 부품 사줬다. 그거에 대한 교육 해줘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보수교육을 쫓아가게끔 당연히 해야 되게끔 그런 걸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 [사례 20]

바우처처럼 개인적으로 돈 주는 것보다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일단, 그러면 공통적으로 밥을 해가지고 저녁 한 끼라도 해주는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일 끝나고 들어가면 지쳐가지고 밥 먹고 싶을 생각도 없을 정도로 녹초 거든요. --- [사례 23]

다. 노년(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

- 노년(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는 경량 여성용 농기계 및 소포장 퇴비 공급,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정보화 교육지원, 농부병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의료지원, 농업경영체 미등록 사각지대 해소 등의 욕구가 파악됨

(농기계)무거워가지고 정말로 여성들이 쓸 수 있는 다루기도 쉬운 간단한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20kg 기준인데 나이 든 여성농업인의 경우 20kg 들어서 뿌리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10kg짜리로 해서 쉽게 들고 내리게끔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하예튼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도 훨씬 남성들이 많이 모이고 여자들이 적게 오고 그러니깐 이제 그런 면에서 여자들도 똑같이 참여를 하고 그 자기가 만약 직접적으로 안한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나잖아요. --- [사례 1]

정보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 [사례 11]

그 마을마다 일주일이면 몇 번 정해가지고 지압이라든가 물리치료 이렇게 받는 서비스, 경로당이나 부녀회 사무실 이런 데를 통해서 사무실들이 다 있으니까 도에서 조금만 받은 지원해주고 우리가 받은 내어도 아마 그런 건 잘 낼 거예요. --- [사례 15]

60대에요. 고령이다 보니까 그냥 저 역시 그런데 그 소형 농기계, 그 정도를 좀 많이 이제 농촌에 배부가 됐으면, 아직은 60대, 70대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 [사례 24]

농업경영체 등록에 없는 사람은 농협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영체등록이든 농지원부는 뭐 농주들이 안 해주면 못하죠.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 [사례 24]

4. 소결 및 시사점

가.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심층면접 분석결과

1) 농업 종사 계기

-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크게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한 경우, 결혼 후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도와 종사, 귀농, 농업이 좋아서 등으로 나타남
-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기대수요도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농업에 종사한 계기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전히 여성농업인은 농업보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체화되어 있음. 이에 대해서는 농업의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이 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탈정체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2)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어려움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적은 소득, 돌봄, 육체적 힘들,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부담, 편의(위생)시설의 부재, 농기계 사용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힘든 노동과 적은 소득의 비중이 높음. 즉, 여성농업인이 농업 노동과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농업 소득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임. 또한, 이에 가중된 가사노동과 돌봄의 부담이 여전히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부과되어 있다는 점임.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여성농업인이 노동에 기여한 만큼의 보상과 새로운 농외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일·가사 병행으로 인한 과중한 노동의 경감과 돌봄을 위한 적극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여성농업인의 노동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농번기 경작지 중심의 안전과 건강, 위생 등 노동환경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며, 여성농업인과 노년농업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경량형 농기계가 개발될 필요 있음

3) 생활환경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생활환경은 주거와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문화생활, 교통, 야간진료 병원, 안전의 취약성 등을 호소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생활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과중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을 들 수 있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기획하는 각종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이 고려된다면 시간 부족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의료서비스 또한 농업노동시간이 고려되어 농번기 동안만이라도 야간진료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안전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 안전진단을 통해 취약성이 진단된 지역의 가로등과 CCTV 등 범죄예방시설 등이 증설될 필요 있음

4) 경제·사회활동 참여

- 농사일 분담의 경우 남편과 분업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노동의 강도에 있어서는 결코 남편과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층면접 참여자의 경우 5명 정도가 6차 산업에 관심을 보였고, 6차 산업과의 연계 여부는 60대의 경우 다소 회의적이고 현재의 농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40대의 경우는 매우 의욕적이고 6차 산업과의 연계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 또한 남편의 은퇴 후를 준비하고 있는 50대 참여자의 경우 적극 관심을 나타냈으며, 6차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또 다른 50대 참여자는 정책적 지원의 문제점에 다소 비판적이었지만, 6차 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긍정을 나타냈음
- 심층면접 참여자의 단체 활동의 경우 부녀회, 농협 봉사단,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의용소방대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마을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나타남
- 농사일 분담의 경우 여성농업인은 남성과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여전히 잔존해 있는 가부장적 인식으로 인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원인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단체가

- 중심이 되어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될 필요 있음
-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을 경영인력으로 육성해 6차 산업을 자생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 있음

5) 건강상태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농업노동으로 인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에 대한 통증을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음
- 대표적인 농부병으로 알려진 근골격계 질환이란 팔과 어깨, 허리, 목, 무릎 등이 쭈시거나 결리고 아픈 증상을 의미하며, 주로 근육과 인대, 관절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 장애임. 이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 및 이미 이환된 여성농업인들에게는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 있음

6)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했던 여성농업인 정책은 ‘행복바우처’사업이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획기적 제도개선으로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로 평가된 바 있음. 특히, 자부담폐지(전국최초), 행정절차간소화(15일→1일), 카드발급기관 확대(농협은행시지부→지역농협)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복지시책유공 행복바우처지원 우수성과로 인정되었음. 따라서 이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및 지위향상을 도모할 필요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에 대해 보다 폭넓은 홍보강화를 통해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를 높일 필요 있음

나.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세대별 정책 욕구

1) 청년(30대 이하)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

- 청년(30대 이하) 여성 농업인의 정책 욕구는 다양하지 않았지만, 행복바우처 확대와 정보공유 및 청년 여성농업인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한 욕구를 드러냈

으며, 여성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주체성 확립을 요구했음

2) 중년(40대-50대)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

- 중년(40대-50대)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는 농산물에 대한 판로지원, 돌봄, 의료지원,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 농업경영체 미등록 사각지대 해소, 성평등 의식 개선, 농촌 일손돕기 인력지원, 농기계 교육 및 보수교육, 농번기철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의 다양한 욕구가 파악됨

3) 노년(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

- 노년(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는 경량 농기계 및 소포장 퇴비 공급,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정보화 교육지원, 농부병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의료지원, 농업경영체 미등록 사각지대 해소 등의 욕구가 파악됨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3. 연구의 한계점

1. 요약 및 시사점

- 이 연구는 농업인구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욕구를 청년, 중년, 노년층 별로 조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요약

1) 농업규모 및 소득수준

- 안정적인 소득유지를 위해서는 농사기술과 함께 적정규모의 경작지와 노동력이 필요함. 경작지 임치는 경작지 부족과 소득 확대의 2가지 측면에서 모두 중요함
 - 본인 소유의 경작지가 없는 30대 이하의 청년 여성농업인은 경작지 확보,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은 농사규모 확대를 위해 경작지 임차가 필요함
 - 임차를 통한 경작지 확보는 농사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소득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경의무로 인하여 농지임대차에 제한이 있는 실정임
- 여성농업인이 실제 담당하고 있는 작업비율과 소득기여율에 비해 보조적 위치에 머물고 있음. 단독경영주 인식이 낮고 생활용 금전관리 담당 비율이 높은 점, 높은 가사노동 부담비율은 여성농업인의 이러한 위치를 잘 보여줌

2) 경제·사회 활동 참여

-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 이유는 배우자와 부모의 농업종사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하의 청년 여성농업인은 농업인과 경영주로서의 주체인식이 매우 낮음
 - 여성농업인은 남성 농업노동의 보조자라는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음. 특히 환경적 요인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활동 및 경제활동에 부모세대 또는 배우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젊은 여성농업인은 이러한 보조적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용금전을 제외한 재무관리를 비롯하여 농업경영 전반은 여전히 남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여성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담당비율이 높은 발작물(논, 밭, 과수) 관련 작업은 기계대체가 어려

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계작업보다 노동부담이 크지만 보조적 작업으로 인식되고, 농촌 특유의 남성 중심문화와 낮은 성평등 인식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 낮은 농업소득은 여성농업인의 소득불안을 가중시킴. 중년 여성농업인에 비해 소득불안이 높고 농업종사기간이 짧은 청년 여성농업인은 중년 여성농업인보다 높은 성평등 인식에도 불구하고 농업전문가가 되고 싶거나 농업 기술과 정보에 대한 관심이 적고 직업적 자부심도 낮음
-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욕구는 중년 여성농업인이 가장 높음. 특히 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은 성차별을 크게 느끼고 조직활동의 성역할 분리도 반대하지만 가사와 자녀양육과 농사일에 대한 성역할 관념은 다소 보수적임
 - 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은 가사노동의 부담을 지면서도 농업노동 부담률이 가장 높고, 농촌공동체의 의욕적인 주체로 활동하고 있어 농업과 농촌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 농업관련 교육 참여

- 최근 3년 간 농업관련 교육경험이 취미·여가·교양(28.2%)과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20.3%)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장 유익했던 교육 1순위는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 생산 기술’ 교육(24.9%), 2순위는 ‘취미·여가·교양’ 교육(16.8%)이며, 향후 받고 싶은 교육 1순위와 2순위도 ‘취미·여가·교양’ 교육임. 그러나 연령별 교육경험 분야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앞서 50대 여성 중년 여성농업인은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높고, 농업전문가로의 성장을 희망하고 새로운 농업기술 및 정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 관련 교육 중 ‘농기계 작동법, 시설자동화 설비 운전’ 교육,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교육, ‘농산물 가공 기술’ 교육,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전문 농업경영자’ 교육에 다른 연령대보다 참여율이 높음
- 그러나 교육 경험의 10%대에 머물렀고, 유익했던 교육경험은 연령대별로 25% 전후의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교육을 제외하고 만족도 순위가 매우 낮음. 향후 참여희망 순위 역시 낮은 점에 비추어 농업관련 활동 욕구가 반영된 교육내용을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앞서 생활비 부족으로 일반 직장 취업을 원했던 40대 이하 여성을 위해서는 ‘부업, 자격증 취득’ 교육, ‘부기·회계 등 재무관리 기법’, ‘외국어’ 교육 등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연령대에 비해 수요 욕구가 높음에도 참여 경험의 10% 전후 수준으로 매우 낮고, 유익한 교육경험이나 향후 교육희망 순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교육내용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 1순위로 ‘농사일과 가사일을 대신해 줄 사람 필요’로 나타남

4) 건강과 복지현황

- 건강상태는 양호한 비율이 61.5%로 대체로 건강한 편이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대부분의 활동수행이 가능함. 최근 3년간 앓을 때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병/의원이며, 의료기관 이용시 힘든 점 1순위는 ‘의료기관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다’(26.3%), 2순위는 ‘진료대기 시간이 길다’(30.6%)는 점으로 나타나 근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 응답자의 60% 이상이 지난 1년간 문화행사 및 시설을 이용한 적 없으며, 특히 60대는 80% 이상에 이룸. 문화행사 및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1순위 ‘시간부족’, 2순위 ‘정보부족’으로 나타남.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점은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2순위로 지목되어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나.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및 정책 현황

1) 여성농업인 정책수요

- 정책수요는 크게 소득불안을 줄이기 위한 소득활동 지원, 문화생활지원 확대, 노동력부담 경감 지원, 근거리 건강관리시설 마련, 농사일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 경감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앞서 살펴본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남
 -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1순위는 힘든 농사일(27.5%), 2순위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25.5%)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청년 여성농업인

은 낮은 소득, 40대는 교육여건 취약, 50대 이상은 힘든 농사일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직업인으로서 농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적은 소득’과 ‘힘든 노동’으로 나타남. 50대 이하의 소득불만이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힘든 노동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큼
- 농촌에서 살기 가장 어려운 점은 취미활동이 어려운 환경(50대 이하)과 거리가 먼 의료시설(60대 이상), 농촌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은 가사와 농사일의 이중부담(50대 이하)과 체력부족(60대 이상)으로 나타남
 -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24.5%)과 고령 농촌 여성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22.3%)을 위한 정책수요가 높음
 - 후계 여성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처 확보를 위한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젊은 여성의 농촌유입을 위해서는 ‘농산업관련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지원’에 대한 선결요구가 높음

2) 여성농업인 정책 현황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 분석된 정책 수요와 욕구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필요도에 비해 전반적인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문제점이 드러나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전반적인 정책 인지수준과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이 낮음
 - 연령별로는 대체로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정책 인지수준과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이 높은 편이며, 30대 이하 청년 여성농업인과 60대 이상 노년 여성농업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이용 및 경험률 제고를 통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함. 특히 세대별 정책 수요 욕구에 따라 정책의 직접대상자 파악을 통하여 타겟 홍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5개 기본전략 분야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와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분야는 특히 인지도가 낮은 분야로 나타남. 특히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의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이 더 낮게 나타남. 그러나 필요도는 4점 중 모든 정책이 평균 3점 이상으로 필요하

다는 인식이 높음

- 따라서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와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분야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참여 유도 노력이 필요함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는 5개 기본전략 분야 중 인지수준과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이 가장 높은 영역이었으며, 필요도 인식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나타남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는 인지도 면에서는 40~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인지 수준이 가장 높고 대체로 60대 이상 노년 여성농업인의 인지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률은 다른 분야에 비해 연령대별로 다양하고 이루어짐
 - 보육관련 정책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고,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정책은 모든 정책 중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험률도 증가하여 60대 이상 노년 여성농업인의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필요도가 모두 높게 나타남. 필요도가 3.3점 이상인 정책들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정책도 32.4%에 그쳤고 나머지 정책은 10% 전후 수준에 그침
 - 따라서 복지·문화 서비스 제공 영역은 관련 정책의 이용 및 적용확대 노력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분야와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는 다른 영역에 비해 인지도는 중간수준이지만 필요도에 비해 이용률은 낮은 편임
 -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분야는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농촌 여성 주체 양성 분야는 정책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필요도는 여전히 높음
 - 따라서 이 2개 영역의 정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이용률 향상 노력이 필요함

다. 분석결과의 시사점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정책수요 욕구가 다름
 - 30대 이하의 청년 여성농업인은 결혼을 기점으로 한 환경적 영향으로 농업에 입문

하는 시기로 농업노동과 함께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이 낮고, 소득불안과 함께 소득활동과 보육지원 욕구가 강함

- 40대 중년 여성농업인은 농업 경험이 누적되면서 농업인으로서 성장을 시작하는 시기로 농업노동과 함께 자녀 양육을 부담함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욕구가 강하고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직 안정되지 못해 소득불안을 해소할 소득활동을 원하는 한편 농업전문가로의 성장 욕구 및 농업경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 참여가 증가하고 정책 이용 및 참여 경험도 증가함
 - 50대는 농업기술과 경험의 누적으로 농업전문가로의 성장이 완속하는 시기로 가장 많은 농업노동을 부담하며 농업전문가로의 성장 및 활동 욕구가 가장 커 관련 교육 참여 및 정책 이용 및 참여도 적극적임. 그러나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농업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여전히 부담함
 - 60대 이상은 농업기술과 경험이 완속되었지만 노화로 인한 신체능력의 감소로 과중한 농업노동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욕구가 증가함
-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은 필요도에 비해 전반적인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문제점이 드러나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함. 특히 세대별 정책 수요 욕구에 따라 정책의 직접대상자 파악을 통한 타겟 홍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2. 정책제언

- 이상의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 방안에 대한 제언은 <표 5-1>과 같음

〈표 5-1〉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 방안에 대한 제언

구분	정책제언
청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공동경영인등록제도 활성화 지원
	농촌형 아이 돌봄 사업 추진
중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중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행복바우처 확대를 통한 문화·여가 지원

구분	정책제언
	농번기 마을 공동밥차 시범운영
	취미·여가·교양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지속
노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노년 여성농업인의 통증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운영 지원
세대 공통 정책 지원	농번기 친환경 간이 화장실 운영
	세대별 농외 소득원 확보 방안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경작지 임대차 공유 플랫폼 및 임차농 실경작 확인 방안 마련
	여성농업인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개선

가. 청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1) 공동경영인등록제도 활성화 지원

- 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정체성 인식 강화 및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을 위한 공동경영인등록제도 활성화
 - － 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농업에 입문하게 되는 청년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을 부담하고 있지만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라는 인식보다는 가족종사자, 특히 보수가 없는 가족종사자는 인식이 높아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낮고 농업전문가로서의 성장의지가 약함
 - － 또한 농촌은 여성농업인의 노동이 가사와 분리되지 않고 남녀차별 영향이 남아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등록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음. 농업경영체 등록은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 확인 수단이 되므로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등록을 독려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주체로서 정체감을 확립하고, 제도적 지원을 받을 있도록 등록을 계도할 필요가 있음
- 공동경영인 등록은 여성농업인 자신에게 ‘농업경영주’라는 정체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에 상응하는 직업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함
- 제주에서는 부부공동경영협약제도를 2018년부터 2년 연속 추진했으나 협약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부부간에 협약을 맺어 서류화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경험에 있음. 공동경영주 인정은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며 등록된 여성경영주에게는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 및 정책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농촌형 아이 돌봄 사업 추진

○ 농촌실정에 적합한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

- 청년 여성농업인들은 생애주기 특성상 출산과 보육을 경험하는 시기로 농업노동과 함께 보육을 병행해야 함. 이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보육료 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농촌 여건상 이른 새벽시간부터 농업노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새벽시간과 어린이집, 학교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등의 틈새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농번기에는 틈새 돌봄 공백이 여성농업인에게 농업노동과 보육의 이중부담으로 전가됨. 따라서 농촌의 환경을 고려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나. 중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1) 중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중년 여성농업인은 농업전문가로서의 성장 욕구가 강하며, 농산물의 생산, 판매, 가공 및 농업경영에 관한 활동 욕구 역시 강함. 또한, 40~50대는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안정되고 농업 경험이 축적되면서 농업 기술과 정보의 습득 및 확장이 용이한 시기이므로 적극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함
-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년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핵심인력으로서 경쟁력있는 농촌 인력 자원이며, 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이들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농업이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농산물 가공 주체, 교육체험 제공자로 활동하면서 사업의 주체로 등장함
- 6차 산업에 관심이 있는 중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일감 갖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업 생산기술, 농산물 가공기술, 농산물 유통·마케팅 기술 등 실질적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

2) 행복바우처 확대를 통한 문화·여가 지원

○ 문화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행복 바우처 확대

- 문화행사 및 시설 이용빈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감소하였으며, 50대 이상 여성농업인들은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점이 나타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18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획기적 제도개선으로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로 평가된 바 있음
- 행복바우처 제도는 다른 정책에 비해서도 이용 경험이 높은 정책이지만 지난 1년간 문화행사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50.0%, 문화시설 역시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63.0%였으며,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시간부족과 정보부족이었음.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문화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수요를 조사해 여성농업인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취미·여가·교양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지속

- 개인 취미활동이 어렵다는 점은 여성농업인들의 농촌생활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으며, 특히 50대 중년 여성농업인의 응답비율이 높았음
- 또한 여성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수요 1순위가 취미·여가·교양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수요 욕구가 높음에 비해 취미·여가·교양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임. 제주지역 농촌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마을단위 취미·여가·교양 프로그램 개설 및 여성농업인 소모임 활성화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3) 농번기 마을 공동밥차 시범운영

○ 농번기 중년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한 마을 공동밥차 시범운영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시범사업의 경우 농번기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내 4개소 시범사업 추진('19.5) 후 확대시행 계획이었으나 급식 대상자들의 급식이용 포기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바 있음
- 마을공동급식 사업 추진 불가의 이유로는 식사를 준비할 담당자 부재, 식사를 위해

이동의 불편함, 식사 메뉴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등의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회관이나 농작업 현장 등 식사를 위해 별도의 이동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식사 메뉴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맞춤형 공동밥차’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다. 노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

○ 노년 여성농업인의 통증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운영 지원

-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의 지속으로 인한 만성적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노년 여성농업인은 노화와 함께 더 많은 통증을 경험하게 됨. 농업과 농촌이라는 거주 환경의 특성상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까운 거리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내 통증의 관리 및 이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케어설비를 갖춘 건강관리 시설 지원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고령농업인 농부병 지원 추진체계 구축이 진행 중이며, 실질적인 통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교육 및 물리치료 지원이 필요함. 여성농업인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라. 세대 공통 정책 지원

1) 농번기 친환경 간이 화장실 운영

○ 주로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농업 특성과 위생·편의시설이 부족한 농촌환경 맞물려 여성농업인들은 주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집 또는 마을에 멀리 떨어진 농지이거나 넓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화장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커다란 고역이며, 여성농업인의 불편은 그 체감이 더 클 수 있음
- 특히 농번기에는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어려움이 증가하는 실정임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간이 화장실 지원이 필요함. 2020년 경상남도는 농업인의 화장실 이용불편을 해소하여 작업능률 향상 및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수질오염 방지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하여 집단작물재배 지역 내 공동사용 가능 지역에 효소를 활용한 발효화장실 설치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농촌진흥청, 2020)

2) 세대별 농외 소득원 확보 방안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 여성농업인의 소득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농외 소득원 확보 방안 마련
 - 청년 여성농업인은 농사소득이 안정되지 않아 소득불안을 경험하며, 서툰 농업노동과 더불어 출산 및 보육 부담이 있어 농외 소득활동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생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 이유로 농외 소득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음
 - 따라서 지역 내 농업과 관련된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체험을 통한 농외소득원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활동지원은 세대별 활동의향이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음
 - 세대별로 활동 의향이 높은 소득활동을 정리하면 다음 <표 5-2>와 같음

<표 5-2> 희망 농외 소득활동

여성농업인		희망 농외 소득활동
청년	30대 이하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일반 직장 취업, 자영업 등
중년	40대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일반 직장 취업,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 판매 등
	50대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 판매, 농업임금노동(품삿 노동 포함) 등
노년	60대 이상	

- 프로그램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한 농외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별로 활동의향이 있는 농외 소득활동에 차이가 있으며, 이미 제공하고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용경험 및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내용 개선 및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함. 교육내용은 세대별 희망 농외소득활동을 토대로 개선한다면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경작지 임대차 공유 플랫폼 및 임차농 실경작 확인 방안 마련

- 안정적인 농업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농사기술과 함께 적정 규모의 경작지와 노동력이 필요하며, 많은 농업인들이 경작규모를 늘리기 위해 경작지를 임차하고 있음
- 경작지 확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청년 여성농업인은 본인 소유의 경작지가 없어서 경작지를 임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본인 명의 농지가 없는 청년 여성농업인에게 경작지 확보는 필수 선결과제임. 다른 한편으로 농업노동 부담이 큰 노년 여성농업인들은 농지 임대를 필요로 하게 됨
- 지금까지 농지법의 농지 보유에 따른 자경의무와 더불어 농지임대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농지임대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음.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농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음
 -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농업인으로서 경작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함
 - 모자건강의 보호 등을 위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 또는 임대·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졌음
 - 따라서 합법적인 경작이 가능한 농지를 찾아 경작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매칭을 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경작을 하는 임차농의 지위확인이 가능한 방안 모색되어야 하는 실정임
- 경작지 임대차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 경작지 임대차 정보 공유 플랫폼을 마련하여 경작지 정보 교류와 함께 표준계약을 정착시키면 농업노동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는 임대창구 역할을 할 수 있고, 경작지가 필요한 이들은 보다 쉽게 경작지 정보와 경작지 확보가 가능함.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한 거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임차농 지위확인을 위한 실경작 확인 방안 마련

- 경작지가 확보되더라도 실경작지 확인이 어려우면 임차농의 지위 확인이 어렵고 농업인 대상 각종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농민수당이 지급대상 선정 시 토지를 임대해서 실제 경작하고 있는 임차 여성농업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행정, 농민단체, 농협, 마을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지 실경작 확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차농의 지위를 보호하고 경작권을 인정해 농지 실경작자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4) 여성농업인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개선

- 제주지역은 ‘제3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의 다섯 가지 기본전략에 맞춰 40여 개의 정책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 인지도는 낮은 수준임. 정책 이용 및 참여를 통한 정책 효과는 정책인지를 통해 시작되는 만큼 낮은 인지도 개선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따라서 농업관련 관련 기관 및 단체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일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정책 수혜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우편, 문자 등을 통한 타겟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인지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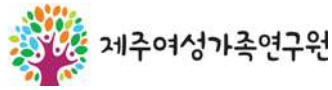
3. 연구의 한계점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담고 있음

-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 수요 욕구에 관한 특정 시기의 횡단조사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계열적 변화를 담고 있지 않음
- 이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를 구별하고 있지 않음. 귀농·취촌을 통해 유입된 여성농업인,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유입된 다문화가족의 여성농업인 등의 농촌여성 주체를 구별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실태와 정책 수요 현황을 알기 어려움
-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 인구 현황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여성 농가인구 통계자료를 토대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에 한계가 있음

참고문헌

- 강경희. 2007. 「제주여성 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여성능력개발본부.
- 강종원. 2017. 「강원도 여성농업인 육성방안」. 강원연구원.
- 강혜정. 2008.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김경미·김영·이봉훈·김상남·최윤지. 2004.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여성농업인 참여수준과 정 보망.” 농촌사회 14(1): 121-149.
- 김경미·최윤지·이진영·고운미. 2005.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영농교육실태와 평생교육과 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2(2).
- 김경미 외. 2006.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연구」. 농촌진흥청.
- 김병영. 2015. 「여성농업인 농업노동 및 생활실태 조사」.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김수옥·박은희. 2003.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현황과 육성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5(3).
- 김영옥·김이선. 2003.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부.
- 농림부. 2000.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2001-2005)」.
- 농림부. 2006. 「2006~2010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2011. 「제3차('11~'15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15. 「제4차('16~'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 농촌진흥청. 2020. 「2020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
- 진혜민. 2019.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안석·엄진영·박지연. 2019.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연화. 2016. 「제주 농촌지역 여성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엄진영·최용호·박지연. 2018.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박대식·김우태. 2014.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제주특별자치도. 2006.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2006-2010)」.
- 제주특별자치도. 2011. 「제2차('11~'15)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2016. 「제3차('16~'20)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2020. 「제3차('16~'20)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
- 조경옥. 2016.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적 함의」.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 태희원. 2018. 「충남 농촌 청년여성의 생활실태와 정책 지원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 및 수요 조사

ID

--	--	--	--	--	--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제주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해 실태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귀하가 주시는 의견은 매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조사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여성농업인
- 연구기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책임연구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사기관 :
- ▶ 담당자 :
- ▶ 회신처 :

※ 면접원이름	※ 면접원ID	※ 검토자1	※ 검토자2	조사일시
				/

※ 표시 항목은 조사기관에서 리스트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입하는 란입니다.

※ 본 조사에서 모든 설문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응답자의 경우 회신내용 확인을 위한 연락시 필요한 사항이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응답자명		전화번호	
------	--	------	--

※ 본 설문은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가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여성 중 지난 1년 동안(2019년 6월 1일~2020년 5월 31일) 최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논·밭 등 경지를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 경영·경작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한 농가에 2명 이상 여성이 농사를 짓는 경우, 더 많이 농사를 짓는 여성이 대상자임.

응답자 일반 사항 및 특성

SQ1.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SQ2. 귀하는 귀농하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SQ3. 귀하는 지난 1년 중 몇 개월 간 직접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 ① 3개월 미만 [☞ 조사 중단] ② 3-6개월 미만 ③ 6-9개월 미만 ④ 9개월 이상

SQ4. 귀하께서 농업에 종사한 기간은 총 몇 년입니까? 총 ()년 ()개월

SQ5. 귀하의 연령은? 만 ()세

SQ6.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SQ7.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3년제 이하)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SQ8. 귀하의 가구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독신가구 ② 부부가구(2인) ③ 부부+자녀 ④ 한부모+자녀
⑤ 조부모+부부+자녀(3대) ⑥ 조부모+부부(2대) ⑦ 조부모+손자녀(2대) ⑧ 기타()

SQ9.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있으실 경우 몇 명이 있습니까?

- ① 있다(남 여) [☞ SQ 10번으로] ② 없다 [☞ SQ11번으로]

SQ10. (자녀가 있는 응답자만) 귀하의 자녀에 대한 다음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SQ10_1. 자녀로부터 생활비 보조	SQ10_2. 자녀의 노동력 보조 (일손 돕기, 1년 기준)	SQ10_3. 향후 농업 후계 여부
① 있다	① 보조 없음 ② 10일 이하 ③ 11일-30일	① 있다
② 없다	④ 31-60일 ⑤ 61일 이상	② 없다

SQ11. 지난 1년간 귀하 자신의 농업 이외 일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① 자영업 고용주(유급) ② 자영업 고용직원(유급) ③ 농업 이외 일용직(아르바이트)
④ 농업관련 일용직(품앗이) ⑤ 기타() ⑥ 없다 [☞ Q1번으로]

SQ12. 농업 이외 일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만원

I. 농업규모 및 소득수준

Q1. 귀덕에서 지난 1년간 생산한 농·축산물 중 판매금액(판매한 총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양곡류(미곡, 잡곡, 두류, 서류(감자, 고구마) 등) ② 과일류(감귤, 감, 키위, 딸기, 블루베리 등)
③ 채소류 ④ 화훼류
⑤ 특용작물(버섯, 더덕, 인삼 등) ⑥ 축산(한우, 양돈, 낙농, 양계 등)
⑦ 기타()

Q2. 현재 귀덕에서 경작하는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m^2 , 또는 평)

Q13. 귀댁의 농사일 중 다음과 같은 일은 누가 담당합니까?

분야	분야별 활동	주로 본인이 함	나와 남편 둘이 비슷	주로 남편	다른 가족 혹은 고용 노동자	해당 작업을 하지 않음
공통응답	① 농사기술 및 판매 정보의 수집 및 획득	①	②	③	④	⑤
	② 농사 및 경영일지 기록	①	②	③	④	⑤
	③ 농업용(영농자금) 대출 및 상환 결정	①	②	③	④	⑤
	④ 농지 및 기계 구입	①	②	③	④	⑤
	⑤ 생활용 금전 관리	①	②	③	④	⑤

☞ 논, 밭, 과수는 ⑥번으로, ☞ 축산농가는 ⑩번으로

논, 밭, 과수만	⑥ 논갈이, 밭갈이	①	②	③	④	⑤
	⑦ 파종, 육묘, 정식	①	②	③	④	⑤
	⑧ 농약 살포	①	②	③	④	⑤
	⑨ 비료주기	①	②	③	④	⑤
	⑩ 수확	①	②	③	④	⑤
	⑪ 수확 후 관리(건조, 세척)	①	②	③	④	⑤
	⑫ 출하준비(선별, 포장)	①	②	③	④	⑤
	⑬ 외부인력(고용)관리	①	②	③	④	⑤
	⑭ 심을 작물 결정	①	②	③	④	⑤
	⑮ 판매처 결정	①	②	③	④	⑤
축산 농가만	⑩ 축산 먹이주기	①	②	③	④	⑤
	⑪ 방역, 위생관리	①	②	③	④	⑤
	⑫ 축사청소, 퇴비처리	①	②	③	④	⑤
	⑬ 우유 짜기	①	②	③	④	⑤
	⑭ 기타 사육관리	①	②	③	④	⑤

Q14. 귀하는 (농업생산 이외) 다음의 분야에서 일하여 얻는 소득이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농업생산 이외에 소득을 얻는 활동	Q14-1. 현재 활동여부		Q14-2. 향후 활동의향		향후에 하고 싶은 소득 활동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농산물 가공(장류, 엑기스)	①	②	① [☞ Q14-3]	②	1순위로 하고 싶은 것 ()
②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 판매(직거래, 온라인 포함)	①	②	① [☞ Q14-3]	②	
③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민박 등)	①	②	① [☞ Q14-3]	②	
④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①	②	① [☞ Q14-3]	②	2순위로 하고 싶은 것 ()
⑤ 일반 직장 취업	①	②	① [☞ Q14-3]	②	
⑥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①	②	① [☞ Q14-3]	②	
⑦ 농업 임금노동(품삿 노동 포함)	①	②	① [☞ Q14-3]	②	

Q14-3. [Q14-2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가 농업생산 이외에 소득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농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 ② 일할 수 있을 때 추가소득을 마련하려고(노후자금 마련) |
| ③ 유희시설(장비)을 잘 활용하고 싶어서 | ④ 내가 가진 재능(장점)을 활용하고 싶어서 |
| ⑤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 ⑥ 타인의 권유(정책적 지원이 있어서) |
| ⑦ 활동 의향이 없다 | ⑧ 기타() |

Q15. 다음은 농업관련 분야별 활동 욕구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V표 해주십시오.

분야별 활동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① 내가 짓는 농사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② 농업인으로서 직업적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③ 새로운 농업 기술, 정보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④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 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여성이 농사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⑥ 농사일에서 여성 본인의 역할이 남성과는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⑦ 나는 지역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⑧ 지역의 사회활동에서 남녀 차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Q26-2. (농촌에 살고 싶지 않는 경우) 귀하가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①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 ②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취약해서 |
| ③ 농사일이 힘들어서 | ④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
| ⑤ 소득이 낮아서 | ⑥ 가사와 아이들 돌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
| ⑦ 건강이 안 좋아서 | ⑧ 기타(구체적:) |

Q27. 귀하는 직업인으로서 농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농업 노동이 힘들다 | ② 농업소득이 적다 |
| ③ 농업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어렵다 | ④ 농업기술이 어렵다 |
| ⑤ 수확기 이외 기간에 현금 확보가 어렵다 | ⑥ 농업관련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만 자금 부족 |
| ⑦ 농업관련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만 정보 부족 | ⑧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
| ⑨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 ⑩ 기타() |

Q28. 귀하는 농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교통이 불편하다 | ② 병원·보건소·약국 등 의료시설이 멀다 |
| ③ 농촌사회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 ④ 개인 시간 갖기가 어렵다 |
| ⑤ 개인 취미 활동을 하기 어렵다 | ⑥ 이웃에서 친구·동료와 친해지기 어렵다 |
| ⑦ 친구·동료가 없다 | ⑧ 가정에서 역할이나 위치가 애매하다 |
| ⑨ 농촌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 ⑩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
| ⑪ 기타() | |

Q29. 귀하는 다음 중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다 | ② 농사일에 체력이 부족해 어렵다 |
| ③ 농촌사회의 남녀차별로 활동에 제약이 많다 | ④ 농기계나 시설 사용이 어렵다 |
| 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 ⑥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활동하기 불편하다 |
| ⑦ 기타() | |

Q30. 귀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앞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①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 ②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 |
| ③ 농촌지역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 | ④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 확대 |
| ⑤ 여성농업인이 농산물 가공, 유통, 농촌관광 등으로 진출하도록 기술과 자금 지원 | |
| ⑥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보화, 마케팅 전문 경영교육 강화 | ⑦ 기타() |

Q31. 귀하는 고령의 여성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고령 농촌여성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 ② 고령여성의 주거안전을 위한 주택수리·시설개량지원 |
| ③ 고령여성 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 | ④ 상시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
| ⑤ 문화·여가생활 지원 | ⑥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 ⑦ 외출 등 이동서비스에 대한 지원 | ⑧ 기타() |

Q32. 귀하는 후계여성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농지 관련 대출지원 | ② 영농 경영교육지원 |
| ③ 가사노동 및 육아문제의 해결 | ④ 판매처 확보를 위한 지원 |
| ⑤ 기타() | |

Q33. 귀하는 젊은 여성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확대 | |
| ②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산업관련 농외소득원 개발 및 창업지원 | |
| ③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 | |
| ④ 기타() | |

VI.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정책 진단

Q34. 귀하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했던 여성농업인 정책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용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항목	Q34_1_1. 인지 여부		Q34_1_2. 참여(이용) 여부	
		알고 있다	모른다	있다	없다
34_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①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	①	②	①	②
	② 부부공동경영 협약 및 공동경영주 홍보 등 양성평등 추진	①	②	①	②
	③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기능 강화	①	②	①	②
	④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①	②	①	②
	⑤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①	②	①	②
	⑥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①	②	①	②
	⑦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①	②	①	②
34_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①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①	②	①	②
	② 여성농업인 농업신문 구독 지원	①	②	①	②
	③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①	②	①	②
	④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①	②	①	②
	⑤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확충	①	②	①	②
	⑥ 여성농업인 농작업대행 사업 추진	①	②	①	②
	⑦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①	②	①	②
	⑧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①	②	①	②
	⑨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①	②	①	②
34_3.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①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①	②	①	②
	②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①	②	①	②
	③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①	②	①	②
	④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①	②	①	②
	⑤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①	②	①	②
	⑥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①	②	①	②
	⑦ 농촌지역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①	②	①	②
	⑧ 경로당을 이용한 고령 여성농업인 보호	①	②	①	②
	⑨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①	②	①	②
	⑩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①	②	①	②
	⑪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①	②	①	②
	⑫ 고령농업인 농부병 지원 추진체계 구축	①	②	①	②
	⑬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문화활동	①	②	①	②
	⑭ 농촌축제로 공동체 활성화	①	②	①	②
34_4. 여성 농업인 지역 역할확대	①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①	②	①	②
	② 농촌 현장포럼 추진	①	②	①	②
	③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등 역량강화 시책 지원	①	②	①	②
34_5.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①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①	②	①	②
	② 귀농귀촌 및 신규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전문교육	①	②	①	②
	③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	①	②	①	②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①	②	①	②
	⑤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①	②	①	②
	⑥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 사업	①	②	①	②
	⑦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사업	①	②	①	②

Q35.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정책입니다. 귀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항목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35.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① 여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우선선발	①	②	③	④
	② 부부공동경영 협약 및 공동경영주 홍보 등 양성평등 추진	①	②	③	④
	③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기능 강화	①	②	③	④
	④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①	②	③	④
	⑤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①	②	③	④
	⑥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산	①	②	③	④
	⑦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①	②	③	④
35.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① 농업인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30% 이상 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② 여성농업인 농업신문 구독 지원	①	②	③	④
	③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①	②	③	④
	④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①	②	③	④
	⑤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 확충	①	②	③	④
	⑥ 여성농업인 농작업대행 사업 추진	①	②	③	④
	⑦ 여성농업인 농작업 거건 개선	①	②	③	④
	⑧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확대	①	②	③	④
	⑨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35.3.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①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①	②	③	④
	②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③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등 지원	①	②	③	④
	④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①	②	③	④
	⑥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활성화	①	②	③	④
	⑦ 농촌지역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①	②	③	④
	⑧ 경로당을 이용한 고령 여성농업인 보호	①	②	③	④
	⑨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내실화	①	②	③	④
	⑩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⑪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①	②	③	④
	⑫ 고령농업인 농부병 지원 추진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⑬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한 소규모 문화활동	①	②	③	④
	⑭ 농촌축제로 공동체 활성화	①	②	③	④
35.4.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①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② 농촌 현장포럼 추진	①	②	③	④
	③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등 역량강화 시책 지원	①	②	③	④
35.5. 다양한 농촌 여성 주체 양성	①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①	②	③	④
	② 귀농귀촌 및 신규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전문교육	①	②	③	④
	③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	①	②	③	④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가족 한글 교육 등 특성화 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⑥ 신규유입 여성농업인 등 멘토-멘티 사업	①	②	③	④
	⑦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사업	①	②	③	④

♣ 마지막까지 응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

연구보고서 2020-08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와 정책 방안

발 행 일	2020년 9월 30일
발 행 인	민 무 숙
발 행 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89 T. 064-720-4923, F. 064-711-2349 www.jewfri.kr
인 쇄 소	모그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87026-59-4

제주지역 여성농업인 실태와 정책 방안

세대 간 특성을 중심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3145 제주시 연오로89(연동) 3층

✉ jewfri@jewfri.kr 🌐 www.jewfri.kr



9 791187 026594
ISBN 979-11-87026-59-4